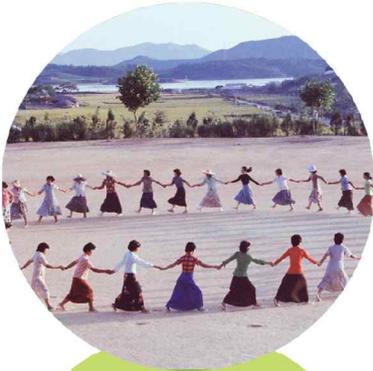


최종보고서

# 해남 강강술래의 진흥을 위한 전승환경 개선 방안 연구

2017. 6







# 해남 강강술래의 진흥을 위한 전승환경 개선 방안 연구

■ 사진으로 보는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 ..... 2

## I. 과업의 배경과 목적

1. 과업의 배경과 연구단 구성 ..... 9  
 2. 과업의 목적 ..... 10

## II. 해남 강강술래의 역사적 내력

1.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전승 배경 ..... 11  
 2. 놀이형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전승 활동 ..... 19  
 3. 대회용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탄생과 전승활동 ..... 29  
 4. 진도 강강술래 전승내력과 통합 전수교육 ..... 31

## III.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 및 상생 발전 방안

1. 통합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분리의 필요성 ..... 39  
 2.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 및 상생을 위한 학술적 검토 ..... 41  
 3.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와 상생 방안 ..... 47  
 4.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비교와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 ..... 51

## IV. 해남 강강술래의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과 활성화 방안

1. 해남 강강술래의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 ..... 77  
 2. 해남 강강술래 진흥을 위한 교육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 89  
 3. 해남 강강술래의 진흥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 95

## V. 사회적 확산을 위한 강강술래 자료의 수집과 집대성

1. 해남 강강술래 음향 및 영상 자료 ..... 106  
 2. 강강술래 관련 신문기사 검색 ..... 163

VI. 요약 및 제언 ..... 179

# 사진으로 보는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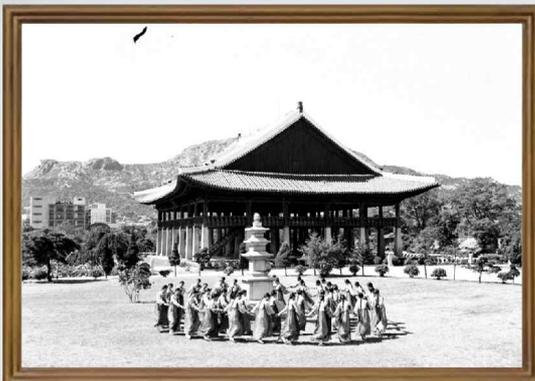
## 1. 제2회 민속예술경연대회, 1961년, 서울

- 제2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9.28 수복 및 중추절 경축” 기념으로 덕수궁에서 열렸다.(1961.9.26)
- 전남 대표로 출전한 수피아여고 「강강수월래」는 우수영 출신 김금자가 이끄는 팀이었다. 신문보도에서는 “소리 고운 ‘푸리 마돈나’ 김금자 양이 선창하자 색동저고리, 호장저고리에 주홍치마를 입고 후창하는 모습은 온 중화전을 황홀케 한다.”고 적고 있다.
- 국가기록원 소장



제2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신문보도





수피아 여고생들의 강강술래, 선창 우수영 출신 김금자

## 2. 임석재 · 임동권 교수의 민요 채록, 1966.

- 임석재 선생과 임동권 선생이 1966년 8월에 우수영에서 강강술래 조사를 했다. 당시 촬영된 사진 자료가 남아 있다.
- 『월산 사진으로 민속을 말하다01』, 국립민속박물관, 2007. pp.81~86



충무사 앞에서 기념촬영(맨앞 좌에서 세 번째 임석재, 네 번째 임동권)



강강술래 녹음  
(맨 우측이 임석재, 두 번째 광주교 교사 김기준)



강강술래를 녹음하는 임석재 선생  
(중앙은 광주교 교사 김기준)



강강술래 제보자 김금자(좌)와 김길임(우)



강강술래 제보자 김금자(좌), 김길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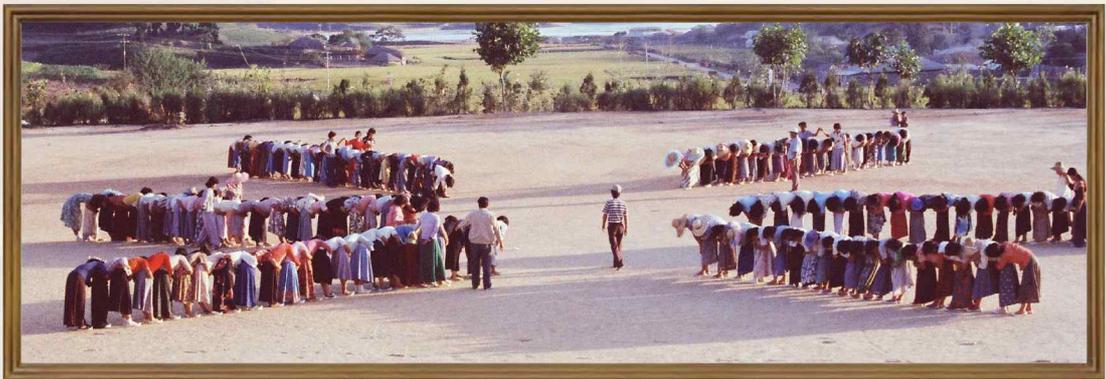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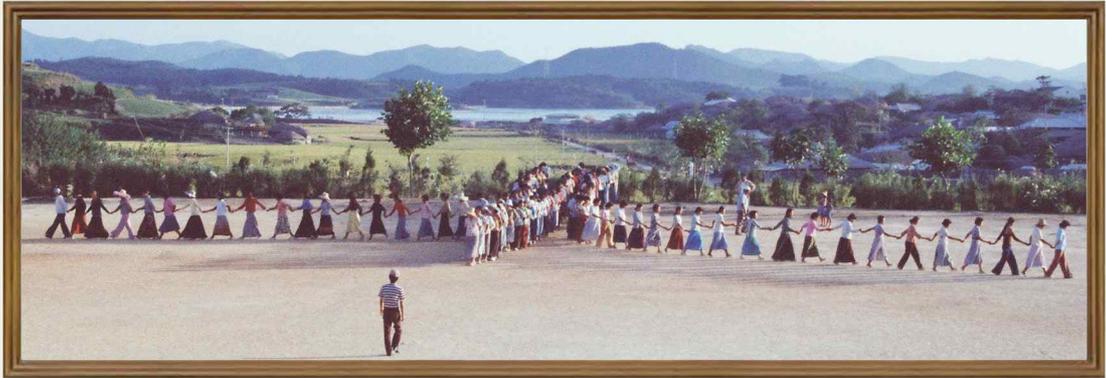
진도 가는 배위에서 임동권과 김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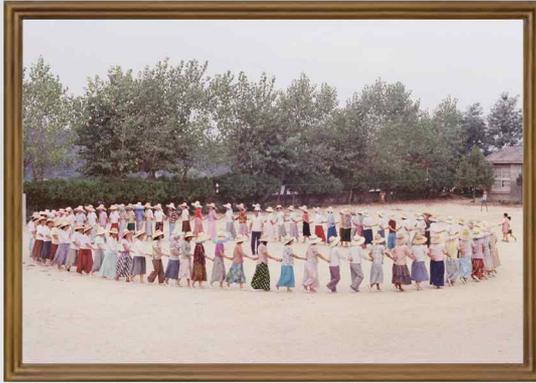


진도 강강술래 보유자 양흥도(맨 좌측)  
강강술래 보유자 양흥도

### 3.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을 위한 연습 장면, 1975년경

-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는 1975년 제16회 민속예술경연대회(서울)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1976년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진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사진은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 연습할 때 촬영된 것이다.
- 대회에서 입상하기 위해 강강술래의 규모가 확대되고 놀이 구성도 다채로워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청어뛰기 · 풀기와 기와밟기 등이 놀이 구성에 포함된다. 사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전남대 지춘상 교수 소장





강강술래 연습 장면

#### 4.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76년

-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는 진주에서 열렸으며, 해남 강강술래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강술래 연행 장면(국가기록원 소장)



기념촬영(전남대 지춘상 교수 소장)

# I. 과업의 배경과 목적

## 1. 과업의 배경과 연구단 구성

- 강강술래는 1966년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었다. 하지만 높아진 지명도에 비해 실질적인 전승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강강술래의 전승 현실을 새롭게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본래 별개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인위적으로 한 데 묶이고 이후 통합 관리되면서 지역 간 전승활동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 전승권역 단위로 분리해서 지역별 개성을 회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근래 공연되는 강강술래는 판에 박힌 고정된 내용을 되풀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수영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공연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외부 초청 공연이나 행사에서 시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과 다양성을 재조명하고 확산과 재창조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강강술래’가 없어졌다. 연희자들이 고령화되고 새로운 연희자들의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존회 내부의 전수교육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사회교육 등을 다변화해서 기반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번 과업은 해남군의 용역을 받아 수행되었으므로 ‘해남 강강술래’에 초점을 뒀지만, 특정 지역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집중했다.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단을 구성했다.

### 〈연구단 구성〉

- 책임연구원 : 이경엽(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 변남주(국민대학교 연구교수),  
김혜정(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보조연구원 : 이유리(목포대학교 박사수료), 이은정(목포대학교 석사과정)

## 2. 과업의 목적

### 1)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를 위한 학술적 논거 확보와 이를 토대로 한 전승환경 재구축 방안 마련

- 해남·진도 강강술래가 통합 운영되면서 생긴 문제점을 검토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강강술래의 전승 내력 고찰과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 고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전승활동 기반 조성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전승 현실 진단 및 강강술래의 진흥 방안 고찰

### 2)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과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 및 재창조를 위한 기반 조성

- 강강술래의 지역별 비교와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 고찰
- 해남 강강술래의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

### 3) 사회적 확산을 위한 강강술래 자료의 수집과 집대성

- 강강술래 자료의 집대성을 통해 주민들의 경험과 기억을 현전화(現前化)하고, 강강술래의 다양한 버전을 확보하고, 교육과 재창조를 위한 '종자'로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강강술래를 더 풍부하게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Ⅱ.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전승내력

### 1.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전승 배경

#### □ 역사적인 배경

##### ○ 조선시기 전라수영 이어서 전라우수영을 우수영에 설치

- 1440년(세종 22) 무안 목포(당포)에서 영암 황원곶(우수영)으로 이설  
洪武十年(1377) 設置水軍處置使 於務安唐浦矣 越六十四年 正統五年庚申  
(1440) 移設于海南黃原面(『全羅右水營誌』)
- 1479년(성종 10) 전라좌수영이 분할되어 전라우수영으로 분할되고 1895년  
폐영

##### ○ 관할 구역: 서남해를 관장하는 총사령부의 규모

- 조선 후기: 7관(해남, 진도, 영암, 나주, 무안, 함평, 영광)과 17포(완도 가  
리포 ~ 전북 옥구·군산진)의 수군을 통솔(전라좌수영은 5관 5포).
- 19세기 중엽 전라우수영에 소속된 병선은 모두 85척에, 병사는 21,356명  
(좌수영은 9,849명)이었음(박세나, 2010, 목포대석사학위논문, 50쪽).



< 1872년 전라우수영지도 >



< 거북선앞 창선 2척, 판옥선과 사후선 (1640년 무렵 당시그림) >

### ○ 우수사의 약칭 '수사(水使)', 별칭 '곤수(裨帥)'의 위상

- 세종 2년(1420) 위상: 정3품 당상관으로 수군도안무처치사 약칭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라 칭(해남현감은 종 6품).
- 1465년(성화 원년)에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 개칭되었는데 약칭 '수사' 또는 '곤수'라 별칭으로 곤수는 '대궐 밖의 신하'라는 뜻으로 '대궐 밖의 모든 일을 맡는 장군'을 말함.
- 우수사는 밑에는 우후 1명(종3품), 첨절제사(종3품), 여러 만호(정4품) 그리고 병선은 130여 척(『대동지지』)을 거느림.
- 우수사 역할: 전라우도의 방어 외 25처의 봉화, 목장관리, 세곡의 수납과 호송, 소나무밭 관리와 전선의 건조 등

### ○ 조선시대 우수영은 서남해의 중심도시

- 전라도 군현 각종 고지도: 전라우수영과의 거리는 필히 명기
- 『여지도서 1759』에 해남 제(16면의 총 인구는 19,173) 중 우수영이 포함된 황일면의 인구는 4810명이고, 지금 해남읍이 포함된 현내일면은 1068명.
- 『호구총수 1789』 : 해남 전체(16면 5974호 18,897명) 중 우수영(황일면 1371호 3,895명): 해남읍(현일면 427호 1361명):
- 1895년 우수영 소재지 민호는 560호, 목포는 132호(1897년 개항 시 250여명)



< 우수영 일제 초기 사진 >



< 1970년대 말 우수영 전경 >

## □ 문화적인 배경

- 우수영에는 강강술래 외에도 민속예술이 풍부하다. 먼저 부녀농요 (1972년 13회(대전)민속예술경연대회 국무총리상, 1987년 08월 25일 지정,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가 있으며, 남자들의 민속예술도 최근 복원되었는데, 2012년에 집단놀이인 용쟁이놀이가 70여 년만에 복원 되었고 이어 2013년에 농요인 남자들소리가 45년만에 복원됨.
- 우수영 부녀 농요는 밭을 맬 때 부르는 밭매기노래와 보리타작노래, 방아타령, 등덩이타령, 길꼬냉이, 하루의 일을 끝내고 마을에 돌아와 놀면서 부르는 뒤풀이 등으로 구성된다.
- 용쟁이놀이는 남성들의 대보름놀이로 정착하였는데, 용놀이, 고싸움, 즐싸움에다가 즐소리와 걸궁이 더해진 형식으로, 해방 전까지 거의 매년 대보름에 행하여졌다고 하나 그 유래는 분명하지 않음. 용쟁이놀이에서 고싸움은 거칠어 남자만이 하였으나 즐싸움은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하였고, 놀이는 억세계 경쟁하였지만 해학적으로 즐기면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였던 대동놀이였음.
- 우수영남자들소리는 1960년대까지 우수영 남자들이 힘든 논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농요로 못자리에서 손으로 모를 뜨면서 부르는 먼데소리, 모내기(상사소리 2종류), 김매기(절로소리 3종류), 풍년을 빌면서하는 방아타령, 도리깨질소리 그리고 마지막 김매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머슴 중에서 일을 제일 잘한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농악에 맞추어 춤추면서 부르는 길꼬내기 등으로 구성됨.



< 우수영 부녀농요 >



< 2012. 2. 5 대보름에 재현된 우수영 용잡이놀이 1 >



< 2012. 2. 5 대보름에 재현된 우수영 용잡이놀이 2 >



< 2012. 2. 5 대보름에 재현된 우수영 용잡이놀이 3 >



< 우수영 남자들소리 2015년 명랑대첩제때 공연모습 >

## □ 강강술래·해남 강강술래의 발원 설화

### ① 삼국지 위지 동이전 고래설

- 마한(馬韓)에서 5월에 씨를 다 뿌리고 귀신을 제(祭)한다. 때를 지어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신다(群聚歌舞). 밤낮 쉬지 않고 수십 명이 함께 일어나 서로 따르며(飲酒晝夜無休 數十人俱起相隨), 땅을 밟고 낮췄다 높였다 한다. 손과 발을 서로 장단을 맞춘다. 절주의 탁무와 유사하다(踏地低昂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진수(陳壽 232~297)의 『삼국지위서 동이 韓傳』]

### ② 이순신 명량해전 의병전술 관계 설화

-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해남 우수영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적군에 비하여 아군의 수가 매우 적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마을 부녀자들을 모아 남자차림을 하게 하고, 옥매산(玉埋山) 허리를 빙빙 돌도록 했다.

### ③ 명량해전 당시 정남이와 봉녀 전설(김동환, 1927년, 『별건곤』 잡지)

- “천년천년 사천년을 대대손손 자라왔네” “만년만년 사만년을 대대손손 지켜왔네” “강강수월래♫” “봄에 뵈든 부모처자 늙지않고 잘 계시나” “오늘 밤에 승전하고 내일날은 돌아가네” “강강수월래♫”
- 해남(우수영)에서 구전되는 강강술래 전설을 소개했는데, 지금 가사와 다른 것 외에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준다. 강강술래를 명량대첩의 승전요인으로 인식하였고, 호칭은 ‘강강수월래(强强隨月來, 强强水越來)’이며, 그 뜻은 ‘강한 적군이 달 따라 또는 바다 물을 건너 침범하니 나가 싸우자’인데 이순신 장군이 지었다 한다. 또 강강술래가 해남(우수영)에서 발원하여 호남은 물론 영남까지 유행하게 된 까닭 등도 설명하고 있다.
- 다음은 전설의 축약이다. “연인 사이였던 봉녀와 정남, 명량해전 당시 봉녀는 육지에서 강강술래를 하고 정남은 해전에 참여하여 승리하였다. 봉녀는 정남을 애타게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둘은 울돌목에서 사망했다. 다음날 바닷가에는 바위 두 개가 솟아 올라왔다. 이름하여 ‘부부암’ 또는 ‘봉녀바위, ‘정남바위’라 칭하였다. 그런데 한 어부가 ‘부부는 무슨 부부냐’하면서 ‘형제암’이라 개칭했더니 이튿날 바위 하나가 슬펐던지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 한편, 마을사람들은 장사를 지내고 제사 때마다 남녀노소가 당시와 같이 강강술래를 했다. 이 소문이 널리 퍼지자 그 원혼을 달랜다고 전라도나 경상도에서도 매년 가을철이 되면 강강술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황산면 성산마을 바닷가 인근바다에 ‘각시바위’가 있는데, 사릿물 때에만 나온다(성산마을 주민 이철승).



< 울돌목과 우수영 포구 2007년 전경 >

## 2. 놀이형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전승 활동

- 일제강점기 : 명량해전 관련 발원 해남설화로 일제에 탄압
- 연행의 중심지
  - 서남해 연안에서도 거대마을인 해남 우수영이 대표적인 곳
  - 김동환 1927년, 『별건곤』 잡지에 실린 해남강강술래 사설 중 일부)

- “천년천년 사천년을 대대손손 자라왔네” “만년만년 사만년을 대대손손 지켜왔네” “강강수월래” “오늘 밤에 승전하고 내일 날은 돌아가네” “강강수월래”
  - 당시 호칭은 ‘강강수월래(强强隨月來, 强强水越來)’였으며, 강강술래를 명량대첩의 승전요인으로 인식하였음.
- 1934년 『朝鮮出版警察月報 第72號』 : 朝鮮文 新聞紙 差押 記事要旨
- “『조선중앙일보』 1934년 8월 24일자: 해남 강강수월래의 명량해전 관련 설과 연행시기는 정월 대보름과 추석 무렵 등 소개.” 이 기사가 나온 신문은 일제에 의하여 차압 되었음.



< 1688년(숙종 14) 만들어진 명량대첩비 >

壬辰亂ノ遺習 海南「強美水越來」

我が海南ニハ「強美水越來」ト云フ婦女子ノ獨特ヲ風習ガアツテ正月十五日トカ八月ノ秋夕ノ如キ日ニ回陣ヲ作ツテ舞踏行進ヲスルモノガアル。「強美水越來」ノ意味ハ強イ靈族ガ水ヲ越シテ攻メテ來ルト云フ意味デ壬辰倭亂ノトキニ要塞ニ伏兵ヲ置キ婦人等ガ山上ニ登ツテ「強美水越來」ト叫ブト衆聲ニ驚イタ敵兵ガ其レヲ目的ニ攻メルノヲ伏兵ガ側面カラ容易ニ撃破シタ國防秘方カラ來タモノデアツテ今ハ郷土藝術トナツテ居ルガ其ノ日ハ婦人ハ解放セラレ動員セラレルノデアアル。三世紀前ノ我等ノ祖母等ノ脈中ニ（羅ツタ熱イ血ハ今ハ若イ婦人等ノ胸ニ一層擴大サレテ）居ルノデアツテ此ノ先キモ回数ヲ重ネル程此レガ時代化シ十二分ノ意義ト價値ヲ發揮スルモノデアアルコトヲ思フト我が地方ノ「強美水越來」ニ今更ノ如ク冷リヲ感ズルノデアアル。

< 일제에 의하여 차압된 『조선 중앙일보』 1934. 8. 24 해남우수영강강술래 관련 기사 >

□ 1950년 후반 : 놀이형(김금자제)공연단 조직, 목포, 광주 등 활동

○ 공연단 조직하여 대외활동 시작

- 1950년대 후반 우수영에서 김금자(설소리) 외 30여명으로 강강술래공연단 (단장 정채옥 문내면 동외마을)을 만들어 목포 등지에서 공연활동을 시작
- 1957년 우수영강강술래(처녀 37명)이 명량해전 전승 36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사직공원에서 공연하여 갈채(뉴스 동영상 자료)



< 목포 유달산 강강술래 기념사진(김금자 사진제공) >

□ 1960년대 :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확산과 전남대표로 활동

○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광주에 보급

- 1958년 김금자(1938~, 서상리 출신 설소리) 강강술래 광주 수피아여고 특기장학생으로 특채(김오봉 교감)되어 1958~61년 재학하고, 졸업 후 2년간 즉, 1962까지 광주 수피아여고에서 강강술래를 지도하였음. 이 팀은 1961년 전남대표로 제2회 전국민속경연대회(덕수궁, 40명)에 출전하고(『동아일보』 1961년 9월 27일자)(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61년 경복궁, 진해해군사관학교 등에서 공연함.





< 해군사관학교에서 공연하고 있는 광주수피아여고 강강술래단(김금자 사진제공) >

○ 우수영에 강강술래단을 복설하여 전남대표로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

- 1963년부터 김금자 선생은 해남 군청에 근무(~66년)하게 되면서 해남우수영에 다시 강강술래단이 구성되어 1963년 10월 전남대표로 전국민속경연대회(서울 경복궁창덕궁)에 출전
- 1964년 해남우수영강강술래팀은 전남대표로 출전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상
- 1966년(단체 공로상)에 연이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음.



< 1963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한 우수영강강술래팀  
창경궁 기념사진(김금자 사진제공) >



< 1964년 김금자씨 해남군청 근무 당시 수성송에서 기념사진(김금자 사진제공) >

## ○ 문화재 8호 지정 이어 초대 예능보유자 지정과 해제

- 1965년 임석재 교수, 임동권 교수 해남, 진도 등 현지 조사
  - 해남: 김금자(26세), 김충혜(24세), 김성희(24세), 고순희(24세), 박순례(47세).
  - 진도: 박춘심(23세 벽파), 정이년(50세 남 진도읍), 양홍도(지막리 68세).
- 1966년 2월 21일 문화재 8호 지정(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
  - 서남해안에서 연행되고 있는데 해남과 진도에서 가장 성행했다.
  - 지정사유: 민족 전래의 고유 오락이며 민요인 동시에 임진왜란과 관련시켜 민족적 자부와 긍지를 갖는데 유익하다(『문화재위원회 제2분과 9차 회의록』)
- 1966년 2월 21일 예능보유자 3명 지정 [해남: 김길임(金吉任 당시 38세)·김금자(金今子 당시 28세), 진도: 양홍도(梁紅道 당시 68세)] 1) 하였으나 이때는 문화재 지정만 했지 국가에서 특별한 자금지원이나 혜택이 없었음(진도 양홍도는 날품팔이나 옛장수로 생계 유지(『동아일보』 1970.02.21).
- 이후 김금자는 1971년 서울로 이거 사유로 문화재 지정 해제



< 1966년 여름 문화재 조사를 마치고 우수영초등학교 >

1) 양홍도의 출생지는 고군면 지막리이며, 본명은 양오단(梁五丹)으로 17세~ 기방에 있다가 48세에 일반 주부가 되어(북평면 영전리 한씨와 결혼하여 10여년간 해남 영전에서 살다가 군내면 정자리 270번지로 이거) 살았는데, 1968년 이후에는 신경통으로 거동이 불가하였다가 1971년 10월 26에는 사망하였다(당시 사망확인서 등). 사망일자로 알려진 7월 17일은 생일이다(『한국일보』; 『동아일보』 1971년 10월 29일자).



< 1966년 해남조사를 마치고 진도로 떠나기 직전 우수영선창  
임동권 교수(서라벌예대)와 일행 사진 (김금자 사진제공) >

#### ○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서울 전파

- 1967년 1월 김금자는 결혼 후 11월에 서울로 이거하여 1968년에는 전 서울  
우석대학교 무용과 학생을 지도하고, 1970년에는 서라벌대(현 중앙대) 예술  
대학 무용과 학생을 지도하여 서울의 무용전문가들에게 강강술래를 전파함.  
그 결과 국립국악단에서도 강강술래팀을 만들게 되었음. 이 팀들은 외교관을  
초청하여 공연하거나 해외공연하게 됨.
- 1970년 9월, 김금자 선생이 지도한 서라벌 女大生 강강술래가 ‘민족예술부문  
우수작품상’ 수상하고 공연(『동아일보』, 1970.09.29.)



< 1970년 서라벌예대 무용과 학생과 김금자 선생(김금자 사진제공) >

○ **해남우수영강강술래단의 공연을 위한 합숙과 영화제작 등**

- 1967년 10월 27~31일(5일) 30명 백색 옥양목으로 옷 만들어서 입고 우수영에서 합숙훈련을 하였는데, 문교부 문화재지방공연비 지원예산은 99,000원이 소요됨.(전남교문 1080~272 기안지 1968년 1월 22일, 강강술래 공연결과 보고, 수신 문교부장관)
- 1967년 12월 20일 광주 무양(현 비야)중학교 교장 최윤상은 강강술래무형문화재 추가지정을 신청(광주 교문 1080-2105)하였으나 문교부에서는 여자들의 놀이로 남자를 지정할 수 없다며 불허함.
- 내용: 군사적으로 명량전에 활용되던 의병전술, 최 교장이 어려서 했던 강강술래와 울돌목 인근에서 연구되던 것을 종합하여 만듦. 언급한 놀이는 남생이놀이, 고기썰이, 굴뚝기, 깨금쫓기, 기왓짚밟기, 덕석모리, 달문기, 도둑잡기, 다리건느기, 잠긴문 열기 등임.

- 1969년 3월 4일: 국립영화제작소는 충무공 비각에서 강강술래 촬영(전라남도 문공 1734-133 공문)
- 1969년 강강수월래가 건전한 여가를 위한 국민 표준오락 32종목(무용 6종)에 강강술래 선정(경향.1969.11.07.).

### 3. 대회용 해남우수영강강술래의 탄생과 전승활동

#### □ 1970년대 : 대회용 강강술래의 탄생과 전국대회 입상

##### ○ 해남 원무중심 놀이형 강강술래에 우수영 전승놀이를 첨가하여 대회용으로 각색

- 강강술래는 1961년, 1963년, 1964년, 1965년, 1966년에 연이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했으나 큰 상은 받지 못하였다. 1975년과 1976년에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면서부터 강강술래 놀이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 현재 시연되고 있는 강강술래(문화재 8호)로 1975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1972년 지춘상(1932~2009) 교수가 기왕의 해남 김길임제 강강술래에다 7개 놀이를 보태어 전국민속대회용으로 각색하였으며, 여기에서 진도출신 박병천 선생은 장단실기지도 역할을 하였다(우수영 이인자, 정순엽 증언).
- 당시 우수영초교에서 밤에 연습을 하였으며 담당자는 문내면사무소 부면장 김장수 씨가 담당했다. 그런데 지 교수가 일본에 가 있는 동안 박 씨가 강강술래를 지도하였는데, 진도 전래 연행 동작인 손치기, 발치기, 개구리타령 등을 가르쳤다.
- 지 교수가 귀국하자 우수영측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지 교수는 진도의 것을 보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우수영지역 전래놀이로만 구성을 하였다.<sup>2)</sup>

2) 제보자 박양애(예능보유자), 정순엽(전수조교)

- 경연대회는 입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식하고 과장하게 된다. 강강술래도 연출을 맡은 유능한 지도자에 의해서 참가 과장하여 화려하게 꾸며졌다. 원래의 원무에 덕석말이,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로 구성된 강강술래에 청애여기, 청애풀기, 지와밟기, 권취새끼놀이, 꼬리따기, 문지기놀이, 가마타기 같은 여성들이 하는 놀이를 모두 참여시켜 놀이의 종합체를 만들었다(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 ○ 전국민속경연대회 입상과 공연활동

- 전국규모 대회 전에는 3달간 집중하여 연습함(우수영 한영심, 이인자, 정순엽 증언)
- 1975년 서울 제16회 서울전국민속경연대회 국무총리상 수상(단원 105명, 상금 50만원) (『매일경제』, 1975.09.16).
- 1976년 9월 제17회 진주전국민속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 상금 100만원 (『동아일보』, 1976.10.26).
- 1976년 수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우수영강강술래 시범공연(『경향신문』, 1977.10.24).
- 1977년 광주 58회 전국체전의 식전행사에서 해남우수영강강술래 공연(250명) (『동아일보』, 1977.10.10).
- 1978년 춘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남우수영강강수월래 160명 시연 (『경향신문』 .1978.10.17.)
- 1980년 덕수궁 마당놀이 전통목(우수영 강강술래) 공연 (『매일신문』 .1980.05.09.)



< 1970년대 후반 서울 향우들의 강강술래(김금자 사진제공) >

#### 4. 진도군 강강술래 전승내력과 통합 전수교육

##### □ 진도군 강강술래 전승내력과 통합 전수교육으로 전환

##### ○ 1974년까지 양홍도제 강강술래의 방치와 단절

- 1967년 날품팔이하는 人間文化財 (『동아일보』, 1967.04.03.) “날품팔이하는 인간문화재 강강수월래의 주인공 양홍도여사.”
- 1967년: 保護의 손길이 아쉬운 無形文化財 고령 보유자 가면 전수할 길이 없어, 몇 부분만 겨우 명맥 유지, 지정만 한 채 방치. 강강수월래의 無形文化財 양홍도씨의 생활도 빈곤.(『동아일보』, 1967.11.02.)
- 1970년: 人間文化財의 保護傳承 “세상에 알려진 강강수월래의 양홍도 여사가 날품팔이를 하며 엿장수로 생계를 유지”(『동아일보』, 1970.02.21.).
- 1971년 10월 26일 진도 양홍도씨(고군면 지막리 본명 양오단) 사망(1971년 12월 문공고시 제 183호에 의하여 문화재 지정이 해제), 진도의 양홍도제강강술래는 전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멸하게 됨.

텍스트 보기  
스크랩 하기

# 날뚝팔이하는 『人間文化財』

## 『강강수월래』의 주인공 梁紅桃 여사



沃州文化祭에 나타난 梁紅桃 여사

【珍島】 독특한창법과 청아한목소리를 길어 추세에까지보존하기위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66년 2월 22일자) 『강강수월래』의 주인공 梁紅桃(69) 여사가 珍島郡內면 후구리 허술한 초가 2칸의 돌담집에

서 의지할곳없는 홀몸으로 날뚝팔보내고있는 사할이 만년술보내고있는 사실은 沃州문화제에서 아직도 노래를 불러 목소리로 齊香歌를 불러 섬사람들을 놀라게한다음에야알려졌다. ○: 珍島군古郡면芝蔴리에서 梁花中씨의 딸로 태어난 梁여사는 16세때 결혼했으나 실패, 그해바로 창극단「協律」에 9개월(기생학교)에서 9개월간 芳蔚·李花中仙·吳太石씨등과함께 48세까지 활약하다가 永田리에서 3년뒤 韓南에서 10년후에 高항

인 珍島에 내려와 홀로 쓸쓸히 살아왔다. ○: 술하에혈육이없는 梁여사는 하루밤에서 1백원짜리 새활보조자에게지급되는 52kg의 구호양곡(밀가루)으로 손수나 무물해서 살아가는 서러운 나날속에서 아직도 沈清(沈清)의 정열은 아직도 식지않아 김유멜로나 처녀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어 마을에서 『노래할머니』로 존경을받고있다. ○: 梁여사의특기는 『春香歌』·『沈清歌』·『興夫歌』·『강강수월래』·『興夫歌』·『강강수월래』 같은 제자가운데는 7순고개에 접어든 梁여사는 가난하고외로운 지금의생활은 아랑곳도 하지않고 요즘의창법이 옛날보다 많이변한것이 아쉽기만 하다며 서 『무척이조금이라 도더부슬기전에 옛것 그대로를 후세에까지 이어주고싶다』는것이 소망이라고. 馬三烈

< 양흥도씨(동아일보 1967년 4.3일 기사) >

### ○ 1975년 해남 김길임제 강강술래를 전수 받기 시작

- 1974년 진도문화원장 조담환은 진도민속놀이보존회를 창립하고, 1975년 해남에서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당시 설소리꾼인 김길임씨 등을 초빙하여 해남강강술래를 자택 이어서 진도 문화원에서 가르치게 하

였다. 그 결과 진도강강술래는 해남강강술래와 기본적인 구성이 똑같아 지고 말았다. 그런데 김길임씨는 가마타기만은 가르치지 않아 지금도 진도강강술래에는 가마타기가 없음.

- 1976년 6월 30일 최소심(崔小心, 진도군 군내면 둔전리) 예능보유자 인정
- 1977년 1월 22일 진도문화원에서 강강술래, 남도들노래 전수 장학생 발표회 (『동아일보』 1월 18일자 알림방)

○ 1980년대~ : 해남우수영강강술래를 진도 전수관에서 통합 전수교육

- 1980년 무렵~ 우수영강강술래를 진도문화원에서 1975년 대회용 김길임제를 공식적으로 전수 교육(진도: 김종심, 광순심, 김복자 해남: (박양애, 이인자), 한양심 10여명 전수 교육 『경향신문』 1983. 2.26)
- 1984년 진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진도군 성내리 소재)을 건립하였는데, 강강술래는 해남진도 통합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함.
- 1986년 강강술래보존회 문화공보부(현 문화관광체육부) 정식 인정
- 1991년 최소심(진도군 군내면 둔전리)의 사망으로 1993년 8월 박용순(둔전리 당시 55세) 지정 승계(『경향신문』 1993.08.03)
- 1992년 해남강강술래 보존회 별도 설립을 위한 건의서 문화재청에 제출
- 1999년 4월 2일 예능보유자 해남 김길임(1927~) 사망
- 2000년 박양애, 차영순(해남) 김종심, 박종숙(진도) 예능보유자 승계하여 예능보유자는 해남 2인에 진도 3인으로 역전 되었음.
-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
- 2015년 전수교육조교였던 해남 이인자는 전라남도 문화재인 부녀농요를 선택하면서 해남은 조교가 1인(정순엽)이 되었음. 반면 진도는 3인(박부덕, 김국자, 김복자)



< 2006년 명랑대첩제때 강강술래의 시연 >

## □ 전승내력에서 살펴본 통합 관리의 문제점

### ○ 강강술래 역사와 문화의 왜곡 초래

- 1970년대 버전의 해남우수영의 강강술래가 진도강강술래로 왜곡되어 인식하게 되고, 두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해남의 김길임씨는 진도 문화예술인으로 소개되기에 이르렀고, 1975년 국무총리상과 1976년 대통령상도 진도 강강술래팀에서 수상했다고 왜곡되고 있음.
- 1986년 해남 김길임을 진도 강강술래예능보유자로 소개(『동아일보』 1986.3.6)
- 진도 강강술래팀에서 연행되고 있는 현재 문화재 8호 강강술래는 1970년대 우수영 전승놀이만으로 구성한 지춘상 교수 버전의 강강술래이나 이를 진도의 예능인들은 양홍도제로 왜곡하고, 양홍도제를 전승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

- 학술적으로도 이를 왜곡하여 인정하기에 이르렀음(각종 백과사전 ; 이진영, 2013, 「진도 강강술래의 노래 연구」 -양홍도와 김종심의 노래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강술래 해남 진도지역 연행방식의 비교 >

순서	75년이후 버전 문화재 강강술래	해남 강강술래	진도 강강술래	
1	중강강술래(입장)	○	○	
2	인사	○	○	
3	긴강강술래	○	○	
4	중강강술래	○	○	
5	자진강강술래	○	○	
6	남생이놀이	○	○	
7	청어여기	○	○	
8	청어풀기	○	○	
9	고사리꺾기	○	○	
10	덕석물기	○	○	
11	덕석풀기	○	○	
12	기와밟기	○	○	
13	문열기	○	○	
14	천쥐새끼 놀이	○	○	
15	긴강강술래(퇴장인사)	○	○	
16	자진강강술래(퇴장)	○	술래소리 퇴장	
17		가마타기	개구리타령	
18			발갈기	
19			손치기	
20			발치기	
21			바늘귀뛰기	
		17종	21종	

○ 전승자에 나타난 해남 진도의 불균형과 부당한 처우

- 1966년 예능보유자 지정할 당시에 해남 2명(김길임, 김금자): 진도 1명(양

홍도)이었으나 현재 전승자 교육시스템에서는 해남1팀: 진도 2팀이라는<sup>3)</sup> 논리로 그 전승사업에서도 1:2의 비율을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해남 진도 강강술래 전승자 명단 비교(2013년 현재) >

구분	해남		진도			
	보유자	보유기간		보유기간		
해제 예능보유자	김길임(' 27~' 99)	' 66~' 99	양홍도 ( ' 00~' 71.10.26)	66~71		
	김금자(' 38~ )	' 66~' 71	최소심(' 08~' 93)	' 76.6.30~' 93		
현 예능보유자	박양애	2000~	군내면 박용순	1993~		
	차영순	2000~	진도읍 김종심	2000~		
			진도읍 박종숙	2000~		
	2명		3명			
전수조교	정순엽 이인자(2015년 해제)	2명	군내면	김국자, 박부덕,김복자	3명	
			진도읍			
이수자	최순화 추양님, 강순임, 이흥순, 김정례, 이순이, 박영자, 문경숙	8명	군내면	김옥이, 박연심, 박오심, 채영심, 조옥이, 함영순, 박순자, 이순덕, 이재심, 김인순, 김경열, 오경자,	10	20 명
			진도읍	이원자, 조미화, 김경숙, 양안심, 문문자, 고미경, 이진영, 김순복, 권민옥, 양순애	10	

※ 위 표에 예시된 전승자들은 외부 공연을 할 때 동원되기도 한다. 그 구체적 인원은 해남 13명 : 진도26(읍팀 13, 군내팀 13)명으로 합 39명이다. 이 외에도 문화재 8호 강강술래의 모든 전승사업은 해남 1: 진도 2의 비율로 전개 되고 있음. 또 전수관의 운영은 진도군청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수관장과, 사무국장을 진도 출신이 맡고 있음.

3) 진도군에는 초기에 진도읍팀, 군내팀, 임회면 석교팀 등 세 팀이 있었으나 석교팀은 해체되었다(나승만, 2004, 『강강술래-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국립문화재연구소, 48쪽).

※ 해남은 해남우수영강강술래전수관에서 별도로 교육한 이수자가 20여 명이 더 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 해남·진도 강강술래 전승내력의 결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닦은 해남강강술래, 1970년대 초반까지 방치하다 무임·편승한 진도군, 해남강강술래는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더부살이한 결과 강강술래 역사·문화가 왜곡되고 전승사업의 불균형과 부당처우까지 초래, 이는 해남 진도 간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

- 일제시기에는 기사화 하는 것조차도 탄압을 받았다. 해방되어서는 극일의 분위기속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받았다.
-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우수영에서는 1950년대 후반 강강술래단을 만들어 목포와 광주 등에서 공연활동을 하였다. 이때 설소리를 하였던 사람 중 김금자는 수피아여고에 진학하여 우수영강강술래를 광주에 전파하고 2회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 및 해군사관학교 등 각처로 공연을 다녔다.
- 1963년 김금자는 해남에 내려와 해남군청에 근무하게 되면서 다시 우수영에는 강강술래단이 구성되어 전남대표로 수차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출전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67년에는 서울로 이거하여 대학교 무용과 학생들과 향우, 광명시민 등에게 우수영강강술래를 보급시켰다.
- 문화재 지정은 1964년 조사, 1965년 문화재지정에 이어 1966년에 해남의 김길임, 김금자와 진도의 양홍도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다가 1971년 해남 김금자는 서울 이거로, 진도군 양홍도는 사망으로 해제되었다.
- 1972년 무렵 지춘상 교수는 원무중심의 기왕의 강강술래에 7가지 놀이를 첨가하고 인원을 증대하여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1975년 국무총리상, 다음해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양홍도의 사망으로 진도 강강술래의 맥이 끊기자 1975년 진도문화원장 조담환은 해남 김길임을 초빙하여 자택, 진도문화원 등에서 해남 강강술래를 교육시켰고, 이어 해남 박양애는 진도의 마을에다 강강술래를 가르쳤다. 이를 진도에서는 양홍도제로 주장하고 학술적으로도 왜곡되기에 이르렀다.
- 진도강강술래는 가마타기만 없는 해남강강술래에다가 진도 지역 전래 놀이를 보태어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또 둔전리와 진도읍에 두 팀이 있다는 것을 전거로 예능보유자 3명인 반면에 해남은 2명으로, 이외의 조교, 이수자 전수생은 해남1:진도2의 비율로 배정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 1986년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진도무형문화재전수관에 소속되면서 해남우수영의 강강술래가 진도강강술래로 소개되었으며, 심지어 김길임은 조선일보 제공자료에 진도 민속놀이진흥회 강강술래회장으로 소개되어 진도예술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 진도군청에서 관할하고 진도출신들에 의하여 관리된 결과 전승사업의 불균형과 부당한 처우가 초래 되었으며, 해남의 강강술래가 양홍도제의 진도강강술래로 둔갑되었다. 이런 학술적으로도 왜곡에 이어 진도출신 예능보유자들은 소멸된 양홍도제를 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진도군 소재 전수관에서 해남까지 통합관리하면서 강강술래 전승사업의 불균형과 부당한 처우는 강강술래 역사와 문화적인의 왜곡 등과 어우러져 해남 진도 지역간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갈등 원인은 결국 그릇된 문화행정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 Ⅲ.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 및 상생 발전 방안

#### 1. 통합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분리’의 필요성

1966년에 강강술래가 제8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해남과 진도가 상생의 발전을 못하고 있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는 서로 다른 전승권인데도 하나로 묶어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개성이 사장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수활동의 불균형과 지역 간 갈등을 낳고 있다.

행정적으로 강강술래는 진도군청 문화관광과에서 ‘통합 관리’ 하고 있으며, 진도에 관할 사무소를 두고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관장과 사무국장도 진도 출신이 맡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해남 강강술래는 자체적인 전수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인 전수활동은 모두 진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강강술래의 전승활동은 해남 1: 진도 2의 비율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팀이 외부 공연에 나갈 경우 연희자의 인원 구성을 보면 해남 13명 : 진도 26명 (읍팀 13, 군내팀 13)명으로 전체 39명이다. 해남이 1/3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도 불균형을 보인다.

지역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해남 우수영	2명(박양애, 차영순)	1명(정순엽)	8명
진도	군내면	1명(박용순)	10명
	진도읍	2명(김종심, 박종숙)	10명

< 2017년 강강술래의 전승자 현황(진도의 팀 구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님) >

보유자 숫자는 해남 2명:진도3명이다. 문화재 지정 당시 해남 2명(김길임, 김금자):진도 1명(양홍도)이었던 것을 떠올리면 역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해남도 2명이었으나 이인자가 2015년에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부녀농요’ 보유자가 되면서 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수자 숫자는 해남 8명: 진도 20명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언제부터인가 진도의 경우 2개 팀(진도읍·군내면)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도 그렇고 그 후로도 진도 내 강강술래팀이 몇 개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지만 지금은 은연중에 그렇게 굳어져 있다. 그래서 각종 전수교육 활동시에 진도는 해남의 2배 몫을 배정받고 있다.

자료를 통해 전승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구분, 성명	기예능	선정년월일	지역
(보유자) 김길임 박용순	창 창	66.2.15 93.8.2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군내면
(보유자 후보) 박양애 김종심	창 창	84.12.1 94.4.1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진도읍
(조교) 김국자 박부덕 박종숙	창 창 창	90.10.10 85.7.1 90.10.10	진도군 군내면 진도군 진도읍 진도군 진도읍
(전수교육보조자) 차영순	창	96.7.1	해남군 문내면
(이수자) 곽순심 이인자 김복자 정순엽 빅윤자 김남례 강영단 박춘자 서영엽 최순화 이원자 추양임	창(선두) 창 놀이꾼 " " " " " " " " " "	80.12.31 82.5.31 83.7.1 86.2.28 86.4.1 91.7.1 92.6.30 96.6.30 " " " "	진도군 진도읍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진도읍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군내면 해남군 문내면 군도군 군내면 진도군 군내면 해남군 문내면 해남군 문내면 진도군 진도읍 해남군 문내면

< 강강술래 전승자 현황(1996.7.5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에서 열람한 전승자 현황(1996년)을 보면 해남/진도 간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정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진도 쪽으로 비중이 넘어간 것을 볼 수 있다. 위 표에서 ‘보유자’ 와 ‘보유자 후보’, ‘조교’ 와 ‘전수교육보조자’ 라는 구분이 있으나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로 묶어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해남과 진도 두 지역 간의 현황을 보면, 보유자2명:2명, 전수교육조교 1명:3명, 이수자 6명:6명이다.

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전승자 현황과 그 경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1966		1996		2017	
	해남	진도	해남	진도	해남	진도
보유자	2	1	2	2	2	3
조교			1	3	1	3
이수자			6	6	8	20

< 강강술래 전승자 현황 추이 >

강강술래가 통합 관리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다. 20여년 전부터 그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수교육조교를 중심으로 진도의 비중이 높아지다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두 지역 간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전수활동에서 해남1:진도2의 비율이 지속되면서 해남 강강술래의 전수교육이 위축된 실정이다. 숫자뿐만 아니라 지원 규모나 활동 자체가 한정돼 있으므로 전승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새로운 전승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남과 진도의 비율을 1:1로 조정한다고 할지라도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안을 진도 쪽에서 만족스럽게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가 상생하는 길은 별도의 전승활동을 보장해주는 데 있을 것이다.

## 2.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 및 상생을 위한 학술적 검토

### 1) 상생을 위한 독자적인 전승환경 구축

- (1) 해남·진도는 별개의 전승권이므로 원상회복 시켜서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강강술래가 1966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때 본래의 전승권역과 무관하게 진행이 되었다. 강강술래는 마을 단위 또는 복수의 마을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에 해남 우수영과 진도 사람들이 함께 강강술래를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당시 지정조사를 실시했던 임동권 교수의 보고서를 보더라도 해남 우수영과 진도를 함께 지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다. 최근 임동권 교수가 1965년 무렵 우수영에서 강강술래를 조사한 사진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언급된 정황을 보더라도 두 지역 강강술래가 한 묶음이라고 보기 어렵다.



< 해남 우수영의 강강술래 전승자.  
김금자(좌)와 김길임(우) >

이 사진은 우수영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진도에 가서 진도의 강강술래 인간문화재를 지칭하러 가는데, 그때 같이 갔지. 진도가 배에서 찍은 것이로구나. 이때는 우수영서 진도 한번 건너 가려면 큰일이었어. 직선으로 못가잖아. 한참 올라갔다 다시 내려 가야 하니, 한참 걸렸지.<sup>4)</sup>

당시 찍은 사진에 대한 설명이다. 당시 조사원들은 우수영에서 강강술래를 녹음하고 우수영 사람과 동행해서 진도에서 민요 녹음을 했다. 위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조사원들과 동행했던 김금자 씨다. 임동권은 배 위에서 촬영한 김금자의 사진을 보면서 우수영과 진도 간의 ‘거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우수영서 진도 한번 건너 가려면 큰일이었”다고 하면서 직선으로 갈 수 없어서 한참이나 걸렸다고 말한다. 우수영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지역은 그리 멀지 않지만 명절에 자유롭게 오가며 일상적인 놀이를 할 만큼 사정이 여의치는 않았다. 각기 강강술래를 활발하게 했으므로 굳이 서로 오가며 강강술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해남과 진도는 별개의 강강술래 전승권이었던 것이다.

문화재 지정 당시 녹음자료를 남긴 이들은 임석재, 임동권 등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민요에 있었다. 이들은 진도에서 양홍도에게 관심을 보였다. 양홍도는 조선 말기 관기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창 능력이 뛰어났던 것으로 전한다.

‘홍도야 울지마라’ 하는 홍도야. 노래를 그렇게 잘해. 앵무 할머니도 조선 말기에 제주에 제주목사가 부임하면 가서 노래를 하는 관기였어. 앵무 할머니는 그때 기회가 없었는데 양홍도 할머니는 그때 강강술래를 문화재로 지칭하면서 소리꾼으로 지칭을 했지. 이 영홍도 할머니와 앵무 할머니가 내가 만난 체보자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 내가 조사해서 처음 문화재로 지칭한 것이 또 이 강

4) 『월산 사진으로 민속을 말하다01』, 국립민속박물관, p.85.

강강술래거든. 둘 다 조천 말기에 관기였었어. 어렸을 적 고을에 신입사또가 부임 하면 가서 노래를 부르고 했다고 그래.<sup>5)</sup>

관기 출신의 뛰어난 소리꾼 양흥도를 각별하게 주목했음을 보여준다.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두 지역 강강술래를 함께 지정하게 된 것은 양흥도의 존재를 특별하게 대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서 양흥도(68), 김길임(38), 김금자(28)가 1966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의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문화재 지정 당시 소리를 잘 하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했다. 그런데 해남 우수영과 진도 사람들은 강강술래를 같이 하지 않았다. 김길임과 김금자는 같은 우수영 사람이니까 강강술래를 공유할 수 있었지만, 양흥도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당시는 이런 점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질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강술래는 개인 종목이 아니고 단체종목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고유의 개성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우수영과 진도는 종목 이름이 같지만 세부적인 놀이 종류가 다르고 음악도 다르다. 전반의 전승맥락이나 환경 역시 다르다. 그런데도 소수 소리꾼 중심으로 한 묶음으로 묶어 버리면서 개성이 사장돼 버렸다. 본래의 전승단위를 회복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개성을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 전승공동체·지역사회·지자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전승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원활한 계승을 위해서 전승공동체와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강강술래의 경우 지자체가 다른 두 지역 무형유산을 한 데 묶어놓은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남·진도 강강술래는 관련 지자체가 다르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다르지만, 그것이 무시되다보니 독자적인 전수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의 공식 보존단체는, 진도읍에 자리한 무형문화재전수관 내 ‘제8호 강강술래보존회’다. 해남의 경우, ‘(사)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부녀농요진흥보존회’가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는 단체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공식적인 전수교육 활동을 진도에 가서 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행정 업무를 해남군청을 통해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도군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5) 『월산 사진으로 민속을 말하다01』, 국립민속박물관, p.86.

해남 강강술래의 경우, 독자적인 전승활동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를 ‘분리’ 시켜서 각각 전승공동체·지역사회·지자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전승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의 상생을 위한 개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강강술래의 개성과 다양성 보호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구성뿐만 아니라 놀이방식과 음악이 다르다. 하지만 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각각의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버전으로 취급받고 있다. 그 대신 두 지역 공통분모 중심의 ‘문화재팀 강강술래’가 생기고 그것이 공식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통과 권위는 무시되고, 있지도 않은 가공의 형태가 주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제라도 두 지역 강강술래가 개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전승활동 기반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비교와 지역별 차이에 대해서는 3-4장(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비교와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요점을 간추려 설명하고자 한다.

### (1)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놀이 구성 차이

구분	구성
해남 강강술래	긴강강, 중강강, 자진강강,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덕석물가풀기, 청어엮기풀기, 기와밟기, 대문열기, 꼬리따기, 왼쥐새끼, 가마타기, 술래
진도 강강술래	긴강강, 중강강, 자진강강,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덕석물가풀기, 청어엮기풀기, 기와밟기, 대문열기, 꼬리따기, 문쥐새끼, 개고리, 손치기, 바늘귀, 술래

#### < 놀이 구성 비교 >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10여개 이상의 개별 놀이들로 구성돼 있다. 해남 우수영에는 진도에 없는 <가마타기>가 있다. 가마꾼들의 권마성소리를 흉내 낸 소리로 실제 친구를 태워주는 놀이이다. 반대로 해남에 없으나 진도에 있는 부수놀이는 <개고리타령>, <바늘귀뛰기>, <손치기발치기>, <밭갈이>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 놀이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해남 강강술래가 대외적으로 먼저 알려

지고 진도는 나중에 소개되었다. 해남의 경우 1960년대부터 자료가 수집되었지만 진도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강강술래가 처음 외부에 알려질 때에는 원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중반에 해남 강강술래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을 수상할 무렵부터 현재처럼 10여개 이상의 놀이로 확대되었다. 이런 변화와 더불어 우수영에는 변화 이전과 이후의 복수 버전이 전승된다. ‘김금자제’, ‘김길임제’가 그것이다. 김금자제는 원무 중심의 강강술래에 〈남생아놀아라〉, 〈고사리뿌기〉, 〈떡석몰이·풀기〉가 포함된 것이고, 김길임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된 현행의 강강술래다. 김금자제는 1950~60년대에 우수영 강강술래를 주도하던 김금자 씨가 우수영을 떠나 광명으로 이주한 뒤에 수도권에서 전승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도의 경우, 처음 외부에 소개될 때에는 김길임제와 유사한 구성을 갖춘 최소심 버전이 조사되었으나, 1990년대에 소개된 조공례 버전 이후 훨씬 풍부한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조공례는 강강술래 전승계보와 공식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워낙 다양한 민요를 알고 있고 강강술래도 다채롭고 짜임새있게 연행하고 있어서, 그의 버전은 현행 강강술래 전승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현 예능보유자인 진도 김종심은 여기에 더해 자신이 어린 시절 해봤던 〈강아지타령〉, 〈옥단추〉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본 대로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강강술래는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그 결과 해남이나 진도에 모두 복수의 버전이 전승되고 있다. 해남의 경우 김금자·김길임 버전이 있고, 진도의 경우 최소심·조공례·김종심 버전 등이 있어서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무형문화재 전승과 무관하다. 무형문화재 보존회에서는 해남과 진도의 공통분모를 조합해서 만든 ‘문화재팀’ 강강술래를 공연을 하고 있고, 전수교육에서도 그것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해남과 진도가 서로 다르고, 각기 개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개성과 다양성을 새롭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현 체제를 바꾸고 각각 독자적으로 전수할 수 있도록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 (2)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놀이방식과 음악적 차이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하나하나의 놀이방식이나 음악에서도 다른 점들이 있다. 비슷한 이름의 놀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남생아 놀아라〉

해남의 〈남생아 놀아라〉는 ‘나무생아 놀아라/ 절래절래 잘논다’의 두 장단을 반

복하는 형태이며, 진도의 <남생아 놀아라>는 ‘익사 적사’ 부터 남생아와 관련없는 노래가 붙어있는 형태이다. 진도에서는 <남생아 놀아라>에 바로 이어 <개고리타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남에는 <개고리타령>이 없으므로 남생아를 논 이후에 <고사리썩기>나 <청어엮기>로 연결된다.

### <고사리썩기>

<고사리썩기>는 해남의 경우 ‘고사리대사리~아장장장 벌이여’와 ‘깡자깡자~반찬하세’의 두 선율형이 4장단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진도는 ‘깡자깡자~산이나 넘자’의 한 가지 선율형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덕석물기·풀기>

덕석물기와 풀기의 경우 해남은 1장단의 ‘물자물자 덕석물자’와 ‘풀자풀자 덕석물자’의 선율을 반복하하는 데 비해, 진도는 ‘비야비야 오지마라 딸밭에 장구친다’와 같은 여러 가사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확대시켜 놓았다.

### <지와밧기>

<지와밧기>의 경우 해남에는 느린 소리와 자진 소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진도는 한 가지 유형만 있다.

### <권쥐새끼>

해남에서는 ‘권쥐새끼’, 진도에서는 ‘문쥐새끼’라고 부르고 있다. ‘권쥐새끼’를 잡은 이후에 부르는 노래에서도 선율 진행에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는 구체적인 놀이 방식이나 음악에서 다른 점들이 있다. 하지만 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에서는 이런 차이들이 존중되지 않는다. 해남·진도 어느 지역 것도 아닌 무개성의 평범한 강강술래를 가르치고 있다. 두 지역 강강술래가 각각의 개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해갈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전승활동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 3.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와 상생 방안

#### 1) 전승종목 번호를 분리해서 별개로 보호하는 방안

국가무형문화재 중에서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① 비슷한 성격의 종목들을 연번으로 구분해서 보호하고 있는 사례

국가무형문화재 중에서 비슷한 성격의 문화재를 연번으로 구분해서 지정한 사례가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 (晉州三千浦農樂)	1966.06.29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삼천포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11-2호	평택농악 (平澤農樂)	1985.12.01	경기도 평택시	평택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11-3호	이리농악 (裡里農樂)	1985.12.01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11-4호	강릉농악 (江陵農樂)	1985.12.01	강원도 강릉시	강릉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 (任實筆峰農樂)	1988.08.01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필봉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11-6호	구례잔수농악 (求禮潺水農樂)	2010.10.2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잔수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	동해안별신굿 (東海岸別神굿)	1985.02.01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해안별신굿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	서해안배연신굿및대동굿 (西海岸배연신굿및大同굿)	1985.02.01	인천광역시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 (蟬島띠뱃놀이)	1985.02.01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띠뱃놀이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南海岸別神굿)	1987.07.01	경상남도 통영시	남해안별신굿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3-1호	구례향제줄풍류 (求禮鄉制줄風流)	1985.09.01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3-2호	이리향제줄풍류 (裡里鄉制줄風流)	1985.09.01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향제줄풍류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固城農謠)	1985.12.0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농요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84-2호	예천통명농요 (醴泉通明農謠)	1985.12.0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통명농요보존회

< 비슷한 성격의 무형문화재를 연번으로 구분해서 지정한 경우 >

위의 목록은 연번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이 멀고 각각 별개이므로 전혀 다른 종목들이다. 종목마다의 특성을 인정해서 독자적인 전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② 인접 지역 비슷한 종목이나 별도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사례

비슷한 성격의 인접 지역 무형문화재지만 각각을 별개로 보호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固城五廣大)	1964.12.2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오광대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통영오광대 (統營五廣大)	1964.12.24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오광대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 (駕山五廣大)	1980.11.17	경상남도 사천시	가산오광대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東萊野遊)	1967.12.21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야류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수영야류 (水營野遊)	1971.02.24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야류보존회

< 인접 지역 비슷한 종목이나 별도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

오광대와 야유는 경상도에서 전승되는 가면극이다. 인접 지역에 자리하고 있지만 별개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같은 시기(1964년)에 지정된 고성오광대와 통영오광대는 인접 지역 유사 종목이지만 둘을 통합하지 않고 각각 6호와 7호로 구분해서 지정했다.

정리 : 비슷한 성격의 무형문화재를 연번으로 구분한 경우와 별도로 구분한 경우처럼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도 별개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지역별 개성이 있고 전승맥락이나 배경이 다른 까닭에 분리해서 지정하고 보호해야 맞다. 또한 놀이 구성 및 놀이방식과 음악 등에서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개성을 살리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서 전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해남과 진도는 인접 지역이지만 서로 다른 강강술래를 전승하고 있다. 1964년에 지정된 고성오광대(제6호)와 통영오광대(제7호)의 사례처럼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를 각각 따로 지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가 거리상 멀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두 지역 사람들이 추석에 함께 모

여 강강술래를 같이 하지 않았다. 문화재 지정 당시 인위적으로 한 데 묶은 것일 뿐이며 서로 다른 전승맥락을 갖고 있다. 두 지역 간 강강술래의 놀이 구성도 다르고 음악도 같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승번호를 구분해서 두 지역 강강술래가 각각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복수 보유단체 구성을 통해 전승활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안

현행 법률상 복수의 보유단체가 인정되므로 그것에 근거해서 복수의 보유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 제2조(정의)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에서 보유단체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4장 17조 ③에서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복수의 보유단체를 인정한다는 말이다.

이 조항에 기초해서 제8호 강강술래의 보유단체를 복수로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의 보유단체를 각기 따로 두고서 전승활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보유단체의 법인화와 연동되는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 ‘본부/지부’ 개념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회를 두고 각기 개별적인 전승활동을 보장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법인 정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해서 전승활동의 독자성을 확보해야 한다.

**\*\*종합 정리 :**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본래 전승단위가 다르고 놀이 구성이나 방법 그리고 음악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그 개성과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전승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통합 관리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이므로 각각을 분리시키고 전승번호를 따로 부여해서 전승활동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4.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비교와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

### 1) 놀이 구성의 변화와 차이

강강술래는 한국의 대표적인 놀이 노래로서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가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또한 초등 음악교과서에도 다수 수록되어 있고 전국의 축제 현장에서 애용되는 대중놀이로써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강강술래 문화재 지정은 한편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만들어진 민속과 전승된 민속의 역전, 대표 전승에 대한 집중과 일반 전승에 대한 무관심, 탈맥락화와 예능 일변도의 전승<sup>6)</sup> 등 강강술래 본연의 공동체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다. 특히 지역적 다양성의 문제는 비단 비문화재 유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로 지정된 해남과 진도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 애초에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가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을 묶어 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해남 강강술래와 진도 강강술래 이외에 문화재 강강술래<sup>7)</sup>라는 새로운 공연물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강강술래의 역사에 대해서는 몇 편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운선은 <은파유필>과 같은 기록부터 최근의 경향까지 살펴 강강술래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 바<sup>8)</sup> 있다. 또한 근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옥희가 신문기사를 통해 재구성한 바<sup>9)</sup> 있다. 그런가 하면 음악학에서는 최소심과 김종심의 노래를 비교하여 변화 양상을 찾으려는 시도<sup>10)</sup>도 있었다.

위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도 강강술래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살펴본 바 있으나 이 글에서는 문화재 지정 전후의 음악적 변화와 해남 및 진도의 차별성, 또 전승자의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 등을 음악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려 한다. 즉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 또는 문화재팀 내에서의 강강술래 전승과 변화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향후 강강술래의 전승의 바른 길을 찾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강강술래가 어떻게 전승되어야 할 것인지, 그 해답을 찾는데 조금이나

6) 이경엽,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韓國民俗學』 第40輯, 2004, 293-332쪽., 이경엽, 「단절 위기 공동체놀이의 전승현황과 계승 방향-강강술래를 중심으로」, 『韓國民俗學』49, 한국민속학회, 2009, 299-332쪽.

7) 현재 해남팀이나 진도팀이 각각 공연을 할 때에는 각자 자기 지역의 강강술래를 뛰고, 함께 합동으로 공연할 때에는 문화재 강강술래를 뛰는다고 한다.

8) 이운선,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 구성에 관한 고찰」, 『韓國民俗學』 第40輯, 2004, 369-396쪽.

9) 이옥희, 「신문기사를 통해 본 강강술래 전승의 통시적 고찰-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조선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21집, 2010, 143-175쪽.

10) 이진영, 「진도 강강술래의 노래 연구- 양홍도와 김종심의 노래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악학』 13·14, 한국전통음악학회, 2013, 65-121쪽.

마 기여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강술래는 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앞서 민속예술경연대회에 몇 차례 출전한 일이 있다. 1958년 1회 대회와 1961년 2회 대회, 그리고 1964년 5회 대회, 1965년 6회<sup>11)</sup>에 연달아 전남 대표로 출전하였다. 기록에는 그저 <강강술래>라 되어 있으며 지역명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1961년과 1963년, 1965년의 출전팀은 해남 출신의 김금자가 이끄는 팀<sup>12)</sup>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영상이 국립영상제작소에 남아 있다.

또 1966년 임석재와 임동권이 전남 지역을 현지 조사하여 남긴 음원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CD로 출판<sup>13)</sup>한 바 있다. 이 음반에는 진도의 양홍도가 혼자 부른 강강술래와 양홍도, 김정심, 강성옥 등이 함께 노래한 강강술래, 해남의 김길임과 김동심이 부른 강강술래와 김금자 일행이 부른 강강술래 등 네 가지 버전의 강강술래가 담겨있다.

이외에도 1967년 문교부 제작 동영상과 1969년 국립영상제작소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들도 초기 강강술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문화재 지정 이전의 강강술래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 지정 이후의 자료로는 1975년 지춘상에 의해 녹음된 자료들이 있다. 당시 해남강강술래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다시 출전하게 되었으며 지춘상교수가 연출을 맡았으므로 녹음을 새로이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녹음된 자료는 『전남의 민요』<sup>14)</sup>에 수록되었고, 『전남의 민속음악』<sup>15)</sup>에서 악보화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민속예술축제50년사』<sup>16)</sup>에 출전 작품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다. 이후 1979년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진도편 작업 역시 지춘상이 담당하였으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가 여러 곳에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의 자료는 1990년대가 되어야 만들어진다. 『한국민요대전-전라남도편』<sup>17)</sup>이 대표적이다. 이 자료에는 진도의 조공례가 부른 강강술래와 해남의 김길임 일행의 강강술래가 녹음되어 있다. 이후에는 뿌리깊은나무 <해남강강술래>음반<sup>18)</sup>과 남도국악원 제작 DVD 등 다양한 자료들이 다종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

11) 65년 10월 29일 덕수관에서 열린 6회 전국민속예술경연에서 전남여고 학생들이 펼친 강강수월래. (동아. 1965.10.30.)

12) 김금자의 증언, 2016.

13) <전라도민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14) 지춘상, 『전남의 민요』, 전라남도, 1988.

15) 『한국의 민속음악-전라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16)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17) 『한국민요대전』-전라남도편-, MBC, 1993.

18) <해남강강술래>, 뿌리깊은나무, 1991.

이상의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를 수록한 음향자료와 동영상자료, 악보자료 가운데, 일부 중복되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별 수록 내용을 지역별·시대순으로 나열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 구성 비교 >

지역	악곡		조사시기	가창자	진강강 술래	중강강 술래	자진강 강술래	옥단초	남생이	강아지 타령	고사리	청어 엮기 , 풀기	덕석 몰기 , 풀기	덕석 펴기	지와 밧기	대문 열기	꼬리 따기	원취 새끼	수건 돌리기	개고리	손치기	바늘귀	가마 타기	발갈이	도곳대 당기기	술래		
	출처																											
해남	①문화재 연구소음반	1965(?)	김길임, 김동심	0		0																						
			김금자	0	0	0																						0
	②문교부제작	1966(?)	김금자 외	0	0	0			0		0		0															
	③국립영상 제작소	1969		0	0	0																						
	④전남의 민요	1975.9.13.	박양애 외	0	0	0			0		0	0	0		0	0	0	0						0			0	
	⑤한국의 민속음악	1975.9.13.	박양애 외	0	0	0			0		0	0	0		0	0	0	0						0			0	
	⑥50년사	1976	박양애 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⑦민요대전 (해남)	1990.1.19.	이하님	0		0					*	*				*			*	*								0
김길임, 박양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⑧뿌리깊은나무	1991	김길임 이인자, 박양애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도	①문화재 연구소음반	1965(?)	양홍도	0	0	0																						
			양홍도, 김정심, 강성욱	0		0																						
	②구비문학대계	1979	최소심	0	0	0			0		0	0			0	0	0											
	③민요대전(진도)	1990	조공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④국립남도국악원	2010	김종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문화재	문화재팀 공연실황	2011	문화재팀	0	0	0		0		0	0	0		0	0	0	0									0		

위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지정 이전 녹음된 자료들에는 강강술래에 부수놀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강강술래와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그리고 술래 등 주로 받는소리에 ‘강강술래’나 ‘술래’가 포함된 악곡들만을 녹음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한 작품에는 부수놀이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sup>19)</sup>된다. 1966년 영상자료에는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덕석물기의 세 가지 부수놀이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놀이 방식이 현재와 달라서 놀이의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 강강술래는 현재와 같이 여러 부수놀이가 연결되지 않았고 원무 중심의 놀이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던 강강술래에 현재와 같이 많은 부수놀이가 첨가된 것은 1975년 무렵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 때 전남대학교 지춘상은 진도의 박병천과 함께 강강술래를 연출하였다고<sup>20)</sup> 한다. 그리고 이후 출전한 1975년 제16회 민속예술경연대회(서울)에서 국무총리상을, 1976년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진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즉 강강술래는 본래 원무를 중심으로 놀이 하던 것이었으나, 나중에 대회 수상을 위해 다양한 부수놀이를 추가하여 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초기 자료에는 진강강-중강강-자진강강의 세 틀로 나누지 않고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의 두 틀을 사용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1965년 음원 가운데 해남의 김길임 일행이 부른 소리와 진도의 양홍도 일행이 부른 소리에 중강강술래가 따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특이한 것은 양홍도가 개별적으로 강강술래를 부른 음원에서는 삼분법이 적용되어 있는데, 받는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해주었을 때에는 이분법으로 노래하였다는 점이다. 강강술래의 삼분법은 전라남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으로 문화재팀에서 발견되는 특징<sup>21)</sup>이다. 따라서 강강술래를 삼분하게 된 것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그리고 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전통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부수놀이의 구성에서 차이들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진도지역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해남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수놀이로는 가마타기를 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진도 지역에는 해남에 없는 부수놀이들이 더 많이 발견된다. 그러나 진도 자료 가운데 최소심에서는 특징적 부수놀이가 전혀 없고 조공례에게서 개고리타령, 손치기발치기, 바늘귀귀기, 김종심에게서는 이에 더해 강아지타령, 옥단추, 덕석퍼기가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김종심은 해남에만 전승되던 가마타기도 추가하여 전승하고 있다.

19) 당시의 신문평에는 강강술래가 지루하고 반복이 많다고 적고 있다(최상수, <민속예술경연을 보고>, 《경향신문》(5면), 1964.11.4.).

20)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한국민속학』40, 한국민속학회, 2004, 8~9쪽.

21) 김혜정, 「강강술래의 음악적 특징과 역동성의 원리」, 『권오성교수님 회갑기념논총』, 2000.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았을 때, 해남의 가마타기는 박양애와 김길임이 참여한 음원에서 확인되므로 특정 누군가에 의해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반면 진도는 새로운 부수놀이의 추가를 주도한 이들이 확인된다. 즉 상당수의 부수놀이가 조공례나 김종심이라는 특정 인물들에 의해 새로이 추가된 놀이들로 생각된다. 김종심에 의하면 이들 놀이들을 어린 시절 익혔던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역시 지역적 보편성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별 전승자들의 경험을 진도 문화재팀이 수용하여 표면으로 끌어내었다는 점이다. 조공례는 강강술래의 보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래함으로써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개고리타령, 손치기발치기, 바늘귀뛰기 등은 이미 강강술래의 공식 부수놀이처럼 정착하였고, 김종심은 이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김종심 또한 자신이 기억하는 또 다른 부수놀이인 강아지타령, 옥단추, 덕석펴기와 해남의 가마타기를 추가하여 넣었다. 이처럼 전승자들의 개별 보유 놀이들을 수용하여 적층적으로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진도의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강강술래는 놀이 구성에서 몇 번의 변화를 거쳤다. 자료를 개관해보면, 초기에는 진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와 술래 등의 기본 악곡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청어엮기와 고사리찍기 등 다양한 부수놀이를 추가한 상태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진도의 경우를 보면, 조공례와 김종심 등에 의해 그것이 더 확대되는 것을 보여준다. 부수놀이의 적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남과 진도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진도에는 보이지 않으나 해남에만 보이는 부수놀이가 가마타기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해남에 없으나 진도에 있는 놀이는 다수 발견되는데, 조공례와 김종심의 두 자료에서 모두 나타나는 부수놀이는 개고리타령, 바늘귀뛰기, 손치기발치기, 발갈이 등이며 김종심은 여기에 옥단초, 강아지타령, 덕석풀기의 세 가지 놀이를 추가하고 있다. 현 보유자이며 진도 강강술래팀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는 김종심이어서 그가 여러 버전의 강강술래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큰 영향력이 미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 2) 놀이방식과 음악적 차이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놀이방식과 음악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놀이가 많지만 다른 점이 적지 않다. 그것을 악곡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진도의 양홍도와 해남의 김금자는 3소박 6박자 진양조로 노래하고 있고 진도의 양홍도 일행이 부른 소리와 김길임 일행이 부른 소리는 3소박 4박자로 노래하고 있다. 진양조로 부른 양홍도와 김금자는 ‘강강’을 한 장단에, ‘술래’를 한 장단에 붙여 2장단을 메기고 2장단을 받는 형태로 노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3소박 4박자로 노래한 두 가지 자료는 1-2장단을 메기고 1장단을 받는 형태이다.

음원에서 양홍도는 진도의 기생으로 소개되고 있고, 함께 녹음한 악곡 가운데에는 육자배기와 개고리타령 등의 남도 잡가도 다수 발견된다. 위의 진강강술래 역시 매우 화려한 시김새를 섞어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김금자는 해남 출신이지만 강강술래를 잘하는 것으로 뽐혀 광주의 전남여고에 가서 강강술래를 지도하였던 인물로 좀 더 세련된 소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65년 김길임이 부른 자료에서는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의 두 가지 악곡만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진강강술래는 4박에 가까운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진강강술래가 널리 4박으로 노래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만이 판소리 내드름형에 가까운 확대형의 6박 붙임새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래되는 진강강술래의 붙임새는 아래와 같다.

4박 진강강술래	6박 진강강술래																																
<table border="1"> <tr> <td>강</td> <td>강</td> <td>술</td> <td>래</td> </tr> <tr> <td>달아</td> <td>달아</td> <td>밝은</td> <td>달아</td> </tr> </table>	강	강	술	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table border="1"> <tr> <td>강</td> <td></td> <td>강</td> <td></td> <td></td> <td></td> </tr> <tr> <td>술</td> <td></td> <td></td> <td></td> <td>래</td> <td></td> </tr> <tr> <td>달아</td> <td></td> <td>달</td> <td></td> <td>아</td> <td></td> </tr> <tr> <td>밝</td> <td>은</td> <td>달</td> <td></td> <td>아</td> <td></td> </tr> </table>	강		강				술				래		달아		달		아		밝	은	달		아	
강	강	술	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강		강																															
술				래																													
달아		달		아																													
밝	은	달		아																													

이와 같은 붙임새는 민요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는 형태이며 오히려 판소리에 자주 사용되는 붙임새이다. 1965년 진도에서 녹음된 자료 가운데 기생 출신인 양홍도가 부른 강강술래가 바로 위와 같은 붙임새로 노래하고 있다. 즉 애초에 해남과 진도의 진강강술래가 6박이 아니었으나 직업음악인이었던 양홍도와 같은 이에 의해 6박 진양조형 진강강술래로 변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양홍도와 김금자의 악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좀 더 6박에 가깝게 노래한 사람은 양홍도이며, 두 사람 공히 박자가 조금씩 불규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에도 3소박 6박자 진양조가 완벽하게 구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에 비해 3소박 4박자는 꽤 안정적으로 박자가 지켜지고 있다. 또한 전남의 강강술래 자료 전반에서 진양조형 진강강술래는 극히 드물고 모두 3소박 4박자형 진강강술래를 보편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확인<sup>23)</sup>된 바 있다. 따라서 해남과 진도 역시 본래 3소박 4박자의 진강강술래가 불렸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와 연계하여 진양조형 진강강술래를 불렀던 양홍도와 김금자의 자료에서는 중강강술래의 존재가 확인되며, 3소박 4박형 진강강술래를 불렀던 나머지 두 자료에서는 진강강술래 이후 바로 자진강강술래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진강강술래가 느린 6박이 되면서 자진강강술래와의 격차를 줄이고 더 촘촘한 구성을 하기 위해 중강강술래를 만들어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강강술래는 중중모리 속도의 4박인데 과거의 진강강술래와 박자구조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부르는 형태이다. 결과적으로 본래 4박자의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의 두 가지로 부르던 강강술래는 문화재 지정을 전후로 6박자 진양조 진강강술래와 중중모리형 4박자 중강강술래, 자진모리형 4박자 자진강강술래의 3가지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애초에 해남과 진도의 진강강술래는 4박자였으나 직업음악인이었던 양홍도와 같은 이에 의해 진양조형 진강강술래로 변화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1975년 자료부터 진도와 해남 공히 진강강술래-중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의 삼분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진강강술래는 3소박 6박의 진양조형으로 2장단 메기고 2장단 받는 형태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후로도 이 악곡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남의 자료 가운데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60년대 자료들에서는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로 양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조금 더 이후의 자료들은 진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로 삼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분이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진강강술래가 느린 6박이 되면서 자진강강술래와의 격차를 줄이고 더 촘촘한 구성을 하기 위해 중강강술래를 만들어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 중강강술래는 중중모리 정도의 4박인데 과거의 진강강술래와 박자구조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부르는 형태이다. 결과적으로 본래 4박의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의 두 가지로 부르던 강강술래는 문화재 지정을 전후로 6박 진양조 진강강술래와 중중모리형 4박 중강강술래, 자진모리형 4박 자진강강술래의 3가지로 구분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가마타기

가마타기는 해남 강강술래에만 있다. 가마타기는 예전 가마꾼들의 권마성소리를 흉내 낸 것으로 실제 손가마로 친구를 태워주는 놀이이다. 해남의 보유자인 박양애는 이 소리가 어린 소녀들이 시집가는 것을 흉내 내며 하던 독립적인 놀이이기도 했다고 증언한다. 따라서 매우 사실적으로 가마꾼소리를 흉내 낸 것이라 볼 수 있

23) 김혜정, 앞의 논문, 2000.

다. 때문에 선율이 분명하기보다는 말하듯이 부른다. ‘굵은 독은 넘어뜨리고 잔잔 독은 밝아가세’와 같은 표현도 가마꾼소리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표 가사이다.

## 가마타기

메기는소리	받는소리

( “가마타세” “자” “위” )

( “가마 띠세” “자” )

오동추여 달은 밝고

위위 에헤헤 에헤헤 어허허 허 어허허

위위

임의 생각 썰로 난다

위위 에헤헤 에헤헤 어허허 허 어허허

위위  
 굵은 독은 넘어 덮고  
 얇은 그렁께  
 잔잔독 밟아가게  
 얇은 그렁께  
 (“쉬어가게” “자” )

(3) 남생아 놀아라

해남-김길임(민요대전)	진도-조공례(민요대전)
나무생아 놀아라 즐래 즐래가 잘 논다 나무생아 놀아라 즐래 즐래가 잘 논다	남생아 놀아라 즐래즐래가 잘 논다 어 화색이 저색이 곡우 남생이 놀아라 익사 적사 소사리가 내론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철나무초야 내 젓가락 나무접시 구갱갱

M19-6 해남 강강술래-남생아 놀아라

창 : 김길임(여, 1927)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4도 아래

나 무 생 아 놀 아 라 즐 래 즐 래 가 잘 논 다  
 나 무 생 아 놀 아 라 즐 래 즐 래 가 잘 논 다

## M 16-3 진도 강강술래 1-남생아 놀아라

창 : 조공례(여, 1925)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독치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6도 아래

남 생 아 놀 아 라 출 래 출 래 가 잘 논 다

어 화 색 이 저 색 이 곡 우 남 생 놀 아 라

익 사 적 사 소 사 리 가 내 른 다

청 주 뜨 자 아 랑 주 뜨 자 철 나 무 초 야 내 젓 가 락

나 무 접 시 구 경 켕

해남의 남생아 놀아라는 ‘나무생아 놀아라/ 줄래줄래가 잘논다’의 두 장단을 반복하는 형태이며, 진도의 남생아 놀아라는 ‘익사 적사’부터 남생아와 관련없는 노래가 붙어있는 형태이다. 진도의 경우 다른 놀이노래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짐작된다. 진도에서는 남생아놀아라에 이어서 개고리타령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해남에는 개고리타령이 없으므로 이후에 고사리꺾기나 청어엮기가 나온다. 개고리타령은 남사당소리의 하나로서 나중에 차용되어 강강술래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래는 해남과 같은 형태의 노래였다가 나중에 복합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생아 놀아라의 놀이 방식도 여러 형태가 있다. 본래는 한 사람의 놀이꾼이 원 안으로 들어가 춤추는 형태였다. 1966년 동영상 자료를 보면, 원을 만든 놀이꾼들이 원 안을 바라보며 손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원 안에 놀이꾼이 들어가 춤추는 방식으로 놀았다. 이후의 공연에서는 원의 놀이꾼이 돌아가는 동시에 원 안의 놀이꾼도 춤을 추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조공례의 가사가 추가되면서 ‘익사 적사’ 부분에서 원을 오무렷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손을 마

주잡고 돌아가는 형식<sup>24)</sup>으로 놀고 있어서 가장 춤사위의 변화가 많은 놀이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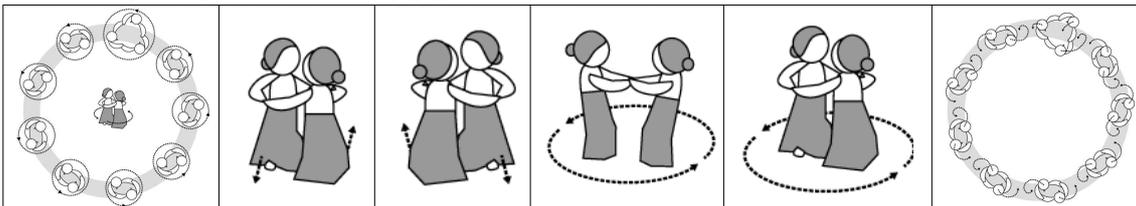
해남과 진도의 남생아 놀아라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하면, 해남은 ‘나무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의 가사를 놀이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며 음악도 큰 변화없이 반복되어 놀이를 하기에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진도는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의 가사를 노래하며, 여기에 ‘어화색이 저색이’로 시작하는 긴 가사를 붙여 노래하며 가사의 반복 가창이 없고, 음악 역시 9장단의 독립된 악구로 그 안에 이렇다할 반복적인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민요에서는 매우 독특한 사례여서 일반적이지 않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남	진도
나무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
동일 가사 무한반복	‘어화색이’ 이하 가사 추가
2장단 악구 무한 반복	반복성 없는 9장단 독립악구

#### (4) 고사리꺼기

해남-김길임(민요대전)	진도-조공례(민요대전)
꼬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유자 공공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꺾자 꺾자 꼬사리 대사리 꺾자 수양산 고사리 꺾꺼다가 우리 아배 반찬하세 꼬사리 대사리 꺾자 나무 대사리 꺾자 유자 공공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꺾자 꺾자 꼬사리 대사리 꺾자 지리산 꼬사리 꺾꺼다가 우리 어매 반찬하세	꺾자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꼬사리 꺾꺼 바구리 담고 아산이나 넘자 어디 났냐! 여기 났네! 꺾자 꺾자 망부 대사리 꺾자 송쿠 꺾꺼 옷짐 엮고 태산이나 넘자 꺾자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꼬사리 꺾꺼 바구리 담고 아산이나 넘자

24) 현재 진도 강강술래팀이 연행하는 남생아 놀아라의 놀이 모습은 다음과 같다(김혜정, 『달 떠온다 달 떠온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8호 강강술래』, 진도군, 2013).



# M19-6 해남 강강술래 -고사리깍기

창 : 김길임(여, 1927)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3도 아래

♩<sup>목></sup>

꼬 사 리 대 사 리 경 자 나 무 대 사 리 경 자

유 자 끽 끽 재 미 나 념 자 아 장 장 장 별 이 여

♩<sup>받></sup>

꼬 사 리 대 사 리 경 자 나 무 대 사 리 경 자

유 자 끽 끽 재 미 나 념 자 아 장 장 장 별 이 여

♩<sup>목></sup>

경 자 경 자 꼬 사 리 대 사 리 경 자

수 양 산 고 사 리 경 껴 다 가 우 리 아 배 반 찬 하 세

## M 16-3 진도 강강술래 1-고사리 꺾기

창 : 조공례 (여, 1925)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독치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6도 아래

경 자 경 자 고 사 리 대 사 리 경 자

고 사 리 경 꺼 바 구 리 담 고 아 산 이 나 념 자

어 디 났 냐 ! 여 기 났 네 !

경 자 경 자 망 부 대 사 리 경 자

송 쿠 경 꺼 웃 짐 었 고 태 산 이 나 념 자

경 자 경 자 고 사 리 대 사 리 경 자

고 사 리 경 꺼 바 구 리 담 고 아 산 이 나 념 자

고사리꺾기는 해남의 경우 ‘고사리대사리~아장장장 벌이여’와 ‘경자경자~반찬하세’의 두 선율형이 4장단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진도는 ‘경자경자~산이나 념자’의 한 가지 선율형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해남	진도
'고사리대사리~아장장장 벌이여' '깁자깁자~반찬하세'	'깁자깁자~산이나 넘자'
4장단 악구 * 2개 무한 반복	4장단 악구 * 1개 무한 반복

한편 고사리꺾기는 놀이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조사된 바 있다. 1966년 문교부제작 동영상을 보면 고사리꺾기는 앉아 있는 사람을 한 명씩 일으켜 세우는 현재와 방식과 달리 선 상태에서 진행되며 원을 깨고 선두가 무작위로 사람들 사이를 지남으로써 놀이꾼들을 분리시키는 형태<sup>25)</sup>로 놀고 있다. 음악뿐 아니라 놀이 방식도 변화<sup>26)</sup>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덕석몰기·덕석풀기

해남-김길임(민요대전)	진도-조공례(민요대전)
몰자 몰자 덕석 몰자 몰자 몰자 덕석 몰자 풀자 풀자 덕석 풀자 풀자 풀자 덕석 풀자	몰자 몰자 덕석 몰자 비운다 덕석 몰자 몰자 몰자 덕석 몰자 느린나리 갱개오리 비야 비야 오지 마라 딸밭에 장구친다 몰자 몰자 덕석 몰자 비운다 덕석 몰자 풀자 풀자 덕석 풀자 비갸다 덕석 풀자 풀자 풀자 덕석 풀자 뵤난다 덕석 풀자

## M19-6 해남 강강술래-덕석몰기

창 : 김길임(여, 1927)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3도 아래

몰 자 몰 자 덕 석 몰 자 몰 자 몰 자 덕 석 몰 자  
풀 자 풀 자 덕 석 풀 자 풀 자 풀 자 덕 석 풀 자

덕석몰기와 풀기의 경우 해남은 1장단의 ‘몰자몰자 덕석몰자’와 ‘풀자풀자 덕석풀자’의 선율을 반복하여 노래하는 데 비해, 진도는 ‘비야비야 오지마라 딸밭에 장구친다’와 같은 여러 가사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확대시켜 놓았다. 진도는 2장단이 하나의 악구를 형성하며 이때 앞 장단은 매번 같은 것이 반복되지만 뒷 장

25) 현재 진도 강강술래의 바늘귀뛰기나 진도 조도의 ‘굴러라 굴렁테’의 놀이방식과 유사하다.

26) 1966년 동영상에서 자진강강술래의 뛰는 방식이 두 가지 발견되는데, 현재는 한 가지만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a+b, a+b' , a+b'' 형과 같이 선율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남과 같이 단순한 1장단을 반복하는 경우가 남생아놀아라의 경우처럼 놀이를 하기에는 더 적절하다. 덕석물기와 풀기는 원을 달팽이처럼 감아들어 갔다가 다시 풀어 나오는 놀이여서 학생들이 이를 놀 때 어지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복잡한 노래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전남지역에서는 덕석물기와 풀기를 해남과 같이 노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진도의 경우가 특수하게 변화된 사례라 할 수 있다.

### M 16-3 진도 강강술래 1-덕석물기, 덕석풀기

창 : 조공례 (여, 1925)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독치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6도 아래

물 자 물 자 덕 석 물 자 비 온 다 덕 석 물 자  
 물 자 물 자 덕 석 물 자 느 진 나 리 갱 개 오 리  
 비 야 비 야 오 지 마 라 말 밭 에 장 구 친 다  
 물 자 물 자 덕 석 물 자 비 온 다 덕 석 물 자  
 풀 자 풀 자 덕 석 풀 자 비 겠 다 덕 석 풀 자  
 풀 자 풀 자 덕 석 풀 자 별 난 다 덕 석 풀 자  
 풀 자 풀 자 덕 석 풀 자 비 겠 다 덕 석 풀 자  
 풀 자 풀 자 덕 석 풀 자 별 난 다 덕 석 풀 자

(6) 기와밧기

해남-김길임(민요대전)	진도-조공례 (민요대전)	진도-김종심(문화재청, 진도군 개발 교재)
어딿골 지완가 장자골 지화세 어딿골 지완가 장자 장자골 지화세 “지와 볍세.” “자.” 어딿골 지환가 장자골 지화세 멧 닷냥 찻는가 시물 닷냥 찻네 어딿골 지환가 전라도 지화세 어딿골 지환가 장자골 지화세 멧닷냥 찻는가 시물닷냥 찻네 어디술 지환가 장자골 지화세	어딿골 지완가 장자 장자골 지와세	어딿골 지완가 장자 장자골지와세 어딿골 지완가 장자 장자골 지와세 지와 볍세! 자! 볍자 볍자 지와를 볍자 볍자 볍자 지와를 볍자 어딿 골 지완가 장자골 지와세 몇 닷냥 찻는가 스물 닷냥 찻네 어딿 골 지완가 옥주골 지와세 몇 닷냥 찻는가 스물 닷냥 찻네 어딿 골 지완가 전라도 지와세 몇 닷냥 찻는가 스물 닷냥 찻네 어딿 골 지완가 장자 장자골 지와세 어딿 골 지완가 / 장자 장자골 지와세

M19-6 해남 강강술래-기와밧기

창 : 김길임(여, 1927)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4도 아래

어 딿 곳 지 환 가 장 자 장 자 골 지 화 세

어 딿 골 지 환 가 장 자 장 자 골 지 화 세

♩ = 86 실음은 3도 아래

어 딿 골 지 환 가 장 자 골 지 화 세

멧 닷 냥 찻 는 가 시 물 닷 냥 찻 네

어 딿 골 지 환 가 전 라 도 지 화 세

# M 16-3 진도 강강술래 1-지와 밭기

창 : 조공례 (여, 1925)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독치  
 채보 : 김혜정

♩ = 120 실음은 6도 아래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in 4/4 time. Each staff begins with a treble clef and a 4/4 time signature. The melody is written in a single line on a five-line staff.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the notes. The first staff has a tempo marking '♩ = 120 실음은 6도 아래'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lyrics are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The second staff has a dynamic marking '<mf>' above the first note and '<mf>' above the eighth note. The lyrics are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The third staff has a dynamic marking '<mf>' above the first note and '<mf>' above the eighth note. The lyrics are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The fourth staff has a dynamic marking '<mf>' above the first note and '<mf>' above the eighth note. The lyrics are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The fifth staff has a dynamic marking '<mf>' above the first note and '<mf>' above the eighth note. The lyrics are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The score ends with a double bar line.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어 밧 골 지 완 가 장 자 장 자 골 지 와 세



지와밧기의 경우 해남에는 느린 소리와 자진 소리의 두 가지 지와밧기가 전승되는 데 비해 진도(조공례)의 음원에는 한 가지 유형만 있다. 물론 이후 김종심은 해남의 두 가지 버전의 지와밧기를 모두 수용하여 노래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새로운 선율을 추가하여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해남과 진도 조공례, 그리고 현 진도측 보유자인 김종심의 지와밧기를 비교하였다.

해남의 두 가지 지와밧기는 2소박×6, 3소박×4의 두 장단을 반복하는 형태와 2소박×6을 두 번 반복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조공례는 2소박×6, 3소박×4의 두 장단을 반복하는 형태만 노래하였다. 반면 김종심은 여기에 ‘솔라도레미’ 음계를 사용하는 선율과 3소박×4의 구조로 된 ‘뽕자 뽕자 지와를 뽕자’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이 부분은 남도음악의 특성과는 다른 것이고 지와뽕자의 특성과도 다른 것이다.

### (7) 꼬리따기

해남-김길임(민요대전)	진도-조공례(민요대전)
친쥐새끼 질룩 째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 새끼 질룩 째룩 가사리 벗이여 “꼬리 따세” “자” “위” 잡었네 잡었네 친쥐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멩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친쥐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멩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콩콩 전라도 친쥐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멩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문쥐새끼 질룩째룩 가사리 벗이요 문쥐새끼 질룩째룩 가사리 벗이요 매때기 따세! 매때기 따세! 휘이! 휘이! 휘이! 잡었네 잡었네 문쥐새끼를 잡었네 콩 한나 풀 한나 멩겼더니 오곡 백곡이 절시구 콩 콩 전라도 문쥐새끼를 잡었네 콩 한나 풀 한나 멩겼더니 오곡 백곡이 절시구

# M19-6 해남 강강술래 -진주새끼

창 : 김길임 (여, 1927)외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채보 : 김혜정

♩ = 110 실음은 4도 아래

<액>

진 주 새 끼 짚 룩 잘 룩 가 사 리 벗 이 여

발>

진 주 새 끼 짚 룩 잘 룩 가 사 리 벗 이 여

♩ = 80 실음은 4도 아래

덱>

잡 었 네 잡 었 네 진 주 새 끼 를 잡 었 네

공 한 나 풀 한 나 멍 겠 더 니 공 차 두 풀 차 두 되 었 네

덱>

공 공 전 라 도 진 주 새 끼 를 잡 었 네

공 한 나 풀 한 나 멍 겠 더 니 공 차 두 팔 차 두 되 었 네

## M 16-3 진도 강강술래 1-문쥐새끼

창 : 조공례 (여, 1925)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독치

채보 : 김혜정

♩ = 55 실음은 6도 아래

문 쥐 새 끼 짚 룩 잘 룩 가 사 리 벗 이 여

문 쥐 새 끼 짚 룩 잘 룩 가 사 리 벗 이 여

문 쥐 새 끼 짚 룩 잘 룩 가 사 리 벗 이 여

문 쥐 새 끼 짚 룩 잘 룩 가 사 리 벗 이 여

매 때 기 따 세! 매 때 기 따 세! 휘 이! 휘 이! 휘 이!

잡 었 네 잡 었 네 문 쥐 새 끼 를 잡 었 네

콩 하 나 풀 하 나 땃 겠 더 니 오 곡 백 곡 이 절 씨 구

콩 콩 전 라 도 문 쥐 새 끼 를 잡 었 네

콩 하 나 풀 하 나 땃 겠 더 니 오 곡 백 곡 이 절 씨 구

해남은 쥐새끼, 진도는 문쥐새끼라 부르고 있으며, 잡은 이후에 부르는 노래에서도 선율 진행에 차이가 난다. 해남은 ‘꼬리따세’라 외치고, 진도는 ‘메때기(메뚜기) 따세’라고 외친다. 긴 줄의 끝에 붙은 사람을 떼어 내는 놀이는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영광의 군사놀이, 담양의 외따기, 동아따기, 경북의 송아지따기 등 따야 하는 대상도 다양하다. 해남은 쥐새끼이고 꼬리를 따지만 진도는 문쥐새끼이고 메뚜기가 되는 것이다.

### 3) 해남 강강술래의 특징

이상에서 강강술래와 여러 부수놀이 악곡에 드러나는 해남과 진도의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 특이한 점은 해남의 강강술래와 달리 진도는 조공례에 의해 상당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조공례는 강강술래의 보유자가 아닌 남도들노래의 보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강술래 전승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들이 김종심에 의해 상당부분 전승 유지되었고, 김종심 스스로 추가한 부분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진도의 강강술래가 더 다채롭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강강술래가 초기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할 당시 강강술래는 다분히 해남 중심의 편성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75년 지춘상에 의해 현재와 같은 강강술래로 다시 재구성되었을 때에도 해남강강술래라는 이름으로 출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재구성된 강강술래가 박양애 등 해남의 가창자들에 의해 진도에 전수교육된 것<sup>27)</sup>이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강강술래 관련 자료들을 찾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도 강강술래에 대해서는 의외로 자료가 많지 않았다. 양흥도의 자료가 있긴 하지만 진강강술래와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이외에 어떤 부수놀이도 포함돼 있지 않다. 양흥도의 역할을 아무리 확대하여 해석한다고 하여도 6박형 진양조 사용과 잡가식의 시김새 사용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해남은 여전히 1975년도의 재구성된 강강술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해 진도는 오히려 자유롭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위축되어 있던 진도의 강강술래가 상황을 역전시킨 양상이다.

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해남은 본래 강강술래가 해남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에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초기 강강술래를 만들고 연행했던 장본인들로서 이를 오롯이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진도는 나중에 ‘문화재 강강술래’의 전승에 동참하게 되면서, 해남의 주도권 잡기와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본다. 즉 해남과 다른 점을 구축함으로써 정통성 논란이나 주도권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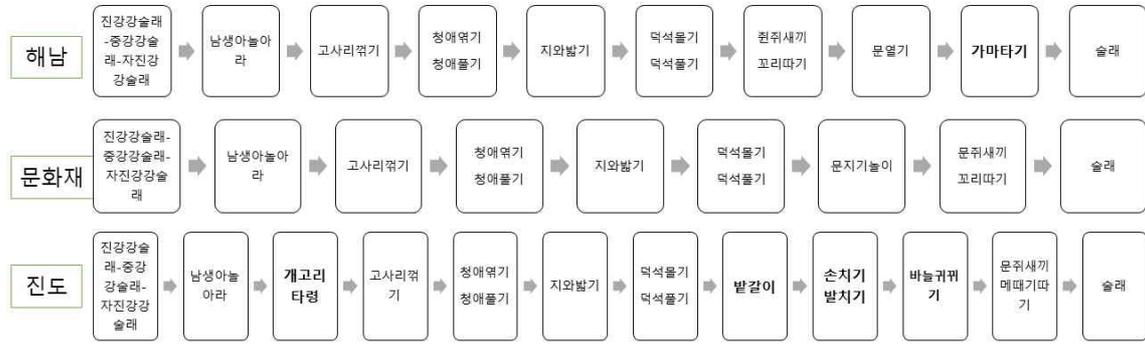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현재의 강강술래는 이렇다. 해남과 진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형문화재팀은 ‘문화재 강강술래’를 공연한다. 그리고 해남은 독자적으로 해남 강강술래를 연행하며, 진도는 진도 강강술래를 각자 연행한다. 두 지역은 서로 경쟁구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것을 유지하기도

27) 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 2012, 『해남우수영강강술래』 15~16쪽.

하였다. 두 지역의 차이점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해남 ⇒ 문화재팀 강강술래의 지역적 정체성은? ⇐ 진도**

해남과 진도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두 지역을 대표하는 김길임과 조공례의 사례를 들기로 한다. 그리고 문화재팀의 놀이 구성을 대비하기로 한다.



위에서 보듯이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전체 구성이 같지 않다. 굵은 글씨체가 각 지역에만 있는 악곡이다. 해남에는 진도에 없는 가마타기가 있고, 진도에는 해남에 없는 개고리타령, 발같이, 손치기발치기, 바늘귀 꾸기 등이 추가되어 있다. 이후 현재 진도 보유자인 김종심은 여기에 더해 덕석펴기, 강아지타령, 옥단추 등을 또 추가하고 있다. 그에 비해 문화재팀의 공연에서는 양 지역의 독특한 놀이들은 모두 제외한 상태로 놓고 있으며, 쥐잡는 놀이에서는 진도의 문쥐새끼와 해남의 꼬리따기가 묘하게 섞여 노래되고 있다. 즉 문화재팀의 강강술래는 해남의 것도 진도의 것도 아닌 주소 불명의 것이 되어 버렸다.

## 해남과 진도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해남	진도
남생아놀아라	나무생아, 줄래 2장단 악구 반복	남생아, 출래, 가사 추가 9장단 단일 악구
고사리꺾기	두 가지 가사 4장단 악구 * 2가지 반복	1가지 가사 4장단 악구 * 1가지 반복
지와밧기	2소박×6 + 3소박×4 2소박×6 × 2장단	2소박×6 + 3소박×4 2소박×6 × 2장단 가사 추가 술 선법 악구 추가
덕석물기, 덕석풀기	1장단 악구 반복	가사 추가 2장단 악구(a+b, a+b', a+b"형태 반복)
쥐쥐새끼, 꼬리따기	쥐쥐새끼, 꼬리따세	문쥐새끼, 매때기 따세

위의 표는 해남과 진도의 부수놀이 악곡 가운데 놀이 방식과 음악적 차이가 많은 악곡만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점을 정리한 것이다. 진도에서는 남생아놀아라, 지와 밧기, 덕석물기와 풀기의 세 놀이에서 가사를 추가하였고, 그에 따라 음악적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에 비해 해남은 민요의 보편적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남생아놀아라와 쥐쥐새끼, 꼬리따기류의 놀이에서는 아예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나무생아와 남생아, 쥐쥐새끼와 문쥐새끼, 꼬리따기와 매때기 따기 등 따는 행위를 할 대상이 다르다는 점은 이 지역이 동일 문화권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 통합 운영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마을마다 다르게 전승되는 것이 민속예술의 속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문화재 지정 시에 범광역적 지역기반으로 문화재를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일부 농악 종목들이 그러했고, 강강술래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진도와 해남은 크게 보아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강강술래와 같은 마을 단위의 민속은 큰 차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 것이다. 현재 진도에서는 강강술래의 보유자별로 각각 출신 지역의 팀을 독자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군내면팀, 진도읍팀과 같이 세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지역별 독자성을 인정하고 각각이 개성을 살려 전승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남과 진도는 우선적으로 팀을 나누고 각자 각 지역의 특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해남 강강술래의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과 활성화 방안

### 1. 해남 강강술래의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

강강술래는 다양한 버전이 있다. 지역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전승되며, 우수영 강강술래도 한 가지만 있지 않다. 아이들도 강강술래를 했고 청장년도 강강술래를 했다. 1960년대에 촬영된 영상을 통해 아이들 버전의 강강술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다른 버전들이 파생되는 경우가 있다. 우수영 강강술래의 경우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놀이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버전이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도자에 따른 버전들도 있다. 예를 들어 ‘김금자제’, ‘김길임제’가 그것이다.

해남 전체로 본다면 우수영 강강술래와 조금씩 다른 버전이 더 있을 수 있다. 본래 강강술래가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던 것이므로 다양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그 다양성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각 지역 강강술래의 자발적인 전승 환경이 약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강강술래의 여러 면모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다양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강강술래의 전승력이 약화되면서 지역별로 다른 버전을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 근래 우리가 보는 강강술래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있다. 그것도 매번 똑같은 형태로 공연 무대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세대간의 계승이 원활치 않아서 전승자들이 노령화되고 있다. 점점 위축되고 획일화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와 맥락을 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므로 강강술래의 버전을 풍부하게 확보한다면 교육과 재창조를 위한 ‘종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강강술래를 더 풍부하게 계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 우수영 강강술래의 다른 버전

1960년대에 촬영된 영상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강강술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은 10개 이상의 놀이들로 구성돼 있으나 영상에는 강강술래·떡석몰이·남생이놀이·고사리꺾기가 나온다. 이처럼 1966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강강술래는 원무 중심이었다. 지정당시 보고서에도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가진 노래만이 소개돼 있을 뿐 다른 놀이나 노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으로 볼 때 후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70년대 강강술래 자료들을 보면 강강술래 버전이 여러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이들의 강강술래와 어른들의 강강술래가 약간씩 다르다. 그리고 고사리껍기처럼 예전과 지금의 방식이 다른 것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음악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강강술래의 전체 구성은 경연대회에 특화된 형태로 재구성되면서 지금처럼 다채로운 구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1960년대 무형문화재 지정 당시, 원무 중심의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1966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 무형문화재 지정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남아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시에는 동시 녹음이 되지 않아서 녹화와 음향 녹음이 따로 이루어졌는데, 녹음자료의 경우 임석재·임동권 교수가 1966년에 녹음한 음향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영상은 서라벌예술대학(1972년에 중앙대학교에 인수)에서 기술 지원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972년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량은 30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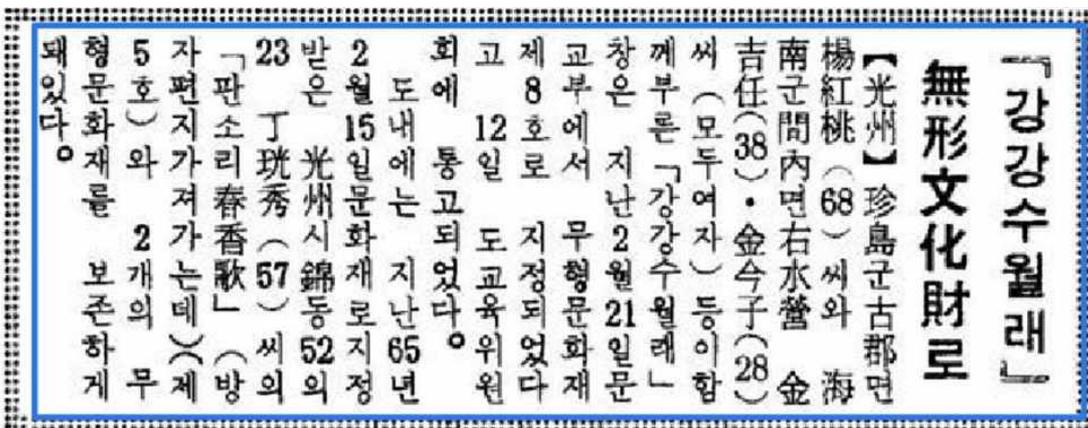
- 촬영시기 : 1960년대 중반으로 추정
- 타이틀 : 강강술래 무형문화재 제8호, 제작 문교부, 기술 서라벌예술대학
- 구성 : (밑줄은 자막 부분, 나머지는 글쓴이가 분절)

장면	시간
도입 나레이션	0:04~4:25
진양조	4:25~8:25
중머리	8:25 ~14:52
명석말이	14:53~16:48
남생이놀이	16:49~18:30
자진머리	18:30~19:16
고사리꿍기	19:17~19:52
술래야	19:53~20:20
손잡기(A,B), 발동작(A,B,C)	20:21~22:40
아이들의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22:47~23:04
남생이놀이	23:05~25:01

고사리꺾기	25:02~25:28
인간문화재 소개	25:29~27:37
양홍도, 김길임(제1계승자), 김금자(제2계승자)	
마무리 나레이션	27:38~28:47
끝	

위의 영상은 기록영상이므로 도입부에 해설과 나레이션이 들어있으며 간단한 타이틀 자막이 표시돼 있다. 진양조, 중머리, 자진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부정확하다. 중머리라고 했으나 실제 가락은 그와 다르고 굳이 따지자면 중중머리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빠르기에 따라 긴강강, 중강강, 자진강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영상에서는 장단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가진 원무 이외에 명석말이, 남생이놀이, ‘고사리꺾기’, 술래야가 더 촬영돼 있다. 중간 부분에서 손잡기와 발동작을 설명하고는 아이들의 강강술래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 색다르다. 말미에 인간문화재로 양홍도(68), 김길임(38), 김금자(28) 세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길임과 김금자를 언급할 때는 제1계승자-제2계승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양홍도는 진도 사람이다.

1960년대 영상은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강강술래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은 10개 이상의 놀이들로 구성돼 있으나 영상에는 강강술래·떡석물이·남생이놀이·고사리꺾기·술래야가 나온다. 이처럼 1966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강강술래는 원무 중심이었다. 지정당시 보고서에도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가진 노래만이 소개돼 있을 뿐 다른 놀이나 노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강강술래를 원무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강강술래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지정(1966.2.21) 《동아일보》 1966.3.14. >

(2) 1970년 중반에 다채롭게 재구성된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상황에 따라 가감되는 과정을 거쳤다.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원무 중심의 놀이였으나 197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다채롭게 재구성되었다.

시대	놀이 구성
1960년대 중반	긴강강, 중강강, 자진강강,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덕석물가풀기)
1970년대 중반	긴강강, 중강강, 자진강강, 남생아놀아라, 고사리꺾기, 덕석물가풀기 청어여가풀기, 기와밟기, 대문열기, 꼬리따기, 진쥐새끼,

강강술래의 놀이 구성에 변화가 나타난 것은 민속경연대회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1960년대 신문기사에서 그런 정황을 찾을 수 있다.

전남의 강강수월래는 인원구성, 의상 등이 잘 짜여 있어 좋았으나 흠은 그 놀이와 곡조 자체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시간이 길면 관중에게는 지루한 감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 시간을 축소하고 동작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똑같은 것은 반복 안하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28)</sup>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1960년대에는 강강술래의 놀이 종류가 제한돼 있고 반복적인 동작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곤 했다. 다시 말하면 원무 중심의 놀이여서 단조롭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평가를 의식해서 강강술래의 구성을 확대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1970년대 중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강강술래는 1961년, 1964년, 1965년, 1966년에 연이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갔으나 큰 상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5년 제16회 민속예술경연대회(서울)에서는 국무총리상을 받았으며, 1976년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진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무렵에 강강술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원무 중심으로 단출했던 놀이가 화려하고 다채로워지고 종합적인 여성 마당놀이를 만드는 놀이로 재구성된 것이다.

28) 최상수, 〈민속예술경연을 보고〉, 《경향신문》(5면), 1964.11.4





< 해남 강강수월래 대통령상 수상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6.10.22~24. 진주) >

지춘상 교수의 다음 발언에서 강강술래의 재구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강강술래는 손만 잡고 원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커녕 내 강강술래를 하는데 손만 잡고 원무만 해쳐야 어떻게 부인들이 커녕 내 밤새우면서 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커는 부수적인 놀이들을 이케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하나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75(76?)년도에 이케 <강강술래 놀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대통령상을 탔는데, 그때 신문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대대적으로 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는 ‘남생아놀아라’ 라든가, ‘청어엮자’ 라든가, ‘고사리꿍자’ 라든가, 또는 ‘쥐새끼 놀이’ 라든가 요새 열 두서 가지 놀이가 제가 처음으로 찾아내가지고 강강술래 속에다가 엮어 넣어가지고 안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새는 교과서처럼 되었습니다만.<sup>29)</sup>

지춘상 교수는 강강술래를 포함해서 우수영의 무형유산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다. 그의 발언에 나타나듯이 현전 강강술래의 구성은 1975,6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갖춰진 것이다. 기존 강강술래가 원무 중심의 밋밋한 구성이라는 평가를 의식해서 다채롭게 구성을

29) 지춘상, 「나와 남도민속학」, 『한국민속학』 40, 한국민속학회, 2004, 8~9쪽.

하고 안무를 해서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다는 과정이 언급돼 있다. 경연대회의 수상을 의식해서 연출을 했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과서처럼 자리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놀이 구성의 변화와 함께 놀이방식이 바뀌기도 했다. 놀이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고사리꺾기’를 들 수 있다. 1960년대 영상과 근래 진행되는 고사리꺾기 장면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놀이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의 고사리꺾기는 원을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한명씩 일어나면서 하는데 비해, 1960년대 영상에 등장하는 고사리꺾기는 서서 달려 다니면서 원무 사이를 끼어가는 방식으로 했다. 예전 방식이 훨씬 움직임이 많고 역동적이다. 이 방식은 지금은 완전히 잊혀져서 우수영 노인 중에도 기억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하지만 다른 지역(황산면 신정리)에서도 이렇게 고사리꺾기를 했던 것으로 보아 경연대회 나가기 전에는 오히려 보편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버전의 다양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2) 해남 군내 다른 버전의 강강술래

### (1) 황산면 신정리 강강술래

강강술래 예능보유자인 차영순 선생에 의하면 친정 동네인 황산면 신정리의 경우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석을 비롯한 주요 명절에 강강술래를 힘차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수영 강강술래와 다른 부분이 적잖아 관심을 모은다. 우선 〈고사리 꺾기〉와 〈바늘귀 꿰기〉를 하는 방식이 근래 공연되는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아지개 아지개 집짓어〉와 〈배 디로 가자〉라는 놀이는 기존에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다.

### 〈고사리 꺾기〉

〈고사리 꺾기〉는 지금처럼 등글게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하는 게 아니라, 뛰면서 원을 그리고 서 있는 대열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방식으로 했다. 1960년대에 우수영에서 촬영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내가 일곱 여덟 살부터 언니들을 따라 당기면서 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조금 커서 나도 그런 놀이를 하고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놀았어요. 내 어렸을 때는 언니랑 새댁들이랑 하고 노는 게 지금 우리 8호는 앉아서 하는데 옛날에는 언니들이랑 하고 노는데 보고 우리도 같이 하면서 발을 지금같이 강강술래 뽀박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달려다니 것처럼 뛰면서 “꺼억자 꺼억자 꼬사리 켅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이 사이 다니면서 꼬사리를 끌었어요. 어쨌든 금자 언니 하는데, 옛날에 우리 놀았던 것을 지금 하시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

### 〈바늘귀 꿰기〉

원무를 하면서 손을 잡고 뛰다가 〈바늘귀 꿰기〉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원 상태로 발 구르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앞잡이가 두 세 사람 사이 손 밑으로 꿰어 들어가면서 한다. “꺾자 꺾자 바늘귀 꺾자” 를 한다. 앞잡이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손을 어깨 높이로 든다. 〈바늘귀 꿰기〉 놀이도 〈고사리 꺾기〉와 유사하게 두 사람 세 사람 사이로 꿰어가면서 한다

등글게 원을 만들어 좁은 상태에서 선두가 앞잡이가 그 사이 사이를 다 쳐 있는데서 꺾자꺾자 바늘귀 꺾자 그렇게 뛰어서 한 것 같아요.

꺾자 꺾자 바늘귀 꺾자  
실 가는 데 바늘 가고  
바람 가는 데 구름 가고  
구름 간 데 범이 가고  
임 가는 데 나도 가고

### <아지개 아지개 집짓어>

놀이꾼들이 두 줄로 마주보고 서서 하는 놀이다. 예를 들어 30명이라면 열 다섯 명씩 늘어서서 서로의 어깨를 걸고서 마주보고서 이 놀이를 했다.

아지개 아지개 집 짓어  
경하산 절이나 짓자  
아지개 아지개 집 짓어  
경하산 절이나 짓자

한 편에서 “아지개 아지개 집 짓어”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상대방은 뒤로 물러서고, 이어 반대편에서 “경하산 절이나 짓자” 고 하면서 앞으로 밀고 오면 다른 편에서는 뒷걸음치는 식으로 했다. 마지막 집짓 ‘어’, 짓 ‘자’ 에서는 발을 크게 구르는 동작을 했다. 이 노랫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깨동무를 하고 두 줄로 마주 보고서 신나게 했던 놀이다. 이 놀이를 한참 하다가 다시 손잡고 돌면서 강강술래를 한다.

### <배 디로 가자>

큰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를 하다가 다섯 명 정도씩 손을 잡고 몸의 무게 중심을 뒤에 두고서 등지고 원을 그리며 ‘뒤로 넘어지며’ 노는 놀이다. “배 로 가자” 인지 “배 뒤로 가자” 인지 불분명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한참 돌다가 어지러워 현지증이 나면 그만 두고서 다시 원무를 그리며 강강술래를 한다.

예를 들어 20명이다 그러면 원을 그리고 놀다가 다섯 명씩 손을 딱 잡고는 4조로 나뉘켜. 뒤로 넘어켜. 등지고서 "경상도 배 뒤로 가자. 뒤~ “하고 돌다가 그 인원들이 어지러워쳐 못 돌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쳐 또 강강술래 했어. 클 때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놀았어요. 동네에쳐 그런 것 많이 하고 놀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놀았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배를 뒤자’ 는 말이 먼 말인가 모르것어요. 뭘 놀인지는 모른다. (그 배가 라는 벨까, 옷감 벨까요.) 뒤~하는 것 보니까 라는 벨 것 같애. 배 프러 가자, 배 타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소리가 “경상도 배 디로 가자. 뒤~~” 돌다가 한참 돌다가 이 팀은 어지러운 게 먼저 일어나고 쉼 팀은 조금 더 돌고 그래갖고 다시 손잡고 강강술래 하고

## 〈어디만큼 갔냐〉

등글게 원무를 하다가 〈어디만큼 갔냐〉를 하려면 손을 놓고 두세 명씩 나눠 앞 사람의 허리를 잡고서 발을 구르는 동작으로 자진 가락으로 된다. 진도 강강술래에서 볼 수 있는 〈밭갈이〉와 유사하다.

어디만큼 갔냐 / 당당 멀었다  
꼬랑 있냐 없냐 / 없다  
꼬랑 있냐 없냐 /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면치 서이씩 짝이 됐는가 몰라 그래갖고 그것을 논갈이 가세 밭갈이 가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당당 멀었다” 그랬어.

### (2) 송지면 서정리의 강강술래

송지면 서정리에서 정상엽(여, 87세), 원만행(여, 83세) 할머니 등을 만나 강강술래를 조사했다.(2017.1.4.) 현지조사에서는 원무 형태의 〈자진강강〉을 비롯해서 〈남생아놀아라〉, 〈기와뽀기〉, 〈고사리뿌기〉, 〈청어엮기·풀기〉, 〈덕석물기·풀기〉, 〈손치기 밭치기〉, 〈진쥐잡기〉, 〈가마타기〉 등 10여 종류의 놀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놀이 방식이나 종류를 보면 대체로 우수영 강강술래와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어엮기〉를 들 수 있다. 〈청어엮기〉는 송지면 서정리 강강술래의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서정리 사람들은 청어엮기를 할 때 군사놀이와 줄다리기하듯이 사람들을 잡아끌면서 놀았다고 한다.

칭 칭 청어엮자 / 우리군사가 칭애여  
어디골 칭애가 / 우리군사가 칭애여  
장자골 칭애네 / 우리군사가 칭애여  
올라오는 천애야 / 우리군사가 칭애여  
내려오는 동애(승어새끼)야 / 우리군사가 칭애여  
오동통통 굴러서 / 우리군사가 칭애여  
곡우리 마당 걸러라 / 우리군사가 칭애여  
칭 칭 칭애엮자 / 우리군사가 칭애여  
칭 칭 칭애엮자 / 우리군사가 칭애여  
그래갖고 우리 놀 때는 이렇게 막 잡아댕게 또. 쪽 잡아댕기믄치 어디 칭애여?  
그라믄 장жат골 칭애여 그라고. [어디 칭애야 그러면 장жат골 칭애야 그랬어요?]  
예. 잘 안 떨어지게 활라고 이놈 손 팍 잡으라고. 이렇게 잡고 하믄 막 손 떨어

지문은 얼른 잡으라고 소리 지르고, 떨어지문 인자 많이 떨어진 데가 이긴다고 그라고. 수 줌 쪼깐 떨어지문 지고 막. 이렇게 열이다 그라문은 다섯씩 다섯씩 사이가 딱 갈라야 할 것인디 커쪽사람이 이쪽으로 여섯 개 와브러. 그라문 커 사람들 쳐.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잡아당겨요 자기편으로?] 응. 청어쥬음스로 아까처럼 엮어갖고 손을. [아, 뒤로 잡아당겨요?] 예. 커기는 커렇게 잡아당기고 여기는 이렇게 잡아당기고. 손이 얼른 떨어진 것은 군사가 적어. 쳐. [앞에는 앞으로 가고, 뒤에 사람은 뒤로 가고?] 즈그 군사 찾을라고. 그라고 우리는 군사 찾을랑께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커 사람도 즈그 군사 찾을랑께 잡아당기고 그래 갖고 얼른 손 놓 사람이 지거든. 그래 갖고 웃고 그라께. 지문은 기운없는 것이 거가 가운데가 컷다 그라고.

키 큰 사람은 가운데 세워놓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가운데 세워요?] 얼른 안 떨어질라고. 이길라고. 줄다리기 하대끼. [그래 갖고 끊어진 다음에는 뭘 해요?]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가문 이쪽이 이기고, 커쪽으로 가면. [그럼 끊어 컷다고 컷다고 이겼다고 막 웃고.] 웃고 막 만세하고. 우리편이 많다고 좋다고. 인자 만세부르고 많이 떨어진데는. 그라고 쪼깐 떨어진데는 너쌔시 그랬다, 나쌔시 그랬다고 랏하고. 니가 손 났다, 니가 손 났다 그라고. 손을 안 놔야된디 못 이긴게 놔분겨. 인자 그렇게 하다가 또 풀라문 그렇게 엮어갖고 있는놈을 청청 애평자 우리군사가 청어쥬 그렇게 해 갖고 또 풀어라 그놈을. 그대로 돌문 풀어 쳐요. 손이 잡아쳐 갖고, 등거리다 잡아쳐 갖고 풀문은 기양 뺑 돔스로 풀어 쳐요.

서정리 할머니들은 <청어쥬기>를 하면서 어깨 위로 손을 걸쳐서 잡은 다음에 앞쪽과 뒤쪽으로 서로 잡아당기는 놀이를 했다고 한다. 그 광경에 대해 ‘즈그 군사 찾을랑께 줄다리기 하대끼 잡아당기면서’ 라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사람이 더 많은 쪽이 이긴 것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사람이 이쪽으로 많이 가문 이쪽이 이기고, 우리편이 많다고 좋다고. 인자 웃고 만세 부르고” 했다고 한다. 색다른 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설을 보면 청어 외에 바닷고기들이 등장한다는 점도 독특하다. 그 사설을 보면, 청어 외에 전어와 송어가 나온다. 그리고 “올라오는 전어야” “내려오는 동애(송어새끼)야” 라고 묘사하면서 그 고기들이 “오동통통 굴러서 곡우리 마당 걸러라” 라고 노래한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내용이다.

### 3) 강강술래의 다양성과 유동성에 대한 재인식

앞에서 본 대로 1960~70년대 강강술래 자료들을 보면 강강술래 버전이 여러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아이들의 강강술래와 어른들의 강강술래가 약간씩 다르다. 그리고 고사리꺾기처럼 예전과 지금의 방식이 다른 것도 있다. 세부적으로는 음악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강강술래의 전체 구성은 경연대회에 특화된 형태로 재구성되면서 지금처럼 다채로운 구성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영상과 이후 강강술래의 재구성 과정을 보면, 강강술래는 상황에 따라 가감되는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 다채롭게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강강술래란 어떤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감되기도 하고, 놀이방식이 똑같지 않고 버전이 여럿일 수 있다. 이런 점은 현재의 강강술래가 고정된 형태를 되풀이하고 있고 단일 버전으로 고착화돼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소위 ‘원형’ 이라고 하는 가상을 상정하고 그것만을 전수해야 한다는 원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판박이처럼 고정된 절차와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 원형주의는 유형문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무형유산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해왔다. 그래서 전승자들도 은연중에 ‘원형’ 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 최근 발효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문화재법)에서는 기존의 ‘원형’ 이란 말 대신에 ‘전형’ 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전형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성’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이 전형 역시 기존의 ‘원형’ 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정된 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 강강술래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형태로 전승될 수 있도록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대로 해남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우수영 강강술래 이외에 버전의 강강술래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우수영 강강술래만 하더라도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로 놀이 구성에 변화가 있었다. 강강술래가 다양성을 갖춘 유동적인 무형유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창조적인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확대해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원형주의에 빠져서 형식화하기보다는 주체와 버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무형유산이 공동체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는 매개물이 될 수 있고 살아있는 유산으로 재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해남 강강술래 진흥을 위한 교육 현황 분석과 활성화 방안

이 항에서는 해남 강강술래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 현황은 학교 교육과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을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 1) 학교교육과 강강술래

현재 강강술래는 학교 음악교육에서 매우 유용한 교수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초등학교의 3학년과 4학년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5학년과 6학년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현재 2009년 교육과정에 의거한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각 3·4학년에 7종, 5·6학년에 7종교과서가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강강술래와 부수놀이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현 초등 음악교과서의 강강술래 악곡과 교수학습 활동 >

학년	출판사	단원/제재명	지도 시 수	영역				형태 및 장단	주요 학습 활동
				가 창	기 악	창 작	감 상		
3·4 학년	천재 (오세균)	덕석물자	2	●				자진모리장단	• 자진모리장단의 한배에 맞추어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남생아 놀아라	2	●				자진모리장단	• 꺾는소리를 표현하며 놀이하면서 노래 부르기
		개고리 개골청	2	●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를 표현하며 노래 부르고, 노래에 맞추어 놀이하기
		강강술래	1	●				중중모리장단	• 떠는소리와 꺾는소리를 표현하며 네기고 받으며 노래 부르기
		자진강강술래	1	●		●		자진모리장단	• 장단의 한배에 맞추어 노래 부르고 메기는소리의 가사 바꾸기
		강강술래 놀이	2				●		• 강강술래를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지학사 (정길선)	남생아 놀아라	2	●		●		자진모리장단	• 꺾는소리를 살려 노래 부르며 놀이하기 (노랫말)
		손치기 발치기	2	●		●		장단 없음	• 말붙임새를 익혀 노래 부르고, 노랫말 바꾸기
		덕석물자	2	●				자진모리장단	• 주고받으며 노래 부르고 놀이하기
		고사리 꺾자	2	●	●	●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를 살려 노래하고, 장단꼴을 바꾸어 표현하기

학년	출판사	단원/제재명	지도 시 수	영역				형태 및 장단	주요 학습 활동	
				가 창	기 악	창 작	감 상			
		바늘귀 꿰기	2	●		●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를 살려 노래하고, 전통 오방색에 대해 알아보기	
		개고리 개골청	2	●		●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를 살려 노래를 부르고, 말장단 만들기	
		강강술래	2	●		●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 메기는소리의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고, 한배를 느끼며 부르기	
음악과 생활 (양종모)		개고리 개골청	2	●				자진모리장단	• 자진모리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 부르기	
		즐거운 놀이 강강술래	2				●		• 노래와 동작의 어울림을 생각하며 강강술래 감상하기	
비상 (주대창)		고사리 꺾자	1	●				자진모리장단	• 떠는소리와 흘러내리는 소리를 살려 민요 부르기	
		개고리 개골청	2	●		●		자진모리장단	• 꺾는소리를 살려 민요 부르기(말붙임새 만들기)	
		남생아 놀아라	2	●		●		자진모리장단	• 자진모리장단에 알맞게 장단꼴을 바꾸어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하기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2	●		●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 강강술래 놀이노래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기	
미래엔 (장기범)		덕석 몰자	2	●	●			자진모리장단	• 노래 부르며 놀이를 하고, 장구의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장단 연주하기	
		어디만큼 강가	2					자진모리장단	• 놀이요와 노동요를 듣고 부르며 노래의 쓰임새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강강술래 놀이마당	2	●		●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 음악과 관련된 설화를 알고 시김새를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두산 동아 (석문주)		대문 놀이	2	●				자진모리장단	• 장단의 세를 표현하며 노래 부르기	
		남생아 놀아라	2	●	●			자진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 신 나는 놀이를 하며 노래 외워 부르기	
		청어 엮자								
		꼬리따기	1	●					자진모리장단	• 한배를 이해하고, 한배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2	●			●	중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와 한배의 변화를 느끼며 노래 부르기	
교학사 (황병훈)	청어엮자 덕석몰자	3	●				자진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 메기고 받는 노래를 부르며, 악곡에 어울리는 놀이하기		

학년	출판사	단원/제재명	지도 시 수	영역				형태 및 장단	주요 학습 활동	
				가 창	기 악	창 작	감 상			
5·6 학년		남생아 놀아라	2	●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며, 악곡에 어울리는 놀이하기	
		개고리 개골청					자진모리장단			
		강강술래	2	●	●			중중모리장단	• 한배에 맞게 노래 부르기	
		자진강강술래					자진모리장단			
	강강술래 놀이	2				●		• 강강술래를 감상하고, 음악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비상 (주대창)	청어엮자	4	●		●			자진모리장단	• 노래에 어울리는 놀이하기(가사 바꾸기, 장단 바꾸기)
		덕석물자							자진모리장단	
		기와밧기							단모리장단	
		손치기 발치기							자진모리장단	
		꼬리따기							자진모리장단	
		바늘귀 꿰기							자진모리장단	
	미래엔 (장기범)	고사리 꺾자	4	●	●			자진모리장단	• 노래를 외워 부르며 놀이하기 - 남생아 놀아라, 청어엮자와 청어풀자, 문지기 문지기, 지와밧기 놀이와 노래	
두산 (석문주)	고사리 꺾자	2	●	●				자진모리장단	•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전래 놀이하기	
	덕석물자							자진모리장단		
교학사 (정길선)	개고리 개골청	1	●					자진모리장단	•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기	
	고사리 꺾자	2	●		●			자진모리장단	• 말붙임새를 바꾸고 악곡에 어울리는 놀이하기	

위의 표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교과서에서 강강술래를 중심으로 독립 단원을 구성하여 노래와 춤을 모두 배우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진강강술래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강강술래가 6개 교과서에서 등장하고 있다. 자진강강술래는 5개 교과서에 등장한다.

부수놀이 가운데 개고리개골청과 덕석물자가 각 6개 교과서에 등장하여 가장 많은 활용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제재곡으로 다루어진 부수놀이와 활용 횟수는 남생아놀아라 5회, 고사리꺾기가 4회, 청어엮자가 3회, 손치기 발치기 2회, 바늘귀 꿰기 2회, 꼬리따기 2회, 어디만큼 강가 1회, 기와밧기 1회, 대문 놀이 1회 등이다.

모두 13곡의 부수놀이가 제재곡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강술래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개고리개골청, 손치기 발치기, 바늘귀 꿰기, 어디만큼 강가 등은 모두 진도에서만 전승되는 악곡이며, 남생아놀아라 등

은 해남의 것이 아닌 진도 조공례가 부른 형태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고사리 꺾기는 해남의 것을 부르고 있는데, 이 곡의 경우에는 조공례 버전보다 해남의 것이 더 음악적 형식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비상 4학년		음악과 생활 4학년	
천재 4학년		미래엔 5학년	

조공례 버전을 선호하게 된 이유는 조공례의 강강술래가 음악적으로 조금 더 화려하고 형식이 복잡한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의 악보와 같이 남생아놀아라 뒷 부분에 '익사 적사...구갱갱'이 붙어서 바로 개고리 개골청과 붙여 부르기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악곡을 모두 조공례 버전으로 바꾸게 된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과거 6차와 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서는 해남 강강술래가 제재곡으로 다루어지던 것이 2007 교육과정부터 조공례의 강강술래로 대부분 바뀌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재는 대부분 진도의 강강술래로 편제가 바뀌어 있다.

한편 강강술래와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가창을 중심으로 놀이까지 이어지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일부 장단치기와 같은 기악활동과 가사 바꾸는 창작 활동, 강강술래를 감상하는 활동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2009 교육과정에는 이외에도 지역의 국악 문화재나 지역 축제 음악을 다루는 활동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강강술래는 가창곡으로 선호되는 양상 때문에 오히려 문화재로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서, 또는 지역의 축제 음악으로서 다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교과목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해남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져야 장기적인 전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남 관내 초등과 중고등 학교에서 이러한 강강술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몇몇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익혀서 강강술래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사례들이 있다. 학생들의 강강술래를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장려해야 하며, 이들의 활동이 이후 보존회 활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보존회 활동을 하고 이수자가 되는 길 이외에 강강술래 관련 교육 전문가로서의 활동 쪽으로도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강강술래를 교육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은 국립남도국악원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숙박시설을 갖고 있는 교육 연수 중심 운영 기관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국악 관련 콘텐츠를 배우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데, 강강술래는 그 가운데 매우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국립남도국악원의 강강술래 연수는 현재 진도의 보유자인 김종심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의 연수는 그 대상자 가운데 예비교사나 현 교육자(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한 큰 흐름에서 해남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 3) 교육 관련 활성화 방안

이상의 교육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교과서 강강술래 제재곡이 진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해남강강술래의 경우 교육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자료와 음향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악보자료 역시 공인된 기관에서 만들어진 악보집과 교육용 자료 개발을 거치지 않으면 교과서 제재곡을 선택되기 어렵다. 따라서 본격적인 교육 자료 개발을 해야 한다. 이는 공인된 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국립국악원이나 국립남도국악원과 같은 국립기관과 공조하여 작업하는 것이 긍정적 결과를 불러오기에 좋을 것이다.

둘째,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재 강강술래의 교육은 음악교과의 수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국악강사들의 창의적 체험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 개발과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개발을 하여 지도안 형태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과 국악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강술래 지도안을 공모하고 우수



2.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강강술래 보존회원으로서 자긍심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4. 행정기관(국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5. 강강술래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는?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6. 해남 / 진도를 통합 운영해온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편리	편리	보통	불편	매우 불편

7.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강강술래 전승단위(해남/진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분리해야 한다.                      ②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8. 강강술래의 발전을 위해 누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자치단체                              ②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의원)  
 ③ 강강술래 보존회원                ④ 지역민                              ⑤ 학계

9.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요.

조사 개관

- 때: 2017년 1월 17일(해남우수영강강술래보존회 총회)
- 장 소: 울돌목 강강술래 전수회관
- 조사 방법: 회원 중 무작위 선정
- 조사자: 이유리(현장 조사), 이은정(통계), 변남주(분석)

설문 대상자의 인적 현황

○ 거주 지역 분포

지역	문내	회원	황산	무응답	합
응답	31	11	6	2	50(여자)
%	62	22	12	4	100

- 강강술래 등록 회원은 전체 120여명( 문내 70여명, 회원25명, 황산23명) 중에서 무작위로 조사함.

○ 조사대상자 연령 분포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응답	0	0	3	27	20	50
%	0	0	6	54	40	100

- 조사대상자는 50대에 이어서 60대가 거의 대부분(94%)을 차지하고 40대가 극소수(6%)이다. 30대이하는 없는데, 이는 강강술래 회원의 노령화를 반영한 결과임.
- 2,30대의 젊은 회원의 확보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군 단위로 확대, 고등학교에 놀이형 강강술래 보급, 인근 대학과 연계 등)

○ 보존회 내 역할

구분	보유자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생	일반 회원	무응답	합
응답	1	0	14	2	17	16	50
%	2	0	24	4	34	32	100

- 전체 회원의 분포는 문화재 기능보유자 2명, 전수조교 1, 이수자 28(자체), 전수생 5, 일반회원 80여 명 중에서 무작위로 조사되었으며, 무응답은 일반회원으로 사료됨.

□ 설문 조사 내용과 분석

1. 강강술래의 활발한 전승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답 가능)

내용	① 전수교육 공간 확보	② 예산 지원 확대	③ 신규 보존회원 확보	④ 기타의견	무응답	합
응답	7	12+1	15+1	0	15	50

1명- 2,3 중복

- 첫 번째 신규회원 확보의 어려움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노령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두 번째로 강강술래 진흥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

하다고 응답함.

강강술래 활동은 대규모 집단놀이인 관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

2.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
응답	16	15	14	0	0	5	50
%	32	30	28	0	0	10	100

- 조사대상자의 대부분(62%)이 만족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에 불만족 이하는 0명으로 나타남. 강강술래 활동은 농어촌 여가선용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매우만족의 응답자 16명은 이수자 10명, 전수생 1명, 일반회원 3명, 무응답자 2명으로 구성됨. 여기에서 특이하게 전수교육을 받은 분(11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
- 무응답자 5명은 잠재적 불만자로 추정되는데, 문내거주자 2명과 회원면 거주자 3명으로 구성됨.

3. 강강술래 보존회원으로서 자긍심은?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
응답	20	20	9	0	0	1	50
%	40	40	18	0	0	2	100

- 만족이상의 회원이 대부분(80%)으로 나타남. 이는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지역 전통문화 전승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됨.
- 보통 응답자 9명의 거주지는 문내 8명, 회원 1명으로 구성됨.

4. 행정기관(국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
응답	8	6	22	7	1	6	50
%	16	12	44	14	2	12	100

- 예산지원은 보통을 기준으로 만족 대상자와 불만 대상자(무응답은 잠재적 불만자에 포함)가 거의 같게 나타났음.

5. 강강술래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도는?

구분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무응답	합
응답	13	13	15	5	0	4	50
%	26	26	30	10	0	8	100

- 지역민의 관심도는 대부분(52%) 많다고 생각하며, 소수 5명(10%)은 적다고 응답하였는데 문내면 거주자(2명)와 화원면(3명)이 응답함. 과거 강강술래 활동이 우수영(문내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반영한 결과로 보임.

6. 해남 / 진도를 통합 운영해온 것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 편리	편리	보통	불편	매우 불편	무응답	합
응답	0	1	5	21	16	7	50
%	0	2	10	42	32	14	100

- 통합운영에 대해서 절대적(74%)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나 편리하다는 견해 1명은 황산면 거주자가, 보통 5명(화원면 3, 문내 2)이 응답했고, 무응답은 7명(황산1, 문내 2, 화원4)임.
- 통합운영에 대한 소수자의 긍정적 또는 무응답은 문내면 외 지역 거주자가 대부분임.

7.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강강술래 전승단위(해남/진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분리해야	② 현 상태를 유지	무응답	합
응답	39	9	2	50
%	78	18	4	100

-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78%)임. 현 상태 유지9명(18%) 응답자의

- 거주지분포는 화원4, 문내1, 황산4이 응답함. 또 무응답 2명은 문내 거주자임.
- 현 상태 유지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은 문내 외 지역 거주자인데, 이러한 응답은 6항의 통합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상호 관련이 깊음.

8. 강강술래의 발전을 위해 누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① 자치단체	② 정치인(의원)	③ 강강술래 보존회원	④ 지역민	⑤ 학계	무응답	중복	합
인원	5+1	14+2	27+2	0	0	2	2	50(2)

(1명:1,2,3 1명 2, 3)

- 발전을 위한 관심은 보존회원(29명), 정치인(16), 자치단체(6)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지역민이나 학계의 관심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않음.
- 예산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은 자치단체(군수)나 정치인이 주지만 지역민이나 학계의 관심이 낮으면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의 관심도도 낮다는 것을 각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9.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친절했으면 함.
- 진도와 분리 시켜주세요(전체 4명).
- 진도와 꼭 분리 시켜주세요.
- 강강술래는 우수영입니다. 같은 명칭으로 진도와 분리 꼭 시켜주십시오. 간절한 50대 소망입니다.
- 관심을 주십시오.
- 우리 우수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 연령 상관없이 건강이 허락하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빠른 시일 내에 분리 바랍니다.



□ 설문 대상자의 인적 현황

○ 거주 지역 분포

지역	문내	합
응답	50	50(남 25, 여25)
%	100	

- 강강술래(문화재 8호)의 발상지인 문내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임.

○ 연령 분포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
응답	0	1	0	5	44	50
%	0	2	0	10	88	100

- 50대 이상이 절대다수(98%)로 이들은 강강술래가 활성화되는 1970년대 이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임.

○ 전통문화와 관련된 직업(취미생활)

구분	예	아니오	무응답	합
응답	5	39	6	50
%	10	78	12	100

- 전통문화와 관련된 자(5명)는 남자들소리 회원임.

□ 설문 조사 내용과 분석

1. 강강술래의 활발한 전승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 답 가능)

구분	① 전승학교 선정	② 일반인 대상 전수교육 확대	③ 예산 지원 확대	④ 기타의견	무응답	중복	합
응답	11+7	21+7	7+8	1	2	6	50

(1명-1,3, 1명-2,3, 6명-1,2,3)

- 일반인의 전수교육의 확대(28), 전승학교 선정(18명), 예산지원의 확대(15명) 순으로 응답하였음.
- 예산지원(15명)보다는 교육의 중요성(46명)을 지적함.
- 여기에서 교육은 먼저 문화재 전승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놀이로써 즐기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2. 지역민으로서 강강술래에 대한 자긍심은?

구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무응답	합
응답	20	20	9	0	0	1	50
응답	16	30	0	1	0	3	50
%	32	60	0	2	0	6	100

- 긍정적 관심도(높음 이상 92%)는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강강술래 회원들의 '회원으로서 자긍심'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높음 이상 80%)보다 높게 나타난 것임.
- 지역민의 높은 관심은 지역민의 놀이로써 강강술래 성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외부인을 위한 공연보다 지역민 놀이로 활성화가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판단함. 이를 통하여 강강술래 문화의 저변을 확대해야 함.

3. 평소 강강술래 공연에 대한 관심은?

구분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적음	매우 적음	무응답	합
응답	16	28	4	1	0	1	50
%	32	56	8	2	0	2	100

- 지역민의 강강술래 공연에 대한 관심은 많음 이상이 88%로 절대적으로 높음.
- 공연과 지역민이 강강술래를 놀이로 즐기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4. 강강술래 보존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무응답	합
회원	16	15	14	0	0	5	50
응답	6	26	15	3	0	0	50
%	12	52	30	6	0	0	100

- 강강술래보존회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가 64%이며, 보통은 30%, 부정적인 평가는 6%에 이릅니다. 이는 강강술래 회원들의 자체평가에서 긍정적인(매우 만족)부분은 적은 반면에 부정적인 평가는 다소 많음.
- 강강술래 향수층의 확산과 강강술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됨.

5. 해남/진도를 통합 운영해온 것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 편리	편리	보통	불편	매우 불편	무응답	합
회원	0	1	5	21	16	7	50
응답	0	0	9	32	9	0	50
%	0	0	18	64	18	0	100

- 통합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82%에 이르는데, 이는 회원들의 부정적인 평가 74%보다 높음. 이로 우수영지역민들은 강강술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강강술래 전승단위(해남/진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분리해야	② 현 상태를 유지	무응답	합
회원	39	9	2	50
응답	48	2	0	50
%	96	4	0	100

- 지역민의 분리 견해는 96%로 압도적인데, 이는 강강술래의 회원(78%)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지역민들이 더 강강술래의 발전을 위하여 분리가 절

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의 전체(지역민+회원)는 88%로 10명중 9명이 분리에 찬성함.

7. 강강술래의 발전을 위해 누구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분	① 자치단체	② 정치인 (의원)	③ 강강술래 보존회원	④ 지역민	⑤ 학계	무응답	중복	합
회원	5+1	14+3	27+3	0	0	1	3	50(3)
응답	28+7	3+7	8+7	4+7	0+7	0	7	50(7)

(중복자 7명은 모두 체크)

- 자치단체(35명), 강강술래 회원(15명), 지역민(11명), 정치인(10), 학계(7) 순으로 응답함.
- 회원들은 지역민과 학계 응답자가 없었으나 지역민들은 지역민과 학계의 노력(도움)도 필요하다고 응답함.

8. 강강술래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강강술래는 우수영단체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 지원확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해남군과 진도군을 분리해야 한다(전체 4명).
- 우수영강강술래가 먼저 문화재로 등록 및 대통령상을 먼저 받았으니 분리해야
- 강강술래부문에서 가, 나 등으로 하여 나누어 주었으면 합니다.
- 분리하여야 한다.
- 개방성.
- 적극 지원.
- 지역 놀이문화로 몸에 젖은 문화화 계승 발전되길.

## V. 사회적 확산을 위한 강강술래 자료의 수집과 집대성

### 1. 해남 강강술래 음향 및 영상 자료

- ① <전남민요>,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 ② 문교부(제작), 서라벌예대(기술), 1966.
- ③ 국립영상제작소(국가기록원), 1957, 1961, 1969.
- ④ 지춘상, 『전남의 민요』, 전라남도, 1988.
- ⑤ 『한국의 민속음악-전라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⑥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⑦ 뿌리깊은나무 조선소리선집14, <해남강강술래>, 1991.
- ⑧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편-, MBC, 1993.

출처	조사지역	조사시기	제보자	놀이 종류	자료유형
①문화재연구소 <전남민요>	7-4 해남군 문래면 동외리	1965 (?)	김길임(여, 38), 김동심(여, 40)	긴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가사, 음원, 악보
	7-5전남 해남군 문내면		김금자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술래	가사, 음원, 악보
②문교부 (제작), 서라벌예대 (기술)		1966 (?)	김금자 외	긴강강술래(4박), 중강강술래(중중모리), 자진강강술래, 덕석몰이, 남생아, 고사리(놀이방식)	동영상
③국립영상 제작소 (국가기록원)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1957, 1961, 1969	미확인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동영상
④전남의 민요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1975. 9.13.	박양애 외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꺾자, 청어엮자, 지와밧기, 덕석몰이, 천쥐새끼놀이, 꼬리따기, 문열어라, 가마등, 술래소리	가사, 부분악보
⑤한국의 민속음악	해남군 문래면 동외리	1975. 9.13.	박양애, 김길임, 이인자, 김순애, 김복심, 김순심	긴강강술래, 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기와밧기, 대문놀이, 덕석몰이, 천쥐새끼놀이, 가마타기, 꼬리따기, 가마등소리	가사, 악보
⑥한국민속 예술축제 50년사	17회 출전 해남강강술래	1976	박양애 외	늦은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잣은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 꺾자, 청어엮자, 청어풀기, 지와밧기, 덕석몰이, 덕석풀기, 천쥐새끼놀이, 문열어라, 가마등, 도굿대당기기	가사, 해설
⑦민요대전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도	1990. 1.19.	이하님	긴소리-자진소리-술래소리 *(진강강)-<자진강강>-<달맞이(지와밧기)>- <고사리꺾기>-<수건돌리기>-<청어엮기>-<문쥐새끼>	가사, 음원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1990. 1.16.	김길임, 박양애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남생아, 고사리, 청애, 기와, 덕석, 진주새끼, 대문, 가마, 술래	가사, 음원, 악보
⑧뿌리깊은 나무, <해남 강강술래>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1991	김길임 이인자, 박양애	중강강술래, 늦은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고사리꺾기, 청어엮기, 지와밧기, 덕석몰이, 천쥐새끼, 대문열기, 가마타기, 술래	가사, 음원

1. <전남민요> CD·해설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7-4.해남 강강술래

전남 해남군 문내면 강강술래 / 김길림(여, 38), 김동심(여, 40)

<진강강술래>

강가양수울래  
강가양수울래  
○○천이 오죽 미워  
강가양수울래  
임도 따라가네  
강가양수울래  
그님 따라 초마자락  
강가양수울래  
거듬거듬 휘어잡고  
강가양수울래  
말소리도 같은 말이  
강가양수울래  
밭밀에도 씻혀 영고  
강가양수울래  
○○같이 그리운 중을  
강가양수울래  
사람의 눈이로는  
강가양수울래  
차마 볼 수 천이없네  
강가양수울래

<자진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유우 동동 유가마야  
강강술래  
너만 동동 다취갖고

강강술래  
 글읽기를 스러말고<sup>30)</sup>  
 강강술래  
 매맞기를 싫어 마라  
 강강술래  
 화랑차고 명랑한데  
 강강술래  
 명자능에도 입난일세  
 강강술래  
 돈없어도 못시기고  
 강강술래  
 글못배도 못시기네  
 강강술래  
 처기가는 무명자들  
 강강술래  
 늦다고 한탄말고  
 강강술래  
 이께라도 배웁시다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우수영 청년들아  
 강강술래  
 낮놓고 기억자 못 쓴 청년  
 강강술래  
 연애 한번 못 봅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엮고도 유잘레라  
 강강술래  
 골죽어도 석룰레라  
 강강술래  
 놀러가세 놀러가세  
 강강술래  
 청애집이를 놀러가세

---

30) 싫어 말고.

강강술래  
정애는 간곳없고  
강강술래  
방우계 왕상님이  
강강술래  
나만 잡고 희롱한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달은 밝고 총각집에  
강강술래  
길은 멀고 청장집에  
강강술래  
누게다가 청장할까  
강강술래  
청장할이가 킴이없네  
강강술래  
오동추야 달은 밝아  
강강술래  
임의 생각이 간철이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팔월이라 한가위날  
강강술래  
높이 떴다 처달님은  
강강술래  
달만보고 소리친디  
강강술래  
우리 부모 어디가고  
강강술래  
날비칠줄 잊었는가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아욱떠서 맹근 땡기  
강강술래

말마다 눈일래라  
강강술래  
서울이라 오동칸에  
강강술래  
수수놀기가 난감하다  
강강술래  
꼬치 꼬치 누에꼬치  
강강술래  
비단놀기가 난감하다  
강강술래  
한울한울 떠다놓고  
강강술래  
한 모금을 묵고나니  
강강술래  
지와생이 울락하네  
강강술래  
두 모금을 먹고 나니  
강강술래  
아주 영영 가셨구나  
강강술래  
서울이라 도당성군  
강강술래  
마당 한칸 내려와서  
강강술래  
이방 처방 켜켜 놓고  
강강술래  
신부 방으로 들어가서  
강강술래  
다 못지은 흰근뎡기  
강강술래  
나만 하고 어디가나  
강강술래  
엄매 엄매 밥잔주게  
강강술래  
배고파서 못살겠네  
강강술래  
식기에는 밥을 담고

강강술래  
 양편에는 국을 뜨고  
 강강술래  
 밥태기는 팍팍하고  
 강강술래  
 우는 애기 느룩하고  
 강강술래  
 오동꿀랑도 몰랐다하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달아 밝아라 임경순가자  
 강강술래  
 양지야 붉어라 멋있거든  
 강강술래  
 바람은 손발이 있다해도  
 강강술래  
 가느란 봄은 못잡는다  
 강강술래  
 바람은 손발이 없다해도  
 강강술래  
 오마난 낭군을 ○○한들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구대 독신 독신 사랑  
 강강술래  
 진도맹키 허여갖고  
 강강술래  
 내로다가 죽었다네  
 강강술래  
 처승애를 들어가니  
 강강술래  
 왕님께서 하는 말이  
 강강술래  
 너는 어찌 여기왔냐  
 강강술래

췌가 와가 민망한 것이  
 강강술래  
 구대 독신뿐입니다  
 강강술래  
 그 옆에를 돌아보니  
 강강술래  
 조그만한 처녀하나  
 강강술래  
 ○○하야 엮겼구나  
 강강술래  
 왕님께서 하는말이  
 강강술래  
 너는 어째 여기왔냐  
 강강술래  
 처도 어찌 죄가 없소  
 강강술래  
 느그 들이 속히 나가  
 강강술래  
 천년언약 해로하께  
 강강술래  
 한낱한시 들오니라  
 강강술래  
 펄떡 깨어 일어나니  
 강강술래  
 백주박팔에다가  
 강강술래  
 도화문장 심낭자라  
 강강술래  
 그럴 것도 숙여놓고  
 강강술래  
 심낭자 팔에다가  
 강강술래  
 구대독신 녹진사랑  
 강강술래  
 글을 써서 종이에 넣고  
 강강술래  
 펄떡 깨어 일어나니

강강술래  
    취량한 울음소리  
강강술래  
    뉘 아니 눈물흘려  
강강술래  
    찾았구나 찾았구나  
강강술래  
    심낭자를 찾았구나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해설〉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로 이분된다. 진강강술래-중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의 3분구조 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이다. 진강강술래가 6박이 아닌 느린 3소박 4박이라는 점도 전남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진강강술래와 자진강강술래가 모두 3소박 4박이며 1장단을 메기고 1장단을 받는다. 모두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 7-5. 해남 강강술래

전남 해남군 문내면 수월리 / 김금자

### <진강강술래>

강가양수울래  
강가양수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강가양수울래  
이태백이 노든 달아  
강가양수울래  
커기커기 커달속에  
강가양수울래  
계수나무 박혔으니  
강가양수울래  
금도끼로 찍어내여  
강가양수울래

### <중강강술래>

강강수울래  
강강수울래  
커건너 묵은 밭에<sup>31)</sup>  
강강수울래  
임자 없어 묵었든가  
강강수울래  
쟁기 없어 묵었든가  
강강수울래  
잘된데는 차조갈고  
강강수울래  
못된데는 모조갈아  
강강수울래  
고루고루 돛부심어  
강강수울래

---

31) 농사를 짓지 않은 밭.

뎡부따는 췌췌녀야  
강강수울래

〈자진강강술래〉

강강수울래  
강강수울래  
앞돌라라 앞매보자  
강강수울래  
뒷돌라라 뒷매보자  
강강수울래  
앞매뒷매 즐다마는  
강강수울래  
니머리 끝에 고운뎡기  
강강수울래  
비단이나 공단이나  
강강수울래  
비단 공단 곱다마는  
강강수울래  
니야 뎡기 나를 주라  
강강수울래  
강강수울래  
강강수울래  
새벽서리 찬바람에  
강강수울래  
울고가는 췌기력아  
강강수울래  
울었으면 너울었췌  
강강수울래  
잠든 나를 깨고 가나  
강강수울래  
천지상풍 기러기면  
강강수울래  
편지 한 장 킄해주라  
강강수울래  
강강수울래

강강수올래  
문을 열고 나와보니  
강강수올래  
기러기는 간 곳 없고  
강강수올래  
억만강에 구름속에  
강강수올래  
달과 별이 내렸드리  
강강수올래  
강강수올래

### <술래>

술래  
술래  
넓은 마당 알아지고  
술래  
알은 마당 높아지게  
술래  
먼데 사람 보기좋고  
술래  
결에 사람 보기좋게  
술래  
웁썌 웁썌 뛰고가자  
술래  
웁썌 웁썌 뛰고가자  
술래  
술래  
술래  
달과 달아 보름달아  
술래  
가래달같이 처렀던가  
술래  
남의 부모 천산에는  
술래  
별초하러 가시는데

술래  
우리 부모 천산에는  
술래  
어느 누가 가리요  
술래

〈해설〉네 가지 강강술래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진강강술래는 대체로 3소박 6박의 진양조장단에 맞지만 4박과 6박 사이를 넘나들며, 중강강술래는 3소박 4박의 중중모리장단, 자진강강술래는 자진모리장단에 맞는다. 진강강술래에서 자진강강술래는 1장단을 메기고 1장단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세곡이 동일하나 단지 속도가 빨라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곡인 술래는 받는소리는 3소박 2박이고, 메기는소리는 3소박 4박이어서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변박이 일어난다. 모두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 2. 지춘상, 『전남의 민요』 전라남도, 1988.

### 강강술래

강강술래(1)

조사지역 : 해남군 풍내면 우수림  
 조사일시 : 1975. 9. 13  
 조사자 : 지춘상  
 알 소리 : 박양애, 여·51.  
 뒷 소리 : 김길남, 여·59, 이인자, 여·48, 김순애, 여·51, 김복심, 여·53,  
 김순심, 여·48.

(1) 긴 강강술래

지춘상 세집  
김삼진 해보

(악) 강 강 술래  
 (예) 달 떠 온 다 달 떠 온 다  
 (반) 강 강 술래  
 (예) 달 떠 온 다 달 떠 온 다  
 (반) 강 강 술래

1	강강술래	강~강~ 수~올래~
2	달떠온다	달떠온다
	강~강~	수~올래~
3	동해동창 <sup>1)</sup>	달떠온다
	강~강~	수~올래~
4	저달이	취달인가
	강~강~	수~올래~
5	말호방 <sup>2)</sup>	달이러네
	강~강~	수~올래~
6	말호방은	어디가고
	강~강~	수~올래~
7	저달튼줄	모르는가
	강~강~	수~올래~
8	술래소리	어디갔다
	강~강~	수~올래~
9	매달맞이	팔도온다
	강~강~	수~올래~
10	저달이	다저물면
	강~강~	수~올래~
11	술래소리	끝이나네
	강~강~	수~올래~

1) 東海東窓  
 2) 方戶房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方"은 姓氏의 方이 아니라 戶의 "방"과 室을 뜻하기 위해 "방호방"이라 노래한 듯

(2) 중 강강술래

지춘상 세집  
김삼진 해보

(예) 세 버 서 리 찬 바 람 에 강 강 술 래  
 (반) 술 고 가 는 저 기 리 야 강 강 술 래

12	오동추야 <sup>3)</sup>	달은밝고
	강~강~	술~래
13	우리님생각이	길로난다
	강~강~	술~래
14	임아임아	뛰어파라
	강~강~	술~래
15	임줄라고	해온보신 <sup>4)</sup>
	강~강~	술~래
16	임안주면은	누구를줄까
	강~강~	술~래
17	새벽서미	찬바람에
	강~강~	술~래
18	올고가는	저기턱이 <sup>5)</sup>
	강~강~	술~래
19	올었으면	너를잊지
	강~강~	술~래
20	참든나를	깨우느냐
	강~강~	술~래

3) 曉報秋夜  
 4) 보신  
 5) "저 기리기야"의 중립말

21	편저상문 <sup>6)</sup>	저기턱아
	강~강~	술~래
22	편저한장	전해주라
	강~강~	술~래
23	문을열고	나의보니
	강~강~	술~래
24	거리기는	간곳없고
	강~강~	술~래
25	영방간이	구름속에
	강~강~	술~래
26	달과별이	엮였으니
	강~강~	술~래
27	걸인글씨	흰종이로
	강~강~	술~래
28	우리부친	보린만은
	강~강~	술~래
29	요내나는	연재삼아
	강~강~	술~래
30	우리부친	만나볼까
	강~강~	술~래
31	시위대야 <sup>7)</sup>	시방고야
	강~강~	술~래
32	반에덩달	우리어매
	강~강~	술~래
33	어느곳가	이별하고
	강~강~	술~래

6) 편저 相適  
 7) 우수, 全羅道方言으로 「부시데」라는 말도 쓰임

- 34 날르는줄 모르는가  
강~강~ 술~래
- 35 넘르는줄 안다만은  
강~강~ 술~래
- 36 가가잡어<sup>8)</sup> 내가갔다  
강~강~ 술~래
- 37 참아실위<sup>9)</sup> 내가갔다  
강~강~ 술~래

(3) 짚은 김강술래

짚은김강술래(♩, 100) 최춘상 제집  
김삼진 제보

(예)

남 글 담 글 남 글 부 채 강 강 - 술 - 래

(반)

은 도 당 글 낫 또 부 채 강 강 - 술 - 래

(예)

스 무 양 주 고 - 사 신 부 채 강 강 - 술 - 래

(반)

오 뉴 월 이 들 이 래 도 강 강 - 술 - 래

(예)

뚝 다 부 친 내 경 이 야 강 강 - 술 - 래

- 38 뛰어보세 뛰어보세  
강강 술래

8) 가고 싶어서  
9) 못견디게 지리워서

- 39 옥신옥신 뛰어보세  
강강 술래
- 40 아픈마당이<sup>10)</sup> 높아지게  
강강 술래
- 41 높은마당이 찾아지게  
강강 술래
- 42 옥신옥신 뛰어보세  
강강 술래
- 43 나주영산 천골목에<sup>11)</sup>  
강강 술래
- 44 은도거리<sup>12)</sup> 풀에걸고<sup>13)</sup>  
강강 술래
- 45 지초캐는<sup>14)</sup> 지근아가  
강강 술래
- 46 니아집은는 이태나  
강강 술래
- 47 내아집을 찾을라던  
강강 술래
- 48 검영구름 반골속에  
강강 술래
- 49 얼두칸 지하집에  
강강 술래
- 50 아홉칸 대곡방에  
강강 술래

10) 밝은 마당, 「아른」은 「알은」의 全羅道方言  
11) 권골목, 「진」은 「질다」의 全羅道方言  
12) 또아리의 全羅道方言  
13) 팔에 걸고, 「풀」은 「판」의 全羅道方言  
14) 쪼루

- 51 햇초병풍<sup>15)</sup> 돌리치고  
강강 술래
- 52 너귀에<sup>16)</sup> 쾩경달고<sup>17)</sup>  
강강 술래
- 53 일그렁그렁 그소리들고  
강강 술래
- 54 날만 찾아오게  
강강 술래
- 55 당글당글 당글부채  
강강 술래
- 56 은도당글 낫또부채  
강강 술래
- 57 수무양주고<sup>18)</sup> 사신부채  
강강 술래
- 58 오뉴월이 들이래도  
강강 술래
- 59 뚝다부친 내경이야  
강강 술래
- 60 강강 술래  
강강 술래
- 61 지건너 북은밭에  
강강 술래
- 62 쟁기없어 북없는가  
강강 술래
- 63 임자없어 북없는가  
강강 술래

15) 花草屏風, 화초가 그려진 명품  
16) 네 귀에  
17) 播鈴  
18) 20兩

(5) 고사리 췌자

고사리췌자(♩, 120) 최춘상 제집  
김삼진 제보

(예)

췌 자 췌 - 자 고 사 리 대 사 리 췌 - 자

(반)

수 양 산 고 사 리 췌 껌 다 가 우 리 아 배 만 찬 하 세

(예)

고 사 리 대 사 리 췌 자 나 무 대 사 리 췌 - 자

- 79 고사리 대사리췌자  
나무대사리 췌자  
유자꽃궁 제미나 님자  
아장장장 벌이어<sup>21)</sup>  
고사리 대사리 췌자  
나무대사리 췌자  
유자꽃궁 제미나님자  
아장장장 벌이어
- 80 췌자췌자 고사리대사리 췌자  
수양산 고사리 췌꺼다가  
우리아배 반찬하세  
고사리 대사리 췌자  
나무대사리 췌자  
유자꽃궁 제미나님자  
아장장장 벌이어

21) 벌의 소리를 「아장아장」이라 擬聲化하고 있다

81      경자경자      고사리대사리      경자  
 지리산      고사리      경겨다가  
 우리엄매      반찰라세  
               모사리대사리      경자  
               나우대사리      경자  
               유자몽골      재미나넨자  
               아강장장      밭이어

(6) 청어위지

82      청청      청에영짜  
 위도군산      청에영짜  
               청청      청에영짜  
               위도군산      청에영짜

83      청청      청에영짜  
 위도군산<sup>24)</sup>      청에영짜  
               청청      청에영짜  
               위도군산      청에영짜

84      청청      청에영짜  
 위도군산      청에영짜  
               청청      청에영짜  
               위도군산      청에영짜

청에물자 (♩, ♪ 120)      지훈상 채집  
 (배)      김삼진 채보

경 청 청 에 물 자 위 도 군 산 청 에 물 자

(반)

경 청 청 에 물 자 위 도 군 산 청 에 물 자

22) 鱈魚. 고등어  
 23) 島嶼山

85      물자물자      청에물자  
 위도군산      청에물자  
               물자물자      청에물자  
               위도군산      청에물자

86      물자물자      청에물자  
 위도군산      청에물자  
               물자물자      청에물자  
               위도군산      청에물자

87      물자물자      청에물자  
 위도군산      청에물자  
               물자물자      청에물자  
               위도군산      청에물자

(7) 지외밭기

지외밭기      지훈상 채집  
 (배)      김삼진 채보

어 밧 풀 지 환 가 강 자장자 풀 지 화 세

(반)

어 밧 풀 지 환 가 강 자장자 풀 지 화 세

(배) (반)

봄 자물 자 지화물물 자 물 자물 자 지화물물 자

(배) (반)

어 밧 풀 지 환 가 천 라 도 지 화 세

(배) (반)

어 밧 풀 지 환 가 강 자 풀 지 화 세

88      어밧골      지환가<sup>24)</sup>  
 장자장자골<sup>25)</sup>      지화세  
               어밧골      지환가  
               장자장자골      지환가

89      어밧골      지환가  
 장자장자골      지화세  
               어밧골      지환가  
               장자장자골      지화세

90      봄자물자<sup>26)</sup>      지화물      봄자  
               봄자물자      지화물      봄자

91      어밧골      지환가  
               강자골      지화세

92      어밧골      지환가  
               천라도      지화세

93      어밧골      지환가  
               강자골      지화세

94      어밧골      지환가  
               천라도      지화세

(8) 덕실물이

덕실물이      지훈상 채집  
 (배)      김삼진 채보

물 자 물 자 덕 실 물 자 물 자 물 자 덕 실 물 자

(반)

물 자 물 자 덕 실 물 자 물 자 물 자 덕 실 물 자

24) 「기화인가」의 韻尾. 「지화」는 「기화」의 全羅方言  
 25) 長卷. 單 부자를 붙여서 이르는 말. 卽 「장자가 사는 골」이란 뜻  
 26) 봄자는 「법녀」의 全羅道方言

95      물자물자      덕실물자<sup>27)</sup>  
 물자물자      덕실물자

96      물자물자      덕실물자  
 물자물자      덕실물자

97      물자물자      덕실물자  
 물자물자      덕실물자

98      물자물자      덕실물자  
 물자물자      덕실물자

99      물자물자      덕실물자  
 물자물자      덕실물자

100      물자물자      덕실물자  
 물자물자      덕실물자

(9) 권취새끼 놀이

권취새끼놀았네 (♩, ♪ 70)      지훈상 채집  
 (배)      김삼진 채보

물 물 천 라 도 위 권 새 끼 놀 았 네

(반)

물 나 물 나 망 겠 더 - 니 물 차 두 물 차 두 되 있 네

(반)

잡 았 네 잡 았 네 권 취 새 끼 놀 았 았 네

101      권취새끼<sup>27)</sup>      권취새끼  
               가시리      밧이어  
               권취새끼      권취새끼  
               가시리      밧이어

27) 덕실은 「명식」의 全羅道方言.  
 28) 놀리

- 102 권귀새끼 뿔뿔뿔  
가사리 벗이여  
권귀새끼 뿔뿔뿔  
가사리 벗이여
- 103 잠었네 잠었네  
권귀새끼를 잠었네  
푼한나 푼한나 땡졌더니<sup>29)</sup>
- 104 콩차두 콩차두<sup>30)</sup> 되었네  
잠었네 잠었네  
권귀새끼를 잠었네
- 105 콩콩전라도 권귀새끼를 잠었네  
푼한나 푼한나 땡졌더니  
콩차두 푼차두 되었네  
잠었네 잠었네  
권귀새끼 잠었네
- 106 푼한나 푼한나 땡졌더니  
푼차두 푼차두 되었네  
잠었네 잠었네  
권귀새끼를 잠었네

(10) 꼬리따기

- 107 꼬리따세 위~위~  
위~ 위~
- 108 위~ 위~  
위~ 위~

29) 「땡졌더니」의 순羅道方言  
30) 팔을 넣은 자루

(13) 술래소리

술래소리 (♩ ≈ 130) 저운상 제집  
(예) 김삼진 제보 (반)

술 래 소리 이 더 갔 나 술 래

(예) (반)  
때 만 찾 아 잘 도 오 비 술 래

115 술~래  
술~래

116 술래술래가 술래야  
술~래

117 어메를 기러서<sup>31)</sup> 갈상사  
술~래

118 이모를<sup>32)</sup> 기러서 모초단  
술~래

119 쟁인장모 장초단  
술~래

120 치남남매 맹호단  
술~래

121 고부고부 머리고부  
술~래

122 고부나칭칭 닝게서<sup>33)</sup>  
술~래

123 잘장이 쥘새기  
술~래

31) 이머니가 그리워서, 「기러서」는 「그리워서」의 순羅道方言  
32) 姨母, 이머니의 稱號  
33) 「닝게서」의 순羅道方言

(11) 문열어라

문열어라 (♩ ≈ 100) 저운상 제집  
(예) 김삼진 제보 (반)

문 지 기 문 지 기 문 열 이 주 소 열 쇠 없 이 못 열 것 네

109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뿔소리꾼)  
열쇠없어 못열것네(알소리꾼)

110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열쇠없어 못열것네

(12) 가마등

가마등 (♩ ≈ 90) 저운상 제집  
(예) 김삼진 제보 (반)

오 등 주 여 어 달 은 밤 고 이 리

(반)  
에 세세 에 세세 세 어 리리 어 어 리리 이 리

111 오동주야 밝은밤고 위~위~  
에~세세~에~세세~세  
이리~이리~이~이리~위~위~

112 임의생과 절로난다 위~위~  
에~세세~에~세세~세  
이리~이리~이~이리~위~위~

113 짧은등은 넘어미고  
아면 그렇게

114 장간등은 밝아던세  
아면 그렇게

- 124 발이나 벗고도 더 좋네  
술~래
- 125 충청도 비단은 모시비단  
술~래
- 126 강원도 비단을 꽃샘추  
술~래
- 127 이비단 저비단 다래도  
술~래
- 128 연호부초가 생인래라  
술~래
- 129 술~래  
술~래
- 130 술래소리 어디갔다  
술~래
- 131 때만찾아 잘도오네  
술~래

### 3. 『한국의 민속음악-전라남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17-21 긴 강강술래

해남군의 <긴 강강술래>는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로 되어 있고 do의 전타음으로 re가 쓰인다. 구성음 중 Si는 do에서 꺾어주며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 Mi는 크게 떨어주는 옥자메기토리이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

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받>
강강 술래	강강 술래
달피은다 달피은다	강강 술래
동해동장 달피은다	강강 술래
저달이 뒤달인가	강강 술래

#### 17-22 강강술래

해남군의 <강강술래>는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re로 되어 있고 Si의 전타음으로 do가 쓰인다. 구성음 중 Si는 do에서 꺾어주며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 Mi는 크게 떨어주는 옥자메기토리이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받>
오동추야 달은 밝고 강강 술래	
우리님 생각이 절로난다 강강 술래	
일일이아 뒤어바라 강강 술래	
일출라고 해온버실 강강 술래	
일안주며는 누구를 즐까 강강 술래	

#### 17-23 자진 강강술래

해남군의 <자진 강강술래>는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 re mi로 되어 있다. 이 중 Si는 do에서 꺾어주거나 하행진행하는데 꺾어주는 경우보다는 하행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 Mi는 크게 떨어주는 옥자메기토리이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받>
뛰어보세 뛰어보세 강강 술래	

역신역신 뛰어보세 강강 술래  
 얇은 마달이 높아지게 강강 술래  
 높은 마달이 깎여지게 강강 술래  
 역신역신 뛰어보세 강강 술래

#### 17-24 강강술래: 남생이놀이

해남군의 <남생이놀이>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는 두 장단씩 메기고 받다가 뒤에는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데 선율은 변화가 없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의 두 음으로 되어 있다.

<메> 남부생아 높아라 /	절래절래가 잘는다 /
<받> 남부생아 높아라 /	절래절래가 잘는다 /
<메> 남부생아 높아라	<받> 절래절래가 잘는다
<메> 남부생아 높아라	<받> 절래절래가 잘는다

#### 17-25 강강술래: 고사리뛰기

해남군의 <고사리뛰기>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로 되어 있다. 이 중 Si는 do에서 하행 진행하며 조금 낮으나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do - La의 진행도 많이 나타나서 옥자메기토리로 보기 힘들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고사리 대사리 정자 /	나무 대사리 정자 /
유자동풍 제미나 넘자 /	아장장장 벌ैया /
<받> 고사리 대사리 정자 /	나무 대사리 정자 /
유자동풍 제미나 넘자 /	아장장장 벌ैया /
<메> 정자 정자 /	고사리 대사리 정자 /
수양산 고사리 정자다가 /	우리아베 반찬하세 /
<받> 고사리 대사리 정자 /	나무 대사리 정자 /

유자동풍 제미나 넘자 / 아장장장 벌ैया /

#### 17-26 강강술래: 창어뛰기

해남군의 <창어뛰기>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두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re로 되어 있고, 이 중 re는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창칭 창해영자 /	위도군산 창해영자 /
<받> 창칭 창해영자 /	위도군산 창해영자 /
<메> 창칭 창해플자 /	위도군산 창해플자 /
<받> 창칭 창해플자 /	위도군산 창해플자 /

#### 17-27 강강술래: 기와팔기

해남군의 <기와팔기>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같은 길이의 장단이 2분박 6박자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메기고 받는 구분없이 합창으로 부르고 부분적으로만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로 되어 있고, 이 중 Si는 do에서 꺾어주며 조금 낮은 옥자메기토리나 멜포가 멜라 Mi를 크게 떨어지는 않는다. 중간이 '불자 불자 지화를 불자 -' 하는 부분은 Mi - La가 Sol - do로 되는 Sol La do re의 구성음으로 되어 있어 경도리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선율은 Mi 혹은 Sol로 끝난다.

어디를 지환가 /	장자 장자 불 지화세 /
어디를 지환가 /	장자 장자 불 지화세 /
어디를 지환가 /	장자 장자 불 지화세 /
어디를 지환가 /	장자 장자 불 지화세 /

<메> 불자 불자 지화를 불자
<받> 불자 불자 지화를 불자

어디를 지환가 /	장자 불 지화세 /
어디를 지환가 /	선라도 지화세 /

#### 17-28 강강술래: 대문놀이

해남군의 <대문놀이>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로 되어 있다. 이 중 Si는 do에서 하행 진행하는데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do - La의 진행도 많이 나타나서 옥자메기토리로 보기 힘들다. Mi는 크게 떨어주는 경우가 많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받> 열쇠없이 못열것네
<메>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메> 열쇠없이 못열것네
<받>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주소
<메> 열쇠없이 못열것네

#### 17-29 강강술래: 덕석물이

해남군의 <덕석물이>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외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로 되어 있으나 옥자메기토리의 뺀 목소리나 떠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나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난다.

<메>	<받>
물자물자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17-30 강강술래 : 권주새끼놀이

해남군의 <권주새끼놀이>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회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4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두 장단 혹은 네 장단의 메기고 두 장단의 받는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La Si do re 도 되어 있다. 이 중 Si는 do에서 꺾어주거나 하행진행하며 조금 낮은 경우가 많고 Mi는 꺾게 떨어주는 육자배기토리인데 꺾는 목이나 떠는 목이 그리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선율은 메기는 소리가 받는 소리가 모두 La로 끝나고 간혹 Mi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메> 권주새끼 철쭉활쭉 / 가사리 벗이어  
 <받> 권주새끼 철쭉활쭉 / 가사리 벗이어  
 <메> 권주새끼 철쭉활쭉 / 가사리 벗이어  
 <받> 권주새끼 철쭉활쭉 / 가사리 벗이어

<메> 잡았네 잡았네 / 권주새끼를 잡았네 /  
 풍한나 파한나 명게머니 / 풍차저 파차저 되었나 /  
 <받> 잡았네 잡았네 / 권주새끼를 잡았네 /  
 <메> 풍한나 파한나 명게머니 / 풍차저 파차저 되었나 /  
 <받> 잡았네 잡았네 / 권주새끼를 잡았네 /  
 <메> 풍 풍 진라도 / 권주새끼를 잡았네 /  
 풍한나 파한나 명게머니 / 풍차저 파차저 되었나 /  
 <받> 잡았네 잡았네 / 권주새끼를 잡았네 /

17-31 강강술래 : 가마타기

해남군의 <가마타기>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회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2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소리는 일정한 음정없이 고풍치듯 한다.

<메> 가마타세 위  
 <받> 위  
 <메> 위  
 <받> 위

17-32 강강술래 : 꼬리타기

해남군의 <꼬리타기>는 강강술래놀이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회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2박자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소리는 일정한 음정없이 고풍치듯 한다.

<메> 꼬리타세 위  
 <받> 위  
 <메> 위  
 <받> 위

17-33 강강술래 : 가마뽕소리

해남군의 <가마뽕소리>는 <강강술래>소리의 한 종류로 1975년 9월 13일 문래면 동회리(우수영)의 박양애(여, 51세), 김길남(여, 59세), 이인자(여, 48세), 김순애(여, 51세), 김복심(여, 53세), 김순심(여, 48세) 등 여러 사람이 부른 것이다. 3분박 6박자와 3분박 4박자 두 종류의 장단으로 되어 있고 3분박 6박자의 장단은 간혹 박자가 늘기도 한다. 앞의 6박자 장단 부분은 두 장단의 메기고 받으며, 뒤의 4박자 장단 부분은 한 장단씩 메기고 받는다. 소리의 끝에는 3분박 2박자의 장단으로 된 '쉬어가세' 자하는 소리가 붙어 있다. 구성음은 낮은 음부터 Mi Sol La do re 로 되어 있는데 선율은 Mi - La, Sol - do, La - re 의 세 구조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메> 오뽕추어히 / 달은밝고 휘휘 /  
 <받> 예레 예레해 / 더러머히 더러머 휘휘 /  
 <메> 내일의 생각 / 절로호 난다 휘휘 /  
 <메> 굴군덜 더어있고 /  
 <받> 알은 그릴지 /  
 <메> 권권덜 맞아있고 /  
 <받> 알은 그릴지 / 쉬어가세 / 자 /

긴 강강술래

- ① 김중준(여, 66)
- ② 해남읍 북평리
- ③ 이원수
- ④

♩ = ca 72 실음은 절2도 높음

강 가 - 오 수 르 래 강 가 - 오 수 르 래  
 달 떠 오 나 - 달 떠 오 나 강 가 - 오 수 르 래  
 동 해 도 - 오 상 달 떠 오 나 강 가 - 오 수 르 래  
 서 다 르 이 뒤 달 떠 - 나 강 가 - 오 수 르 래

강강술래

- ① 김중준(여, 95)
- ② 해남읍 북평리
- ③ 이원수
- ④

♩ = 90 실음은 절2도 높음

오 동 추 마 달 은 밝 고 강 가 오 수 르 래  
 우 리 녀 생 각 이 절 로 난 다 강 가 오 수 르 래

엄 아 엄 아 뒤 여 뽀라 강 가 오 수 르 래  
 엄 준 라 고 해 은 비 실 강 가 오 수 르 래  
 엄 인 주 며 는 누 구 를 줄 까 강 가 오 수 르 래

자진 강강수겔

- ① 박양애(여, 51)의 5A
- ② 문래면 동회리
- ③ 지순상
- ④ 1975. 9. 13.

♩ = 90 실음은 절2도 높음

뛰 어 보 세 뛰 어 보 세 강 가 오 수 르 래  
 억 신 억 신 뛰 어 - 보 세 강 가 오 수 르 래  
 앞 은 마 달 이 눈 아 지 게 강 가 오 수 르 래  
 억 신 억 시 노 뛰 어 보 세 강 가 오 수 르 래

**강강술래(남생이놀이)**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108 실음은 장2도 높음

(해) 남 무생 아놀아 - 라 절 래질래가잘논 다  
(보) 남 생 아놀아 - 라 절 래질래가잘논 다  
(해) 남 무생 아놀아 - 라 절 래질래가잘논 다  
(보) 남 무생 아놀아 - 라 절 래질래가잘논 다

**강강술래(고사리 꺾기)**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112 실음은 장2도 높음

(해) 고 사 리 대 사 리 쟁 자 나 무 대 사 리 쟁 자  
(보) 유 자 풍 풍 제 비 나 너 모 자 아 장 장 장 벌 이 아  
(해) 고 사 리 대 사 리 쟁 자 나 무 대 사 리 쟁 자  
(보) 유 자 풍 풍 제 비 나 너 모 자 아 장 장 장 벌 이 아

**강강술래(이와 밭기)**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60 실음은 장2도 높음

(해) 어 디 끝 지 - 화 노 가 장 자 장 자 끝 지 화 세  
(보) 어 디 끝 자 화 노 가 장 자 장 자 끝 지 화 세  
(해) 어 디 끝 지 화 노 가 장 자 장 자 끝 지 화 세  
(보) 어 디 끝 지 화 노 가 장 자 장 자 끝 지 화 세  
(해) 문 자 풀 자 덕 식 화 문 자 풀 자 풀 자 덕 식 화 문 자  
(보) 문 자 풀 자 덕 식 부 르 자 풀 자 풀 자 덕 식 부 르 자  
(해) 어 디 끝 지 - 화 노 가 장 자 끝 지 화 세  
(보) 어 디 끝 지 - 화 노 가 장 자 끝 지 화 세

**강강술래(대문놀이)**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112 실음은 장2도 높음

(해) 문 지 기 문 지 기 문 열 어 주 - 소 열 채 없 어 못 열 것 네  
(보) 문 지 기 문 지 기 문 열 어 주 - 소 열 채 없 어 못 열 것 네

(해) 명 자 의 오 자 고 사 리 대 사 리 명 자  
(보) 수 말 산 고 사 리 꺾 으 꺾 다 - 가 우 리 아 - 배 반 잘 라 세  
(해) 고 사 리 대 사 리 명 자 나 무 대 사 리 명 자  
(보) 유 자 풍 풍 제 비 나 너 모 자 아 장 장 장 벌 이 아

**강강술래(청어 엮기)**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112 실음은 장2도 높음

(해) 청 지 오 청 해 어 오 자 위 도 군 산 청 해 어 오 자  
(보) 청 지 오 청 해 어 오 자 위 도 군 산 청 해 어 오 자  
(해) 청 지 오 청 해 부 르 자 위 도 군 산 청 해 부 르 자  
(보) 청 지 오 청 해 부 르 자 위 도 군 산 청 해 부 르 자

**강강술래(덕식물이)**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116 실음은 장2도 높음

(해) 문 자 풀 자 덕 식 모 르 자 풀 자 풀 자 덕 식 모 르 자  
(보) 문 자 풀 자 덕 식 모 르 자 풀 자 풀 자 덕 식 모 르 자  
(해) 문 자 풀 자 덕 식 부 르 자 풀 자 풀 자 덕 식 부 르 자  
(보) 문 자 풀 자 덕 식 부 르 자 풀 자 풀 자 덕 식 부 르 자

**강강술래(전주새끼놀이)**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민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J = Ca 69-116 J = 116 J = Ca 69 실음은 장2도

(해) 전 주 새 끼 꺾 르 록 빠 르 가 사 리 밭 이 어  
(보) 전 주 새 끼 꺾 르 록 빠 르 가 사 리 밭 이 어

(해) 권 주 세 끼 억 르 목 락 락 가 사 리 빛 이 어

(보) 권 주 세 끼 억 르 목 락 락 가 사 리 빛 이 어

(해) 감 았 네 감 았 네 권 주 세 끼 감 았 네

(보) 감 았 네 감 았 네 권 주 세 끼 감 았 네

(해) 공 안 나 포 한 나 빙 게 락 - 니 공 차 지 포 차 지 되 었 나

(보) 감 았 네 감 았 네 권 주 세 끼 감 았 네

(해) 감 았 네 감 았 네 권 주 세 끼 감 았 네

(보) 공 공 진 라 도 권 주 세 끼 감 았 네

(해) 공 안 나 포 한 나 빙 게 락 - 니 공 차 지 포 차 지 되 었 네

(보) 감 았 네 감 았 네 권 주 세 끼 감 았 네

**강강술래(가마타기)**

J = 76 상음은 단3도 높음

(해) 가 마 타 세 위 - 위 - 위 -

(보) 가 마 타 세 위 -

**강강술래(고리따기)**

J = 80 상음은 단3도 높음

(해) 고 리 따 세 위 - 위 - 위 -

(보) 고 리 따 세 위 -

**강강술래(가마등 소리)**

J = Ca 8 - 116 J = Ca 8

(해) 오 - 도 오 주 - 이 - 하 다 르 오 노 바 라 고 위 위

(보) 에 - 해 - 에 - 해 - 해 더 리 마 - 허 더 리 마 위 위

(해) 내 입 의 - 생 가 그 저 르 도 - 호 나 노 다 위 위

(보) 감 균 덩 더 밧 있 고 압 은 그 밧 지 -

(해) 감 균 덩 밧 . 아 닷 고 압 은 그 밧 지 -

(보) 위 어 가 세 차 -

① 박양래 (여, 51)의 5A  
 ② 문래면 동외리  
 ③ 지춘상  
 ④ 1975. 9. 13.

#### 4. 『한국민속예술축제 50년사』, 문화체육관광부, 2010.

##### 1. 출전 이력

- 제1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남 강강술래
- 제2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남 강강술래 문공부장관상
- 제4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전남 강강술래
- 제16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남강강술래 국무총리상, 박양애(개인상)
- 제17회 한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해남강강술래 대통령상
-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해남강강술래
- 제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해남여자중학교 <강강술래>

##### 2. 제17회 출전 당시 연행 내용

###### 1) 해남강강술래(민속놀이)

강강술래는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전승되어 온 집단 놀이로서 주로 8월 한가위에 세시풍속의 하나로 돌아왔으나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날에도 행하여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이 놀이의 연원에 대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과 결부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 및 수확 때의 공동축제에서 노래부르며 춤을 추던 놀이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오늘의 강강술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이 놀이를 의병술로 이용하여 왜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알려져 당시의 격전지였던 전남 남해안 일대에서 더욱 성행되어 온 것으로 추측된다.

강강술래는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 여성놀이의 대표격으로, 남도의 정서가 넘치는 음악에 매우 활동적인 율동이 가미된 놀이로서 한가위 밝은 달 아래 펼쳐지는 큰애기들의 한 바탕 원무는 약동하는 생명력의 표상이다. 강강술래에는 여러 가지 놀이가 있으나 대략 다음의 14가지 놀이로 구성된다.

(1) 늦은강강술래

(2) 중강강술래

(3) 잣은강강술래

(4) 남생아 놀아라

(5) 고사리 꺾자

(6) 청어엮자

(7) 청어풀기

(8) 지와밧기

(9) 덕석몰이

(10) 덕석풀기

(11) 권취새끼놀이

(12) 문열어라

(13) 가마등

(14) 도곳대당기기

이 외에도 수건찾기, 품고동, 봉사놀이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새롭게 꾸밀 수도 있다. 14가지의 놀이들은 각각 순차적으로 놀아지고, 각 놀이는 노래와 연계해서 울동이 각기 다르게 변화되면서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각 구성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늦은강강술래

한가위 등근달이 동천에 떠오르면 백사장이나 넓은뜰에 여인들이 모여, 목청 좋은 사람(설소리꾼)이 느릿한 진양조로 메김소리를 하면 다른 아낙네들은 ‘강강술래’ 하고 뒷소리를 받으며 손에 손을 잡고 사뿐히 발길을 옮겨 원무를 춘다. 강강술래 놀이의 잔 과정 중에 가장 아름답고 여성스런 멋이 있다고 하겠다.

### (2) 중강강술래

늦은 강강술래를 한참 하다가 설소리꾼이 흥겨운 중중모리 가락으로 메기면 모두 이에 맞추어 동작이 조금 빨라지고 어깨놀림이 가볍게 시작된다. 놀이형태는 늦은강강술래와 같으나 가락이 빨라지므로 손발이 유연해지고 원이 넓어진다.

### (3) 잣은강강술래

중강강술래를 하다가 설소리꾼이 자진모리가락으로 메기면 이에 맞추어 양팔을 쪽 뻗치고 뛰며 돈다. 원무형태는 앞서와 같으나 원이 커지고 발놀림이 빨라져 흥이 절정에 오른다.

#### (4) 남생아 놀아라

짚은강강술래를 하다가 지치면 설소리꾼이 중중모리가락의 ‘남생아 놀아라’ 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되받으며 발길을 늦추고 놀이꾼 중에 재주 있는 이들이 나가 갖가지 춤을 추는데 주로 곱사춤과 궁둥이 춤을 춘다. 다른 놀이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원무를 계속한다.

#### (5) 고사리 꺾자

다시 설소리꾼이 ‘고사리 대사리 꺾짜’ 를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유자콩콩 재미나 넘자’ 로 받아 부르면서 원무형태 그대로 앉아 어깨만 들썩인다. 그러다 선두가 일어서서 노랫가락에 맞추어 왼쪽으로 돌아 다음사람과 맞잡을 팔위를 넘으며 다음 사람도 일어나 선두를 떠다 전원을 꺾어간다.

#### (6) 청어엮자

고사리 꺾자가 끝나면 다시 원이 되는데 설소리꾼이 ‘청청 청어 영자 위도 군산 청어영자’ 를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이 소리를 되받으며 멈춰 선채 어깨만 들썩인다. 그러면 선두가 둘째 사람과 셋째 사람의 맞잡은 팔 밑으로 꿰어가서 고사리 꺾자와 같이 차례차례 꿰어 가는데 이때 오른손은 왼쪽어깨 위에 감기게 되어 마치 청어를 엮은 모습과 흡사하게 된다.

#### (7) 청어풀기

청어 엮자가 끝나면 선두가 엮을 때와 반대 방향으로 꿰어간다. 그러면 어깨가 풀려 원대형으로 돌아간다.

#### (8) 지와밧기

청어풀기가 끝나면 원상태로 빙빙 돌다가 설소리꾼이 ‘어디 골 지와가’ 하고 부르면 다른 놀이꾼들은 ‘장자골 지와세’ 를 부르며 일렬로 늘어선다. 그러면 설소리꾼이 ‘뽕자 뽕자 지와를 뽕자’ 를 선창한다. 그러면 일제히 허리를 굽혀 뒷사람이 앞사람의 어깨를 밧고 건너가는데 양쪽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아준다. 놀이꾼들을 다 밧고 건너가면 그 사람은 제일앞에 엮드리고 뒤에서부터 차례로 한 번씩 밧아온다.

### (9) 덕석몰이

지와밧기가 끝나고 설소리꾼이 중중모리 가락으로 ‘몰자 몰자 덕석을 몰자’를 선창하면 모두 이를 따라 부르며 일어선다. 선두는 왼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면서 잡고 다른 놀이꾼들은 차례로 명석을 말듯 돌돌 말아간다.

### (10) 덕석풀기

덕석이 다 말아지면 설소리꾼이 ‘풀자 풀자 덕석을 풀자’를 선창한다. 그러면 모두 이를 되받으며 말 때와는 반대로 외곽사람이 풀면서 풀어나간다.

### (11) 권취새끼놀이

덕석을 풀고 설소리꾼이 ‘권취새끼 짚룩짚룩 가사리고부야’를 노래하면 놀이꾼들은 이를 되받으며 일렬로 정렬한다. 이어 설소리꾼이 ‘권취새끼 잡세’를 소리치면 일제히 앞사람의 허리를 잡는다. 선두는 재빨리 되돌아 맨 끝의 사람을 잡으려 쫓는다. 힘들여 끝사람을 잡으면 잡힌 사람을 맨 앞에 세우고 잡는데 공헌한 선두를 목마태워 노래하며 행진한다.

### (12) 문열어라

권취새끼놀이가 끝나고 허리를 잡은 채 일렬이 되면 설소리꾼이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 주소’를 선창한다. 그러면 맨 앞 사람 둘이 마주보며 손을 들어 맞잡는다. 이 문을 놀이꾼들이 허리를 잡은 채 노래하며 꿰어간다. 그러나 진도지방에서는 놀이꾼들이 꿰어갈 대문지기가 갑자기 손을 내려 방해한다. 그러면 놀이꾼들은 앞사람의 허리를 굳게 잡은 채 선두의 끌림에 따라간다. 만약 놀이의 대형이 끊어지면 그 끊어진 사람이 문지기가 되는 것이다.

### (13) 가마등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손목을 잡아 정자형을 만들면 이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앉아 마당을 돌아다닌다. 편을 갈라 일정한 거리까지 갔다오는 경주를 벌이기도 한다.

#### (14) 도긱대당기기

놀이꾼을 두 편으로 갈라, 중앙에 도긱대(절긱공이)를 옆으로 놓고 양편에서 힘센 사람이 나와 양 끝을 잡는다. 양편의 놀이꾼들은 절긱공이를 중심으로 종 대열로 늘어서서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맨 앞사람은 절긱공이에 발을 버티고 양손을 맞잡는다. 서로 손이 잡히면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다.

5. 뿌리깊은나무 조선소리선집14, <해남강강술래>, 1991.

<중강강술래>

(메)강강술래  
(밭)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 찾아 잘도온다  
어와 우리 친구네들  
허리 늘찢 골라서서  
다리는 딸막 어깨는 충칭  
웁신웁신 뛰다 가세  
먼데 사람 듣기좋고  
결에 사람 보기좋게  
강강술래  
당글당글 당글부채  
은도 당글 남도 부채  
시무냥 주고 사신 부채  
오뉴월이 둘이어도  
못 다 부친 내 정이야  
못 다 부친 내 정이야  
강강술래

<진강강술래>

(메)강강 / 술래(24/42)  
(밭)강강 / 술래  
달떠온다 / 달떠온다  
동해동창 / 달떠온다  
커 달이 / 뉘 달인가  
강호방네 / 달이라네  
강호방은 / 어디가고  
커달뜯줄 / 모르는가

### <중강강술래>

(메)강강술래

(받)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찾어 잘도온다  
양에양에 양님이느  
시집가든 삼일만에  
바느질을 하라하여  
기와지름 불을 키고  
설 뉘비고 짓 뉘비고  
소매 반동 다 뉘빈게  
건너 강에 개가 짓고  
아리 강에 닭이 울어  
잠이 올라 잠잠더니  
시아마니 호령소리  
시아버지 호령소리  
에라 이걸 못살것네  
공가낙수 들춰미고  
비내재를 넘어가서  
줄복한나 뉘아다가  
질불에다 구워먹고  
잠든듯이 죽어지케

### <자진강강술래>

(메)강강술래

(받)강강술래

뛰어보케 뛰어보케  
옥신옥신 뛰어나보케  
높은 마당이 앞어나지고  
야찬 마당이 짙어나지게  
옥신악신 뛰어나보케  
나주영산 진골목에  
은포가리 팔에 걸고

지추캐는 작은 아가  
 니아 짐이 너어데냐  
 내야 집을 찾을라문  
 거멍 구름 방골 속에  
 열두칸 지와집에  
 화초병풍 둘러치고  
 니귀에다 핑갱달고  
 은그랑 쟁그랑 그소리듣고  
 날만 찾아오게  
 강강술래

### <남생아 놀아라>

나무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 <고사리 꺾기>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공공재미나 넘자 야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공공재미나 넘자 야장장장 벌이여  
 쟁자쟁자 고사리 대사리 쟁자  
 지리산 고사리 쟁커다가 우리아베 반찬하세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쟁자쟁자 고사리 대사리 쟁자  
 수양산 고사리 쟁꺼다가 우리어매 반찬하세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쟁자쟁자 고사리 대사리 쟁자  
 수양산 고사리 쟁꺼다가 우리아매 반찬하세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 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꽁꽁재미나 넘자 아장장장 벌이여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하늘에다 벼를놓고  
 구름잡어 잉애걸고  
 참나무에 보두집에  
 비자나무 북에다가  
 은그랑 쟁그랑 짜는 베는  
 언께 다 짜고 친께에 갈까  
 강강술래

### <칭어유희>

칭칭 칭애영짜 위도군산 칭애영짜  
 칭칭 칭애영짜 위도군산 칭애영짜  
 칭칭 칭애영짜 위도군산 칭애영짜  
 칭칭 칭애영짜 위도군산 칭애영짜

<칭어플기>

칭칭 칭애편자 위도군산 칭애편자  
칭칭 칭애편자 위도군산 칭애편자  
칭칭 칭애편자 위도군산 칭애편자  
칭칭 칭애편자 위도군산 칭애편자  
강강술래  
강강술래

<지외뵤기>

어딧골 지외가 장자장갓골 지외세  
어딧골 지외가 장자장갓골 지외세  
어딧골 지외가 장자장갓골 지외세  
어딧골 지외가 장자장갓골 지외세

지외뵤세! 자!

어딧골 지외가 장갓골 지외세  
어딧골 지외가 천라도 지외세  
얼마나 쳄는다 스물닷냥 쳄네  
어딧골 지외가 천라도 지외세  
어딧골 지외가 장갓골 지외세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갓다  
때만찾어 잘도온다  
시싯대야 시망구야  
맘에 동동 우리엄매  
어느 불까 이별하고  
날 크는 줄을 모르는가  
널 크는 줄을 안다마는  
가고잡아 내가 갓냐  
차마서러 내가 갓네  
강강술래

<덕석물기>

물자물자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물자물자 덕석물자

<덕석풀기>

풀자풀자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풀자풀자 덕석풀자  
강강술래

술래 술래 강강술래  
딸아 딸아 막내딸아  
맨발벗고 샘에 가냐  
텃논 풀아 종사주리  
텃밭 팔아 신사주리  
종도 싫고 신도 싫고  
오동나무 장롱에다  
날과 같은 임사주게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찾아 잘도온다  
켜건네 묵은 발에  
임자없어 묵었는가  
쟁기 없어 묵었는가  
잘된례는 차조갈고  
못된례는 모조갈아  
머리머리 뚝부심어  
뚝부짜는 처큰아가  
니머리 끝에 디린 땡기

공단이냐 비단이냐  
공단이든 뿔을 하고  
비단이든 뿔을 할래  
강강술래

### <진주새끼>

진주새끼 찢룩찢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새끼 찢룩찢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새끼 찢룩찢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새끼 찢룩찢룩 가사리 벗이여

### <꼬리따기>

꼬리따개! 자!

(박양애)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콩콩 천라도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콩콩 천라도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하나 풀하나 떠꼈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찾어 잘도온다  
 강강술래  
 서울가치 배떠다가  
 천주가치 물을 디려  
 강원도 가치 다듬아치  
 울울이 가새질에  
 성케성케 바느질에  
 이실이실 이실아쳐  
 대르미에 뺨을 맞춰  
 입자니는 때가 묻고  
 개자니는 꼬부쳐서  
 횃대 끝에 걸어놓고  
 들면 보고 날면 본디  
 여시같은 시누애기  
 땃까칼을 품에 품고  
 울울이 다 찢는다  
 찢기사라 찢네마는  
 좃기좃게 찢어주께  
 강강술래

### <대문열기>

문지기문지기 문열어주소 열쇠없어 못열것네  
 문지기문지기 문열어주소 열쇠없어 못열것네  
 문지기문지기 문열어주소 열쇠없어 못열것네  
 문지기문지기 문열어주소 열쇠없어 못열것네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찾어 잘도온다

천장만장 달관머리  
 수시비단 꽃이피어

그 꽃 한 쌍 끌어다가  
임의 버선 볼을 걸어  
임을 보고 보신 보니  
임줄 생각 천이 없네  
임의 동생 씨아께야  
너나 신고 공부하자  
강강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 찾아 잘도 온다

### <가마타기>

가마띠케 자!  
오동추야 달은 밝고  
에헤헤 에헤헤헤헤 어허허허 어허허 히 히  
굵은 놈은 넘어닫고 얇은 그럴케  
잘은 놈은 밟아닫고 얇은 그럴케  
쉬어가게 자!  
강강술래

강강술래  
하늘에다 배틀놓고  
구름잡아 잉애걸고  
참나무에 보두집에  
비자나무 북에다가  
얼그당 달그당 짜는 베는  
언제 다 짜고 친경에 갈까  
강강술래

강강술래  
술래소리 어디 갔다  
때만 찾아 잘도 온다  
어와 우리 친구네들  
먼데 사람 듣기 좋게  
곁에 사람 보기 좋게

읍신읍신 뛰다가께  
켜 달이 다 쪼물어  
술래 소리 끝이 나네

강강술래  
술래 술래 강강술래  
팔월이라 한가운데  
높이 떴다 쪼 달님은  
팔방구경 다 비친다  
우리 님은 어디가쳐  
날 비친줄 모르신가  
팔월 그믐 지우 보내  
구월 초승이 또 돌온다

강강술래  
뛰어보케 뛰어보케  
읍신읍신 뛰어나보케  
높은 마당이 앞어나지고  
얕은마당이 짙어나지게  
읍신읍신 뛰어나보케  
이붓엄매 엄매랑가  
이붓아배 아배랑가  
식은 밤이 밥일랑가  
응차지가 눈일랑가  
상견발이 발일랑가  
혼창은 얼다두고  
혼창이로 나를 봉가  
손에 손짓 어따 두고  
발에 발로 나를 찬가  
호줄이 밤 바꾸리  
밤을 기레 못살것네  
장롱에다 옷을 두고  
옷을 기레 못살것네  
강강술래

## <술래소리>

(메)술래

(반)술래

술래술래가 술래야  
엄매를 기레서 길상사  
이모를 기레서 모초단  
장인장모 강호단  
취남남매 맹호단  
고부고부 머릿고부  
고부나 칭칭 맹게서  
잘잘이 짚새기  
충청도 비단은 꽃샘추  
이 비단 처 비단 다해도  
연초모초가 상일래라

술래

술래술래가 술래야  
가지 많고 키 큰 나무  
바람 잘 새 킁히 없고  
물꼬 밑에 꼽사리는  
가뭇이 들까 수심이요  
동네 일초 낭부자는  
도둑이 들까 수심이요  
삼대 독자 외아들은  
병이 날까 수심이요

술래

술래술래가 술래야  
술래  
술래술래가 술래야  
술래소리 어디갔나  
때만 찾아 잘도온다  
함박쫄박 시집가  
종갈이 나도가  
애린 것이 어찌를 가  
오글떼글 궁글러가  
궁글러간다 논고동  
주워올려라 논고동

요새 신식 청년들은다  
요새 신식 청년들은  
하지깡래가 멋들어  
요시 신식 처녀들은  
구두 신기가 멋들어  
요시 신식 엄마들은  
빠마 머리가 멋들어  
술래  
높은 나무 앓은 새는  
바람이 불까 수심이고  
물꼬밑에 곱사리는  
바람불까 수심이다  
술래술래가 술래야  
술래소리 어디갔다  
때만 찾아 잘도온다  
외 외광목 킷커구리  
나미단 끝등을 달고요  
지름머리를 단장해  
행수내만 나노라  
이산저산 도라지꽃  
바람에 살짝 날리고요  
꼬추장 단지도 날리리  
간장 단지도 날리리  
니가 내사랑 아니냐  
술래  
술래  
술래술래가 술래야  
술래

6.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편-, MBC, 1993.

CD· 19-5

해남 강강술래·1

(1990. 1. 19 / 산이면 금호도 / 앞소리 : 이하님, 여, 1924)

<강소리>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오동추야 달은 밝고  
강강 수월래  
동네 청춘 과부들은  
강강 수월래  
맘 빈해까<sup>32)</sup> 수심이오

<잡은소리>

강강 수월래  
강강 수월래  
웃집 큰아야 잘 있그라  
강강 수월래  
아랫집 큰아야 잘 있그라  
강강 수월래  
고양미<sup>33)</sup> 삼백척은  
강강 수월래  
부친 앞에 사주하고  
강강 수월래  
임당수 지수기로<sup>34)</sup>  
강강 수월래  
이내 몸을 팔려간다  
강강 수월래  
뱃머리에 우쪽 서서

32) 빈해까 : 변할까.

33) 고양미 : 공양미.

34) 임당수 지수기로 → 인당수 지수기로. '지수기로'의 뜻은 모름.

강강 수월래  
 두야 손을 함당하면<sup>35)</sup>  
 강강 수월래  
 비나리오 비나리오  
 강강 수월래  
 하나임전 비나리오  
 강강 수월래  
 심청이는 죽드래도  
 강강 수월래  
 안맹하신<sup>36)</sup> 우리 부친  
 강강 수월래  
 눈 뜨기만 바라오요  
 강강 수월래

### 〈술래소리〉

술래  
 술래  
 짐동지네<sup>37)</sup> 막내딸년  
 수월래  
 시집가든 사흘만에  
 수월래  
 모 하러를<sup>38)</sup> 가라라네  
 수월래  
 분질같은<sup>39)</sup> 이내 다리  
 수월래  
 거등거등 걸어쥐고  
 수월래  
 모폭지를<sup>40)</sup> 갈라쥐고  
 수월래  
 담상담상 심계가니

---

35) 함당하면 : 합장하면.

36) 안맹(眼盲)하신.

37) 짐동지 : 김동지.

38) 모 하러를 : 모일하러.

39) 분질 : 분걸.

40) 모폭지 : 모포기.

수월래  
 잔비는 부실부실  
 수월래  
 굵은 비는 담상담상  
 수월래  
 거등보소<sup>41)</sup> 거등보소  
 수월래  
 씨아버니 거등보소  
 수월래  
 가래착을<sup>42)</sup> 들쳐미고  
 수월래  
 물꼬 단속 나오신다  
 수월래  
 에라 요것 못하겠다  
 수월래  
 마당 간대 들어쳐쳐  
 수월래  
 배뻬<sup>43)</sup> 방에 들어쳐쳐  
 수월래  
 비상 사불을<sup>44)</sup>  
 수월래  
 이것을 묵을꺼나  
 수월래  
 이야 시상을 말을꺼나<sup>45)</sup>  
 수월래  
 그놈 한번 훌쩍 마세  
 수월래  
 이야 시상이 말었구나  
 수월래  
 처당선부<sup>46)</sup> 오시드니  
 수월래

41) 거등보소 → 거동(舉動)보소.

42) 가래착 : 가래장부. 가래날을 끼우지 아니한 가래의 나무 부분 전체. 가래는 삽과 비슷하나 날을 끼운 넓적한 몸에 긴 자루를 박고, 몸 양편에 구멍을 뚫고 줄(가래줄)을 매어, 한 사람이 자루를 잡고 흙을 떠서 밀면 두사람이 그 줄을 잡아당기어 흙을 던지게 되어 있는 농기구.

43) 배뻬 → 바뻬.

44) 비상사불 → 비상사발.

45) 이야시상을 말을꺼나 : '이 세상을 떠날꺼나'라는 뜻.

46) 처당선부 : 처당선비.

시집살이 되닥 하드니<sup>47)</sup>

수월래

낮잠자기 웬일이오

수월래

분질같은 이내 발로

수월래

이리 차고 커리 차도

수월래

그래해도 안 인나고

수월래

아랫방에 아버님도

수월래

이리 쪼끔 오시시오

수월래

커 건네 김치방도

수월래

쟁기 연장 거그 두고

수월래

이리 쪼칸 건네오소

수월래

쟁인 장모 알고 보먼

수월래

관사일을<sup>48)</sup> 어찌하까

수월래

취남남매 알고 보먼

수월래

송사일을<sup>49)</sup> 어쩔꼬나

수월래

활등같은 굵은 절로

수월래

치상 난매나<sup>50)</sup> 걸게 치소

수월래

수월래

수월래

---

47) 되닥 하드니 : 되다고 하더니.

48) 관사(官事) : 관청에 관계되는 일.

49) 송사(訟事) : 백성끼리의 분쟁에서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기를 관부에 호소하던 일.

50) 치상 난매(治喪-) : 치상은 초상을 치름. 난매의 뜻은 모름.

■ 옛날에는 추석이나 정월대보름 저녁에 부녀자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려 밤새도록 돌며 놀았다. 여러 가지 놀이가 엮어지는데, 놀이 순서와 종류는 <진강강>-<자진강강>-<달맞이(지와밧기)>-<고사리경기>-<수건돌리기>-<청어엮기>-<문쥐새끼> 등이었다고 한다.

CD·19-6

## 해남 강강술래·2

(1990. 1. 16 / 문내면 우수영 / 앞소리 : 김길임, 여, 1927, 박양애, 여, 1935)

### <중 강강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술래술래 강강술래  
강강 술래  
술래소리 어디 갔다  
강강 술래  
때만 찾아 잘도 온다  
강강 술래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강강 술래  
절에 사람 보기 좋게  
강강 술래  
허리 늘진 골라치치  
강강 술래  
옥신옥신 뛰어 보세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 <긴 강강술래>

강강 수울래  
강강 수울래  
재 너메다 입을 두고  
강강 수울래  
낮이로는 놀러가고  
강강 수울래  
밤이로는 자러가고  
강강 수울래  
미라 빌창<sup>51)</sup> 대북방에<sup>52)</sup>

강강 수울래  
수께 켜뵈 굴린 소리<sup>53)</sup>  
강강 수울래  
본취 간장 다 녹이네  
강강 수울래

〈중 강강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양에 양에 양님이네  
강강 술래  
시집 가든 삼일만에  
강강 술래  
바느질을 하락하여  
강강 술래  
기와 지름<sup>54)</sup> 불을 키고  
강강 술래  
썰 뉘비고 짓<sup>55)</sup> 뉘비고  
강강 술래  
소매 반동<sup>56)</sup> 다 뉘빈께  
강강 술래  
건넛 강에<sup>57)</sup> 닭이 울고  
강강 술래  
아랫 강에 개가 짚어  
강강 술래  
잠이 올라<sup>58)</sup> 잠 잤드니  
강강 술래  
시아버니 호령소리

51) 밀아빌창 → 밀아밀창. 밀창은 미담이 창.

52) 대복방 : 도배가 잘 된 방.

53) 수께 제뵈 굴린소리 : 수저 젓가락 구르는 소리. 여기서 ‘구르다’는 아랫바닥이 울리도록 마구 내리 디디다.

54) 기와지름 : 에우지름. 고기의 창자를 따내서 기름을 내어 심지에 먹여 불을 켜.

55) 짓 : 깎.

56) 반동 : 반, 반절.

57) 건넛강, 아랫강 : 건넛마을. 아랫마을. 강이나 마을의 경계가 되는 데서 나온 말.

58) 잠이 올라 : 잠이 올라. 잠이 와서

강강 술래  
 시어머니 기결소리<sup>59)</sup>  
 강강 술래  
 에라 이것 못 살것네  
 강강 술래  
 공과낙수<sup>60)</sup> 들쳐미고  
 강강 술래  
 비네재를<sup>61)</sup> 넘어가서  
 강강 술래  
 졸북 한나<sup>62)</sup> 남아다가  
 강강 술래  
 짚불에다 구워먹고  
 강강 술래  
 잠든 듯이 죽어지세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서울 가서 배 떠다가  
 강강 술래  
 강안도 가서 다듬아서  
 강강 술래  
 천주 가서 물을 덜어  
 강강 술래  
 울울이 가채질에  
 강강 술래  
 성제<sup>63)</sup> 성제 바느질에  
 강강 술래  
 이실이실 이실아척<sup>64)</sup>  
 강강 술래  
 대루미에 뺨을 맞춰<sup>65)</sup>  
 강강 술래  
 입자니는 고부지고

59) 기결소리 : 나무라는 소리. '기결하다'는 나무라다.

60) 공과낙수 → 공과낙시 : 대나무로 만든 낙시.

61) 비네재 : 폭이 좁은 고개.

62) 졸북 : 참복과에 속하는 바닷물 고기로 맹독이 있음.

63) 성제 : 형제.

64) 이실아척 : 이슬이 내린 아침.

65) 이실이실 ~뺨을 맞춰 : 이슬이 내린 아침에 습기가 많아 다리미질이 잘 됨.

강강 술래  
 개자니는 고부쳐서<sup>66)</sup>  
 강강 술래  
 햇대 끝에 걸어놓고  
 강강 술래  
 들맹 보고 날맹 본디  
 강강 술래  
 여시같은 씨누애기  
 강강 술래  
 때칼칼을<sup>67)</sup> 품에 품고  
 강강 술래  
 울울이 다 찢는다  
 강강 술래  
 직기사라 찢네마는  
 강강 술래  
 줍기 좋게<sup>68)</sup> 찢어주게  
 강강 술래  
 들어보고 들어보소  
 강강 술래  
 서당선배<sup>69)</sup> 들어보소  
 강강 술래  
 기결하게 기결하게  
 강강 술래  
 느그 동승 기결하게  
 강강 술래  
 기결해서 안 듣그등  
 강강 술래  
 날 베르게<sup>70)</sup> 날 베르게  
 강강 술래  
 활등같이 굵은 질로  
 강강 술래  
 활 쏘테끼<sup>71)</sup> 나는 가네  
 강강 술래

66) 입자니는 ~ 고부쳐서 : 입자하니(는) 구겨지고 개자 하니(는) 구겨져서.

67) 때깎칼 : 때끼칼. 작은 칼.

68) 줍기 좋게 : 깎기 좋게.

69) 서당선배 : 서당선비.

70) 베르게 : 버리게.

71) 활 쏘테끼 : 활 쏘듯이.

〈짖은 강강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뛰어보케 뛰어보케  
강강 술래  
옥신악신 뛰어나 보케  
강강 술래  
나주 영산 진 골목에  
강강 술래  
은포가리<sup>72)</sup> 팔에 걸고  
강강 술래  
지추캐는<sup>73)</sup> 쪼 큰아가  
강강 술래  
니야 집이 너 어데냐  
강강 술래  
내아 집을 찾을라먼  
강강 술래  
거멍 구름 반골속에<sup>74)</sup>  
강강 술래  
열두칸 지와집에  
강강 술래  
아홉칸 대북방에  
강강 술래  
화초벙퐁 둘러치고  
강강 술래  
너 귀에다 핑경 달고<sup>75)</sup>  
강강 술래  
흥그랑 짱그랑 그 소리 듣고  
강강 술래  
날만 차장오게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72) 은포가리 : 은포아리. 좋은 포아리라는 뜻.

73) 지추 → 지치. 지초(芝草) : 여러해살이 풀로 뿌리를 약용 및 자색 염료로 사용함.

74) 반골 : (뜻 모름).

75) 니 귀에다 핑경달고 : 네 귀에다 풍경달고.

천장만장 달피머리<sup>76)</sup>  
 강강 술래  
 쭈시비단<sup>77)</sup> 꽃이 피어  
 강강 술래  
 그 꽃 한쌍 꺾커다가  
 강강 술래  
 임으 보신 불을 걸어<sup>78)</sup>  
 강강 술래  
 음을 보고 보신 보니  
 강강 술래  
 임 즐 생각 천히 없네  
 강강 술래  
 임의 등승 씨아케야  
 강강 술래  
 너나 신고 공부가세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 <남생아 놀아라>

나무생아<sup>79)</sup> 놀아라 줄래 줄래가 잘 논다  
 나무생아 놀아라 줄래 줄래가 잘 논다

---

76) 달피머리 : 쪽진 머리.

77) 쭈시비단 → 수수비단 : 비단의 일종.

78) 불을 걸어 : 버선의 바닥. 또는 버선 앞 뒤의 바닥이 꿰졌을 때 덧대어 깎는 형겅조각인 불을 대어 기워.

79) 나무 생아 → 남생아 : 남생이는 남새이과의 민물에 사는 파충류.

### <고사리꼭기>

고사리 대사리<sup>80)</sup>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 뽕뽕 재미나 녀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 뽕뽕 재미나 녀자 아장장장 벌이여  
쟁자 쟁자 고사리 대사리 쟁자  
수양산 고사리 쟁커다가 우리 아배 반찬하케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 뽕뽕 재미나 녀자 아장장장 벌이여  
쟁자 쟁자 고사리 대사리 쟁자  
지리산 고사리 쟁커다가 우리 어매 반찬하케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 뽕뽕 재미나 녀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뽕뽕 재미나 녀자 아장장장 벌이여  
    고사리 대사리 쟁자 나무 대사리 쟁자  
    유자 뽕뽕 재미나 녀자 아장장장 벌이여

### <청애엮기>

청 청 청애 영자<sup>81)</sup> 위도 구산 청애 영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영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영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영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영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영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풀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풀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풀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풀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풀자  
    청 청 청애 영자 위도 구산 청애 풀자

---

80) 대사리 : 큰고사리.

81) 청애영자 : 청어 엮자.

### <기외뵤기>

어뢀골 지환가<sup>82)</sup> 장자 장자골<sup>83)</sup> 지화세  
어뢀골 지원가 장자 장자골 지화세

“지외 뵤세.” “자.”

어뢀골 지환가  
장자골 지화세  
멧 닷냥 쳤는가  
시물 닷냥 쳤네  
어뢀골 지환가  
컨라도 지화세  
어뢀골 지환가  
장자골 지화세  
멧닷냥 쳤는가  
시물닷냥 쳤네  
어디술 지환가  
장자골 지화세

### <덕석물기>

물자 물자<sup>84)</sup> 덕석 물자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물자 물자 덕석 물자

---

82) 지환가 : 기화인가.

83) 장자골(長者-) : 장자, 죽 부자가 사는 동네.

84) 덕석 물자 : 덕석 말자. 덕석은 추위를 막기 위해 소의 등에 덮어주던 멍석과 비슷한 물건.

물자 물자 덕석 물자  
 물자 물자 덕석 물자

<진주새끼>

진주 새끼<sup>85)</sup> 질룩 째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 새끼 질룩 째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 새끼 질룩 째룩 가사리 벗이여  
 진주 새끼 질룩 째룩 가사리 벗이여

( “꼬리 따케” “자” “위” )

잡었네 자벗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평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sup>86)</sup>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평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콩콩 천라도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평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평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콩콩 천라도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평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잡었네 잡었네 진주새끼를 잡었네  
 콩한나 풀한나 평겼더니 콩차두 풀차두 되었네

85) 진주새끼 → 진쥐새끼 : 들쥐.

86) 콩한나~되었네 : 콩 하나 팔 하나 던졌더니 콩자루 팔자루 되었네.

<대문열기>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열쇠 없어 못 열겠네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열쇠 없어 못 열겠네

<가마타기>

( “가마타케” “자” “위” )  
( “가마 띠케” “자” )  
오동추여 달은 밝고  
위위 에헤헤 에헤헤 어허허 허 어허허  
위위  
임의 생각 철로 난다  
위위 에헤헤 에헤헤 어허허 허 어허허  
위위  
굶은 독은<sup>87)</sup> 넘어 달고  
암은 그럴케  
잔잔독 밟아가게  
암은 그럴케  
  
( “쉬어가게” “자” )

---

87) 굶은 독 → 굶은 돌.

〈짖은 강강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술래 술래 강강술래  
강강 술래  
취 건네 묵은 발에  
강강 술래  
쟁기 없어 묵었는가  
강강 술래  
임자 없어 묵었는가  
강강 술래  
잘 된 데는 차조 같고  
강강 술래  
못 된 데는 모조 같아<sup>88)</sup>  
강강 술래  
머리 머리 돈부심어<sup>89)</sup>  
강강 술래  
돈부 따는 취 큰아가  
강강 술래  
니 머리 끝에 디린 땡기  
강강 술래  
공단 이냐 비단이나  
강강 술래  
공단이면 멧을 하고  
강강 술래  
대단이면<sup>90)</sup> 멧을 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떨아 떨아 막내 떨아  
강강 술래  
맨 발 벗고 샘에 가냐  
강강 술래

---

88) 모조 → 메조.

89) 돈부 → 동부 : 콩과의 식물.

90) 대단(大緞) : 중국에서 나는 비단의 일종.

헛논 풀아 종 사주리  
     강강 술래  
 헛밭 풀아 신사주리  
     강강 술래  
 종도 싫고 신도 싫고  
     강강 술래  
 오동나무 장롱에다  
     강강 술래  
 갓인 장석<sup>91)</sup> 걸어 놓고  
     강강 술래  
 날과 같은 임사주게  
     강강 술래

**<중 강강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술래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수숫대야<sup>92)</sup> 시망구야<sup>93)</sup>  
     강강 술래  
 맘에 동동 우리 엄매  
     강강 술래  
 어느 골 가 이별하고  
     강강 술래  
 날 크는 줄 모르는가  
     강강 술래  
 널 크는 줄 안다마는  
     강강 술래  
 가고 잡아<sup>94)</sup> 내가 갔냐  
     강강 술래  
 차마 처러 내가 갔네  
     강강 술래

---

91) 갓인 장석 → 갓은 장석 : 장식은 장롱 따위에 붙이는 쇠붙이.

92) 수숫대 → 수숫대.

93) 시망구 : 사람이름.

94) 가고 잡아 : 가고 싶어.

강강 수올래  
강강 솔래

〈솔래소리〉 (앞소리 : 박양애, 여, 1935)

솔래  
    솔래  
솔래 솔래가 솔래야  
    솔래  
엄매를 기러쳐 길상사  
    솔래  
이모를 기러쳐 모초단  
    솔래  
쟁인 장모 강호단  
    솔래  
취남 남매 맹호단<sup>95)</sup>  
    솔래  
고부 고부 머릿고부<sup>96)</sup>  
    솔래  
고부나 칭칭 냉게쳐  
    솔래  
잘잘이 짚새기  
    솔래  
밭이나 벗고도 더 좋네  
    솔래  
강원도 비단은 모시비단  
    솔래  
충청도 비단은 곱쌔추<sup>97)</sup>  
    솔래  
이 비단 저 비단 다 해다  
    솔래  
연초 모초가<sup>98)</sup> 상일래라  
    솔래

95) 길상사~맹호단 : 길상사, 모초단, 강호단, 맹호단은 비단의 이름.

96) 머릿고부 : 머리를 딸아서 생긴 굵이.

97) 곱쌔추 : 얇은 비단의 일종.

98) 연초모초 : 얇은 비단의 일종.

연지야 밝아라 베슬가자<sup>99)</sup>  
 술래  
 사람의 손발을 아니라도  
 술래  
 가는 부모는 내 못 잡어  
 술래  
 커 달은 등실 높이 떠  
 술래  
 장부 심간을<sup>100)</sup> 다 녹인다  
 술래  
 높은 나무 앓은 새는  
 술래  
 바람이 불까 수심이오  
 술래  
 물꼬 밑에 꼽사리는<sup>101)</sup>  
 술래  
 가뭄이 들까 수심이오  
 술래  
 동네 일절<sup>102)</sup> 왕부자는  
 술래  
 도둑이 들까 수심이오  
 술래  
 뻥 듯 뻥 듯 솔나무는  
 술래  
 지등감이로 다 뽑히고  
 술래  
 반 듯 반 듯 청년들  
 술래  
 구인감이로 다 뽑히네  
 술래  
 외 외강목<sup>103)</sup> 컵커구리  
 술래  
 나비단<sup>104)</sup> 끌동을<sup>105)</sup> 달고요

99) 연지야~베슬가자 : (뜻 모름).

100) 심간(心肝) : 심장과 간장. 마음 속.

101) 꼽사리 : 물꼬에 사는 민물고기.

102) 동네 일절 : '동네 일촌(一村)'의 와전인 듯.

103) 외강목 → 옥양목(玉洋木).

104) 나비단 : 남비단. 남색 비단.

술래  
 지름 머리를 단장해  
 술래  
 행수내만<sup>106)</sup> 나노라  
 술래  
 이 산 저 산 도라지꽃  
 술래  
 바람에 살짝 날리고요  
 술래  
 꼬치장 단지도 날리리  
 술래  
 간장 단지도 날리리  
 술래  
 니가 내 사랑 아니냐  
 술래  
 술래  
 술래

■ 김길임(여, 1927) : 해남군 우수영 선두리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적부터 돌아  
 가신 친정어머니에게서 강강술래 같은 노래들을 듣고 익혔는데, 밤에 어머니에게  
 들은 노래를 아침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불러보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친  
 정아버지, 오빠들도 노래부르기를 즐겨해 마을에서 ‘단골네집’ 소리를 듣기도 했다  
 고 한다. 197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 강강술래의 앞소리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다.

■ 추석명절, 오월단오, 유월유두, 칠월백중, 정월대보름 명절 때 부녀자들이 같이  
 모여 노는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이다. 놀이 구성원은 주로 부녀자 중심이지  
 만 가끔 동네 총각들이 장난삼아 끼어들기도 했다고 한다. 대개 저녁에 모여 놀기  
 시작하는데 ‘달이 떴다 지도록’ 논다. 김길임씨 기억에 의하면 해방 후부터 마을에  
 서 차츰 이 놀이가 사라졌다고 한다.〈긴강강술래〉-〈중강강술래〉-〈짧은강강술래〉-  
 〈남생아놀아라〉-〈고사리썬기〉-〈청애엮기〉-〈지와밧기〉-〈덕석몰기〉-〈왼쥐새끼〉-  
 〈문열기〉-〈바늘귀꿍기〉-〈가마타기〉-〈짧은강강술래〉 순으로 진행된다. 이 마을의  
 〈강강술래〉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105) 끝동 : 옷소매의 끝에 색이 있는 천으로 따로 이어서 댄 동.

106) 행수내 → 향수내(香水-).

## 2. 강강술래 관련 신문기사 검색 (1920~1980년대)

\*네이버 뉴스라이브리(<http://newslibrary.naver.com/>)에 강강술래, 강강수월래, 해남 강강술래, 우수영 강강술래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한 신문 기사 개요를 간추렸음.

연번	제목	신문	연월일자	주 내용	비고	사진
1	휴지통	동아일보	1923.03.26	우수영 청년들이 정월이 되면 보름달을 구경하러 이순신장군 비각 근처로 모이는데 그때 비석 안에서 땀이 났다고 하는 등 괴상한 풍설이 돌고 있음	해남	
2	동무	동아일보	1930.11.02	김완동이라는 시인이 강강술래를 주제로 <동무>라는 시의 전문이 실림		
3	농촌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건(십육) - 특히 전승오악과 장래오악 관계에 취하여, 십육, 송석하	동아일보	1935.07.10	세계의 민속무용에 대해 설명하며 농촌오악의 발달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함		
4	농촌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건(십사) - 특히 전승오악과 장래오악 관계에 취하여, 십사, 송석하	동아일보	1935.07.07	강강술래의 방식과 유래(이순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함. 전라도의 강강수월래는 여자의 것이고 경상도의 쾌치나칭칭나네는 남자의 것임이 서로 다른 점이라는 주장		
5	농촌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건(이) - 특히 전승오악과 장래오악 관계에 취하여, 십사, 송석하	동아일보	1935.06.23	개인과 민족의 면모가 다른 것처럼 오락에 있어서도 민족의 기호도 다르며 같은 민족에서도 그 지방, 연령, 성별, 외립장을 달리한데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6	일년 중에 제일 좋은 팔월한가위 새곡실 새과실로 성묘하고 농촌에 없지 못 할 즐거운날	동아일보	1935.09.13	강강수월래는 전남 해안지방에서 성대히 지내는 습관인데 이순신이 해상전투를 할 때 일반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출정하는 군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자들이 부르던 노래다. 당시를 추억하기 위해 덤지도 춤지도 않은 좋은 만월밤을 택해 연중행사로 지내는 것이며 이는 매우 장려할만한 일임.		

7	취미강연 삼십일후팔, 00, 이극노	동아일보	1938.08.30	경기도의 산대가면극, 충청도의 '숫대' 점풍, 강원도의 성황빌기, 황해도의 봉산탈춤, 평안도의 복도, 함경도의 함흥만세교 답교, 경상도의 영동할머니, 전라도의 만두레, 강강수월래 등 팔도의 지방 풍습이 매우 많음. 이를 통해 서로 무엇을 주고 받던 향토정신의 교류를 찾을 수 있음		
8	호남의 민속, 강강술래, 최상수	경향신문	1947.02.20	강강술래는 호남지방의 특유한 습속이다. 화순, 영광, 무안, 담양, 목포의 강강술래 사설을 일부 적어놓음		
9	각지소교운동	동아일보	1938.10.21	연중행사인 해남 해리 소학교에서 추계 운동회를 10월 8일에 개최하였는데, 때마침 추석 명절이라 사방에서 모여든 관중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흥미진진한 60여종의 운동경기로 대성황을 이뤘음		
10	한국의 세시풍속 연중행사기 (28)	동아일보	1957.02.13	추석의 어휘 유래와 추석 음식, 강강술래, 이순신장군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언급. 화순지방의 강강술래 사설을 조금 적어놓음.		
11	환고향하는 총무공대첩비	동아일보	1946.03.11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 해남 문내면에 세운 총무공 명량대첩비가 사라짐. 지역 유지들이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서울국립박물관 근정전 복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총무공 복구 기성회를 조직하여 반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경비 등의 문제로 전국적인 기금 협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 비석사진 有		사진
12	명량대첩 기념식	동아일보	1957.11.13	명량대첩 육주갑 기념제가 거행되었음.		
13	각도대표출연종목 발표	동아일보	1961.09.24	공보부는 중추절 및 9.28 서울 수복기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할 각도 대표의 출연 종목과 일정을 발표		
14	낙도의 건설보 우산도 방파제현지보고	동아일보	1961.06.01	장흥에 소속된 우산도라는 섬이다. 방파제가 연결되어 육지로 굳이 시집을 가려고 애태우지 않아도 되며, 일 년에 두 차례 정월 대보름과 추석날에 강강수월래를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어, 섬 처녀 여인들이 만족스러워 했다. 총무공의 전적지로 유서깊은 우수영이 섬에서 멀지 않으므로 이곳 아가씨들 역시 해남이나 완도 등지처럼 민속 원무인		사진

				강강수월래가 전용적인 놀이가 되었지만 지난 수년간 독 공사 때문에 중단했던 것을 이번 가을부터 부활시키기로 했다.		
15	生活의 點描	동아일보	1961.10.04	공보부 주최의 중추절 경축 9.28 수복기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난 구월 이십사일부터 육일간 덕수궁과 삼일당에서 개최되었다. 전남의 강강수월래는 수피아 여고생 사십명의 아름다운 원무로 이루어졌다. (후기)		
16	전남도의 강강수월래와 흥겨운 충북 농악	동아일보	1961.09.27	전남의 「강강수월래」 호남 고유의 춤으로 전남 대표 수피아여고 40명(지도교사 오천)의 조용(組踊)은 문자 그대로 선경에 가깝다하겠다. 소리고운 「푸리마돈나」 김금자 양이 선창하자 색동저고리, 호장저고리에 주홍치마를 입고 「강강수월래」를 후창하는 모습은 온 중화전을 황홀케 한다. ... 부자연한 쇼맨쉽이 약간 발휘되기는 하나 61년도 경연 때 고무신이 벗겨진 경험을 살려 이번에는 신을 동여매고 무대에 나온 것은 큰 전진이라고 하겠고 김오채 군의 서서 치는 입장고는 먼젓번 개인상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해남	사진
17	郷土놀이를 復活하자	동아일보	1961.08.17	중요한 놀이를 간추려 보면 정월 대보름 행사로는 전라도 해안지대에는 팔월 한가윗 밤에 부녀자들만이 원을 그리면서 노래와 춤으로 즐기던 강강수월래의 약속을 들 수 있다.		
18	黃海道 鳳山탈춤 우승	동아일보	1961.10.01	공보부는 三日하 오 九: 二八 수복 및 중추절 경축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우승에 黃海道 鳳山탈춤 내각 수반상에 全北 농악이라고 심사 결과 발표하였다. 또 공보부 장관상에 慶南 오광대와 全南의 강강수월래가 뽑혔다.		
19	덕수궁에 꽃수를 놓은 전남여고의 강강수월래	동아일보	1965.10.30	29일 덕수궁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에서 전남여고 학생들이 펼친 강강수월래 사진 수록		사진
20	민족예술경연 29일 덕수궁에서 열려	경향신문	1965.10.27	공보부와 예총이 주관한 민족예술경연이 29일에 열린다. 첫째날인 29일에 전남의 강강수월래가 진행됨		

21	29일 추석명절	매일신문	1966.09.28	29일 추석명절은 저녁에 아이들이 만세재끼를 하고 강강수월래를 부르며 하룻밤을 즐긴다. 강강수월래를 남도의 목포·무안·해남·영광·장흥·순천·보성·화순 등 해안 일대와 완도·진도와 같은 섬에서 성행하는 무용가의 하나라고 소개함		
22	강강수월래 남녘 여자들의 민속놀이	경향신문	1966.10.24	강강수월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우리 수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적을 경계시키기 위해 높은 산에 부녀자들을 모아 원무를 추게 한 것이 유래임.		사진
23	강강수월래 無形文化財로	경향신문	1966.03.14	광주 진도군 고군면 양홍도씨 외 해남군 문내면 사람들이 함께 부른 강강수월래 창은 지난 2월 21일 문교부에서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다고 12일 도교육위원회에 통고되었다.	해남	
24	대통령상의 전북 농악	경향신문	1966.10.25	제7회 민족예술경연 22일부터 연 사흘간 전국 25개 팀이 겨룬 제 7회 민족예술경연 대회는 최고 영예의 대통령상을 전북 농악이 차지, 전남의 강강수월래는 단체 공로상을 수상했다.		
25	민속의 찬가	동아일보	1966.05.17	5.16혁명 및 동 민족상기념예술제가 장충 체육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시민 8천명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호화롭게 진행. 이날 강강수월래의 공연은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26	창경원서 민예공연	경향신문	1966.10.06	문화재 애호 기간에 문화재 관리국은 문화재 애호기간을 맞아 오늘 8일 하오 5시부터 11시까지 창경원 야외무대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판소리 춘향가, 농악 12차, 강강수월래 등을 공연.		
27	날품팔이하는 人間文化財	동아일보	1967.04.03	날품팔이하는 인간문화재 강강수월래의 주인공 양홍도여사		사진
28	保護의 손길이 아쉬운 無形文化財	동아일보	1967.11.02	몇 부분만 겨우 명맥 유지, 지정만 한 채 방치. 강강수월래의 無形文化財 양홍도씨의 생활도 빈곤		
29	外交使節 초대연	매일신문	1967.09.18	공보부 장관이 중추절 18일 하오 7시에 유엔 군장성을 포함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대, 강강수월래와 가면무용 등 고래의 한국 풍속을 소개.		

30	외국인들을 위한 추석 초대연	경향신문	1967.09.18	공보부 장관은 중추절 18일 하오 7시에 주한 외교사절단과 유엔군 장병을 포함, 외국인들을 초대, 강강수월래등 한국 풍속을 소개.		
31	추석 연휴 겹쳐 한결풍성	경향신문	1967.09.18	가뭄피해가 심각한 전남도민들은 추석을 맞아도 시름이 더함. 강강수월래로 유명한 해남 우수영에서는 추석채비는커녕 마을아가씨들은 식수난으로 물김기에 여념이 없음	해남	
32	原色 속의 강강수월래	경향신문	1967.09.05	일본 유니버시아드 대회 피날레에서 강강수월래를 공연		사진
33	중요 無形文化財 및 명단 강강수월래	동아일보	1967.10.03	(무형문화재 명단 공개) 강강수월래의 양홍도, 김길임, 김금자		
34	국민 모두 건전한 餘暇를. 표준 오락 32종에 강강수월래 선정	경향신문	1969.11.07	퇴폐적 사회풍조를 건전하고 명량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표준 오락 32종을 선정했는데, 그 중 강강수월래가 포함됨		
35	標準 오락을 選定	동아일보	1969.11.07	標準 오락을 選定 강강수월래, 농악, 군밤타령 등이 표준오락에 선정됐다.		
36	표준娛樂 35종 선정 문공부, 장려보급 방침.	매일신문	1969.11.08	7일 국민표준 오락선정종합심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오락에 강강수월래가 포함.		
37	풍성한 祝祭 무드	경향신문	1969.05.02	고려대가 64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아 대강당에서 축제를 펼친다. 축제 5일 중 상오 11시 강강수월래가 펼쳐진다.		
38	국민 표준 娛樂 32종 선정	경향신문	1970.02.11	국민 표준 娛樂선정 장려. 생활의 명령화를 고취, 강강술래, 농악 등 선정됨.		사진
39	사일 단종제를 선두로 곳곳서 지방문화재	동아일보	1970.04.04	강원도 영월군에서 열리는 단종제를 선두로 각지방의 전통적인 문화재가 일제히 열리게 된다. 해남예술제는 5월 1일 = 전남 해남군, 강강수월래 등 민속놀이와 농악 경연 대회가 열림.		
40	수상 작품 기념 공연에서 서라벌 女大生들이	동아일보	1970.09.29	수상 작품 기념 공연에서 서라벌 女大生들이 강강수월래 民族 예술 부문 우수작을 공연.		
41	人間文化財의 保護傳承	동아일보	1970.02.21	세상에 알려진 강강수월래의 양홍도 여사가 날품팔이를 하며 옛장수로 생계를 유지.		

42	인류의 進步와 調和 다지는 엑스포 文化 행사	경향신문	1970.02.21	세계의 民俗, 音樂 쇼 등 총동원 한국선 강강술래가 진행.		
43	즐거운 한가위 강강수월래	동아일보	1970.09.15	강강수월래 돌출광고 그림		
44	개교기념 강강수월래 盛大	경향신문	1971.09.30	29일 성균관대학교 개교 76년 상오 11시 금잔디 동산에서 기념행사가 열림. 여학생 200명을 동원한 강강수월래를 필두로 장대굴리기 등 체육대회를 엄		
45	木浦 예술제	경향신문	1971.09.30	木浦 예술제에서 강강수월래 대회가 10월 8일 木浦 유달 국민교에서 개최된다.		
46	문공부 7월 18일까지 全國 순회 표준 오락 講習	동아일보	1971.06.10	농악 강강술래(중앙대 정병호 교수 지도) 싱잉게임 등 레퍼토리를 갖고 전국 11개시와 각 시도교육위원회 지정 시범학교에서 2일간씩 강습한다.		
47	민속 무용 講習會에서 一人講士 초빙	경향신문	1971.08.18	민속 무용 강습회에서 일인강사를 초빙, 강습내용으로 강강수월래를 설명.		
48	민속예술단 결단	동아일보	1972.08.12	뮌헨올림픽 문화행사인 국제민속예술제에 참가할 한국민속예술단이 결단식을 올리고 강강수월래 이외 22종의 레퍼토리를 갖고 떠나는데, 강강수월래의 한 장면 사진이 실림		사진
49	박대통령 내외 참관 뮌헨민속예술단 시민회관서 공연	경향신문	1972.08.18	민속예술단이 서울시민회관에서 강강술래를 공연한 사진이 실림		사진
50	민속무용에 원더풀	동아일보	1972.06.15	아스팍(아시아태평양이사회) 대표들을 위한 자리의 2부 공연 프로그램인 국악과 민속무용 부분에서 국악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과 신명희 어린이들이 강강수월래 등을 공연할 때 박수갈채를 받았다.		
51	민족예술단 뮌헨서 公演	경향신문	1972.07.29	출연 종목에 강강수월래 등 10종목이 선택		
52	오천만 한민족의 멋과 얼을 가꾸는 특별기획 배달의 습기 (23) 추석과 풍습	경향신문	1972.09.20	남도에는 추석에 여인의 놀이인 강강수월래가 있다. 강강수월래는 밤이 되면 더욱 한창이니 집안에만 갇혀있던 옛날 한국여성으로서 기뻐할 것이다. 구라파각국에서도 절찬을 받고 있으며 한국민족예술단의		사진

				강강수월래에 대해 한국의 영감을 유감없이 나타내는 춤이었다고 표현한 외신지가 있었음		
53	전국을 수 놓는 원색의 민속	경향신문	1973.10.11	오는 23일 열릴 남도문화제에서 도내 26개 시군에서 한 종목 이상의 민속놀이를 출현시켜 경연대회를 여는데 이 중 강강수월래도 포함되어 있음		
54	고유의 미풍양속 추석정취	경향신문	1973.09.10	부녀자들의 율무. 남자는 끼어들 수 없는 강강수월래는 곱게 단장한 부녀자들이 수 십 명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뛰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에서 후렴을 하며 원무 한다.		사진
55	남색치마, 분홍치마 강강수월래 큰 인기	매일신문	1974.10.09	8일 상오 10시 정각에 서울 운동장에서 개막된 제 55회 전국체전에서 신림여중 3백여명의 학생들이 강강수월래를 선보여 인기를 끌었다.		
56	제55회 전국체전 5색 유니포름 물결 속 聖火 타오르다	동아일보	1974.06.08	이 날 2위를 차지한 전남 팀은 오른쪽 어깨에 수림여고 학생들의 강강수월래에 환성과 박수를 보냈다.		
57	대통령상 '영동설계리 농요', 총리상엔 '해남 강강수월래' 전국민속예술공연	경향신문	1975.09.16	15일 하오막을 내린 제 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50만원)은 전남의 '해남 강강수월래' (민속놀이)가 수상했다. 문공부와 예총 공동주최로 지난 13일부터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이북 5도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에서 22개팀이 참가, 각 지방 특유의 민속예술을 선보였다.	해남	사진
58	3개 TV국 특집과 영화가 다양한 추석프로	경향신문	1975.09.19	민요풍 쇼놀려 의의 되새겨 강강수월래등 유래(由來) 알아보고 성묘 가이드 야외녹화로 경쾌무드 살려 외화도 2편 3TV국은 추석명절을 맞은 시청자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들을 마련했다. 금년 추석특집을 보면 대부분 추석의 유래와 의미를 되새기며 민요풍의 쇼를 대폭 늘렸다.		
59	kbs 「새마을 잔치」 (7시35분)	경향신문	1975.05.21	반도의 최남단인 전라남도 해남 반도의 3면 해안을 따라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경과 천년사찰 대흥사, 그리고 고산 윤선도의 집 녹우당을		

				찾는다. 해남 고유 민속놀이인 우수영 부녀자들의 농요, 인간문화재 8호 김길남씨가 지휘해 보여주는 강강수월래 등이 이채롭게 펼쳐진다는 TV프로그램 홍보기사.		
60	온 가족이 모여 조상께 차례	매일신문	1975.09.17	〈민속학자 이두현, 임동권 교수에게 인터뷰하여 강강수월래의 방식을 인터뷰〉		
61	추석 유래와 놀이	경향신문	1975.09.19	추석날 밤에 마을 부녀자들 수십 명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노는 놀이인데 특히 전라남도 해안지방에서 성행했다.		사진
62	제 16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동아일보	1975.09.09	제16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 해남 강강수월래(전남)가 출전	해남	
63	대통령상에 영동농요·단양동요	매일신문	1975.09.16	제 16회 전국민속경연 폐막, 국무총리상(상금50만원)은 전남의 '해남강강수월래(민속놀이)'에 돌아갔다. 수상자 박양애(해남 강강수월래).	해남	
64	막 내린 제 16회 전국 민속 예술경연대회 결산 아쉬운 전래의 멋과 흥취	경향신문	1975.09.16	이북 5도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에서 22개팀 1천 34명이 참가, 5개종목(농악, 민속극, 민속무용, 민속놀이, 민요)에서 각각 고유의 민속예술을 겨룬 올해 대회는 민속 놀이 부문이 활발했고 전남의 해남 강강수월래(민속놀이)는 정리와 구성이 잘 된 것으로 평가됐다.	해남	사진
65	전국 민속예술 경연	경향신문	1975.09.11	제 16회 전국민속예술경연 대회가 문화공보부 예총 공동 주최, 서울시 주관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다. 전남 해남 강강수월래(30분 전남)의 공연순서를 알려주는 기사.		
66	군항제 맞을 진해 벚꽃 활짝	경향신문	1975.03.27	군항제 행사내용을 보면 4월4일부터 진해여고생들의 강강수월래·모던퍼레이드·진해각급학교생이 참가하는 관등행렬·불꽃놀이·카드섹션·해군통제부의 의장대시범이 12일까지 계속되고 특별행사로 군항재행진·옥포만모의해전·시가 일원에서 펼쳐지는 봉화놀이(4월12~19일)로 축제는 피크를 이룬다.		
67	주간연재 보람에 산다(4)	경향신문	1976.11.05	17회 전국민속경연대회대통령상을 해남강강수월래가 수상했다.	해남	

	지춘상 교수			강강수월래의 본 고장인 해남 우수영마을에서도 노래와 놀이 양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강강수월래 가락이 판소리 영향을 받아 변해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 노인들을 하루 한명씩 만나 최대공약수를 뽑아 본 후 본바탕을 찾았다.		
68	16개 시도 25개팀 참가 진주서 전국 민속경연 22일 개막	경향신문	1976.10.18	제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해남강강수월래가 출전했음	해남	
69	17회 전국 민속 경연 폐막 대통령상 “해남 강강수월래”	경향신문	1976.10.25	24일 끝난 제 1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부상1백만원)은 전남도의 「해남 강강수월래」(민속놀이)가 차지했다.		
70	가을 하늘 수놓은 전통 예술잔치 전국 민속예술경연 지상관람	경향신문	1976.10.25	대통령상 해남 강강수월래 <민속놀이, 전남> 부녀자들이 원무를 추면서 노래와 함께 「기와밧기」, 「꼬리따기」, 「가마등」 등 변화 있는 놀이를 곁들인다.	해남	사진
71	올해 전국민속예술 경연 결산 부통예술 보존·전승에 큰 보탬>	경향신문	1976.10.27	16개 시도 대표 25개팀이 참가했던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첫째 과거 대회에서는 입상을 위한 지나친 경쟁 의식으로 출연팀의 대형화, 매스게임화 됐던 폐단이 사라졌다. 출연인원이 1백명 이상되는 종목은 단 2개팀(전북의 「익산금마기」세배)와 전남의 「해남 강강수월래」)뿐이었다. 이는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안정과 전통을 수립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로 관례적으로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에서만 열려왔던 대회가 인구 16만 명의 진주에서 개최된 것은 전국규모의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지방 중소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중략)…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은 「해남 강강수월래」는 원형의 전수가 잘 되었고 세련된 연출과 변화 있는 놀이와 다양한 원무 등이 뛰어나 영예를 차지했다.…(중략)…	해남	
72	대통령상 해남 강강수월래	동아일보	1976.10.25	대통령상 「해남 강강수월래」	해남	사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 폐막			꽃다운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동글게 원을 그리며 손을 잡고 흥겹게 노래와 춤을 추면서 「청어 여자」 놀이를 하고 있다. 종목별 참가인원은 전북의 「익산금마기제배」 1백 10명 해남의 강강수월래는 1백5명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했고 나머지는 대개 30명 안팎이었다.		
73	중요 무형문화재 발표공연	경향신문	1976.10.12	제 9회 중요무형문화재발표공연이 무형문화재보호협회 주최로 15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열린다. 강강수월래가 공연했음.		
74	높아진 소준 알뜰한 수확 민속예술경연대회결산	동아일보	1976.10.26	진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 17회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이번 대회에서 2만여 관중들의 열띤 갈채를 받은 종목은 대통령상을 받은 전남의 '해남 강강술래', 국무총리상을 받은 제주의 '멸치후리는 노래', 새로 발굴된 충남의 '산유화가' 등 종목이었다. 작년에 국무총리상을 받은 전남 '해남강강수월래' 는 작년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보완출연하여 기어이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다흥치마을 입은 처녀 50명, 청치마을 입은 아낙네 50명이 술래를 잡고 30분동안에 걸쳐 강강술래를 연희, 갈채를 받았다.	해남	
75	인간문화재 13명 새로 지정	경향신문	1976.02.27	문화재 위원회는 최근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13명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 새로 지정된 인간문화재는 종묘제례악, 매듭, 양주별산대놀이, 판소리, 승전무, 동래야유, 수영야유, 강릉단오지, 강강수월래등 9개 부문의 기·예능 보유자다. 강강수월래((8호)=최소심		
76	중요 무형문화재 기록화 보전 문화재관리 국서계획 확정	경향신문	1976.09.17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종목(56종)이 올바른 원형보존을 위해 기록화 된다. 문화재 관리국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하고 총 9천만원(국고3천만원, 문예진흥기금 6천만원)을 들여 9월부터 78년까지 중요무형문화재전 종목의 종합적인 기록화는 64년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현재까지 기록화 된 것은 17종의 영화(흑백)음반이 제작되었지만 해설책이나 무보내지 악보등이 구비안된 불완전한 것이었다.		

77	역사의 고전장 총무공의 대첩지 명랑해협	동아일보	1976.07.22	<p>기자가 이순신 장군 우수영 전적지를 취재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흰 저고리에 남색치마를 받쳐입은 마을 아낙네들이 올라와 강강수월래 유희를 실현한다. 작년 전국 민속경연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했다는 우수영 강강수월래 팀은 모두 1백5명. 그러나 농번기여서 이날은 전장금 부인(47)등 7명만 나와서 시현했다. 수 백 년전 선대부터 이 마을에 살아왔다는 전 부인은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실 때 우리 선대 할머니께서도 뛰쳐나가 강강수월래를 추었답니다” 고 자랑한다. 강강수월래는 고대사회에서부터 해남 진도 지방에 전해 내려왔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유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의병 전술로 꾸민 데서 부터였다. 수백 명 밖에 안 되는 군사로 수만 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인 것처럼 꾸미야 했다. 장군은 부근 아낙네까지도 동원, 명랑해협 양 옆 야산에 올려보내 산 아래로 줄을 이어 돌아 내려오게 했다는 것이다.</p>	해남	
78	29일부터 10일간 국립무용단 7都市 공연	경향신문	1977.01.18	<p>국립무용단이 순회공연을 하며 우리민족의 전통적 미풍양속과 우수한 고전예술을 널리 소개함. 지방무대에 올려질 작품은 제1부 소품집(승무 무당춤 강강수월래 농악 가사호접등)과 제2부 무용극 「춘향전」 .</p>		
79	무등 영봉에 원색의 열기 가득 광주 국제 채비 끝내	경향신문	1977.10.06	<p>장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카드 섹션에는 7개 고교 3천 5백명의 학생들이 참가, 특수 화면 14종을 포함한 3백 30개의 화면을 선보이고 해남 강강수월래 팀 2백 50명이 남도의 멋을 보이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p>		
80	58회 국제 환성 속에 성화는 타오르고...	동아일보	1977.10.10	<p>제58회 국가체육제전이 광주에서 열렸는데 이때 해남 문래면 부녀 240명이 강강수월래 공연을 했음. 붉은치마 부녀자 120명, 푸른치마 처녀 120명이 참석했음. 행사의 피날레는 동신여고를 포함한 5개 학교에서 1650명이 모여 강강수월래를 주축으로 우리나라전도를 그리며 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보임.</p>	해남	

81	강강수월래	경향신문	1977.10.10	체전 사상 처음으로 부녀자들의 손으로 연출된 민속놀이 강강수월래가 10일 체전 개막식에서 꽃피워졌다. 강강수월래의 본 고장인 전남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마을 부녀자 2백 50명은 이날 식전 공개행사에서 본바탕의 가락을 직접 창으로 부르면서 정통 강강수월래를 펼쳐 3만관중과 1만 2천여 참가 선수들을 매혹시켰다. 이들은 대부분이 농민 출신으로 10대 처녀에서 50대 할머니까지 참여했지만 통속적인 강강수월래에서 볼 수 없는 갖가지 가락과 놀이들을 연출,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날의 강강수월래는 지춘상교수(45.전남대)가 지난 8년동안 흠어진 가락들과 놀이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집대성한 결정판으로 “전남에서만 보일 수 있는 매스 게임을 펼쳐라” 고건 전남지사의 요청에 의해 빛을 보게 된 것.	해남	사진
82	民俗藝術競演大會 개막	경향신문	1977.10.24	제 18회 전국 민속예술경연 대회 및 제 14회 화흥 문화제가 24일 상오 10시 경기도 수원공 설운동장에서 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 국회 이병희 의원, 손재식 경기도 지사를 비롯, 3만여 관중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막됐다. 26일까지 계속될 이 대회에는 이북 5도를 포함, 16개 시, 도외 대표 22개팀 8백 20여명이 농악 민속극 민속놀이 민속 무용 민요 등 5개 부문에 출연, 월정사 탐돌이 등 우리고유의 전통 예술을 펼친다....(중략)... 이 날 경연이 벌어지기에 앞서 수원 여고생 1천 2백여명이 펼치는 매머드 농악 매스 게임과 성남 제2국 교생들의 농악 및 76년도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해남 강강수월래가 운동장을 화려하게 수놓아 민속 잔치의 흥을 돋우었다.	해남	
83	부진한 무형문화재 보존	동아일보	1977.02.03	기록화되어야할 無形文化財(무형문화재)를 종목별로 보면 음악분야 15종을 비롯,鳳山(봉산)탈춤등 연극분야 10종,晉州劍舞(진주검무)등 무용5종, 나전칠기장등 工藝(공예)15종, 강강수월래등 민속놀이 7종, 朝鮮왕조 등 56종에 이르나 기록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84	북춤에 환호, 앙코오르 연발 한국예술단 런던 공연	동아일보	1977.09.12	첫날公演(공연)엔 夏季休暇(하계휴가)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각계의저명人士(인사)들이 많이참석,성황을 이루었으며 프로그램중 특히 북춤과 강강수월래가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세번이나 앙코르박수가		
85	우리말의 현 주소 강강수월래	동아일보	1977.09.24	강강수월래의 어원에 관해 임진왜란과 그럴듯하게 맺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86	유럽 10개국 순회공연 민속예술단 출국	동아일보	1977.08.22	이번 해외 공연에선鳳山(봉산)탈춤, (金千興(김천흥)안무), 花冠舞(화관무), (宋范(송범)안무)북춤, 부채춤(全瓊(전황)안무), 강강수월래, 무당춤, 살풀이, 農樂(농악), 雅樂(아악), 壽齊天(수제천), 가야금竝唱(병창),침청가대금독주 등이 11월 중순 공연된다.		
87	전국체전 앞으로 닥새... 축제 무드 고조 기대와 설렘에 부푼 광주	동아일보	1977.10.05	제58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시내5개 여고생 1천6백50명이 원색의 한복을 입고나와 남도의 특색인 강강수월래를 주축으로 통일을 상징하는 무궁화 등을 그리며 여성들의 호국정신을 그렸다.		
88	시선뱃노래 등 12종목 첫선	경향신문	1977.10.24	수원에서 개막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해남 강강수월래가 시연했음.	해남	
89	19일부터 21일까지 춘천서 흥겨운 민속예술 공연	경향신문	1978.10.17	제19회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춘천에서 열리는데 이때 해남 강강수월래팀이 시연했음.	해남	
90	江山萬里 鎮海	경향신문	1978.09.27	제16회 진해 군항제의 서제봉행이 끝나면 진해여고생들의 강강수월래로 군항제는 본궤도에 오르는데 군항제 기간 밤하늘은 오색등으로 휘황하게 꾸며진다		
91	세계 속 한국 68년 창단 민속예술단 어제와 오늘	경향신문	1978.08.03	이들의 레퍼터리는 화관무 봉산탈춤 강강수월래승무 북춤 장고춤 부채춤태평무 농악무 판소리등우리고유의 민속예술로 외국인들의 평가는 경이적이다.		
92	진해군항제 개막	경향신문	1979.04.09	진해 군항제가 8일 진해 공설운동장에서 경축식을 시작으로 개막됐다. 이 날 군항제 경축식에서는 군악연주, 의장대시범, 강강수월래, 모던 퍼레이드등 다채로운 행사가 벚꽃이 만발한 곳곳에서 10만인파가 몰려든 가운데 베풀어졌다.		

93	용두국교 교정 서 민속놀이 발표회	동아일보	1979.10.19	서울동부교육구청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20일 오전 10시부터 용두국민 학교 교정에서 민속놀이와 민속무용합동발표회를 갖는다. 이 민속놀이와 민속무용합동발표회에서는 농악놀이, 강강수월래, 부채춤, 검무(고려의 혼), 소고춤과 탈춤 및 현대판 농악놀이 등이 공연 될 예정이다.		
94	한국민속예술단, 영(英)·오(吳) 공연서격찬	경향신문	1979.09.07	문화사절로서 구주지역을 순회공연중인 한국민속예술단이 프랑스의 피네네 민속예술제(8월1일~5일)에 이어 영국과 오스트리아의 민속예술제에 참가, 우리 고유의 농악, 북춤, 승무, 부채춤, 강강수월래등을 공연하여 그 곳 관객은 물론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격찬을 받았다.		
95	국립 무용단 싱가포르 공연 성황	동아일보	1980.12.17	80년도 「싱가포르」 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베풀어진 이번 공연에서는 부채춤, 장고춤, 승무, 강강수월래, 무당춤농악, 대금독주, 가야금병창, 판소리 등이 선을 보였으며 관객들은 여러차례 박수를 보냈다.		
96	마당놀이 전통목 공연	매일신문	1980.05.09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마당놀이 15종(강강술래 포함)을 덕수궁에서 선보인다		
97	文公部(문공부), 22일부터 두 달간 순회공연 亞·中東에 民俗 예술단파견	매일신문	1980.10.21	駐濠洲公報官(주호주공보관) 柳炳熙(유병희)씨를 단장으로 한 이번 민속예술단은 국립무용단원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레퍼터리는 花冠舞(화관무)· 장고춤· 강강수월래· 농악· 가야금병창 등 우리고유의 민속예술로 짜여졌다.		
98	소식	매일신문	1980.11.12	제11회 남도문화제의 행사내용을 보면 海南 강강수월래, 珍島 들노래, 和順寒泉農樂의 示演과 함께民俗놀이· 農樂· 國樂· 민요 경연이 있을 예정이다.	해남	
99	한 뭇 한다. 소극장 운동	동아일보	1980.04.16	소극장에서 탈춤, 마당놀이, 농악, 강강수월래 등을 무대에 올려볼 계획을 지니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		
100	홍콩 아시아예술제에 참가	매일신문	1980.10.21	프로그램 1부: 화관무, 탈춤, 부채춤,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장고춤,		

				무용·비원의 향기, 승무 및 북춤 2부: 마을 처녀 및 강강수월래, 무용·우물가에서, 무당춤, 가야금 병창 수궁가 중에서, 무용 건우·직녀 중에서, 대금독주 요청순일지곡 등		
101	추석 연휴 불만한 tv프로	동아일보	1981.09.10	추석을 맞는 방송국들은 드라마 쇼 묘기 대회 등 나름대로의 특집을 마련, 시청자를 끌어 모으기에 부심하고 있다. 추석 명절에 펼쳐질 kbs와 mbctv의 특집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중략) 100분 쇼 한가위 큰 마당 12일 저녁 7시 55분~9시 한 해의 풍요로운 추수를 조상들에게 감사드리는 잔치로 전남 해남에서 현지로케한 강강수월래를 보여준다.		
102	항맥 고장 문화의 현장을 찾아 해남 하	경향신문	1982.12.18	해남의 무형문화재 강강술래는 76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지역은 대흥사와 녹우당 등 각지에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 솔한 사적들이 흩어져 있는 곳으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103	미풍약속	매일신문	1983.08.29	강강술래는 음력 정월 보름날밤이나 음력 8월 15일 달밤에 부녀자들이 추는 율동적인 춤과 정서적인 노래를 동시에 뜻한다. 30~40명의 부락 여인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군무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강강술래의 분포 지역으로는 남도, 해안 지대의 해남 무안 진도 완도 강진 보성 장흥 고흥 등지와 경상도 영일 의성 그리고 북쪽으로는 황해도 연백까지 분포되어 있다고 하나, 필자는 강원도 초부들의 놀이인 고비고사리 춤과 노래도 놀이나 기원 면에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104	88고속도 개통 광주등 온통 축제 무드	매일신문	1984.06.27	이 날 상오 10시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는 무포 여상관악대, 해남 강강수월래, 함평 농악대, 순천 삼설양궁, 장흥 농악대, 영광 칠산어장놀이, 강진 농고농악대, 나주 디딜방아타령 등 8개 민속놀이 팀과 4만 명의 관중이 참가한 가운데 민속 대축제가 열렸으며 광주 어린이 대공원에서는 상오 8시30분부터 4천여 명의 국교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어린이 글짓기 및 사생대회가 개최됐다.		

105	진도 해남 지방 민요 채집	동아일보	1986.06.12	KBS효과음 채집반은 최근 전남 진도와 해남에서 민요를 채집했다. 채집된 진도의 민요는 전남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서 채집한 남도 들노래 무형문화재 51호, 염장, 진도 만가, 씻김굿 등이며 해남의 민요는 전남 해남군 문내면에서 채집한 강강수월래, 들노래, 물레야 돌아라, 육자배기, 잡요, 사랑가 등이다.		
106	신라시대 가배 놀이서 추석 유래	경향신문	1989.09.12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여인들이 손을 맞잡고 동그랗게 돌아가며 민요선창에 맞춰 강강수월래 하고 후렴을 넣는 강강수월래도 빼놓을 수 없다. 강강수월래는 전라도의 해안지방을 비롯, 경상도 영일, 의성, 황해도의 연백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는 해남, 완도, 진도 등 전남지방에서 이어지고 있다.		
107	추석 연휴 세시풍속 활짝	경향신문	1989.09.15	올 추석에 재현된 세시풍속은 남도 농악을 비롯, 나주 들노래, 승주 당산제, 진도·해남의 강강수월래, 영암 정호제, 등 다양하다. …(중략)… 1백 5명의 부녀자가 참여한 우수영 강강수월래는 풍년에 대한 감사 외에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민속을 원형대로 보존한다는 의지가 담겨 귀성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Ⅵ. 요약 및 제언

### 1.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와 상생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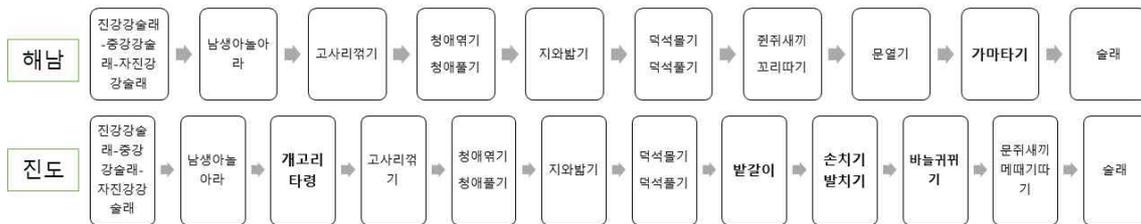
#### 1) 해남·진도 강강술래 분리의 학술적 근거

##### (1) 전승 권역의 차이

- 해남·진도는 별개의 전승지역이므로 상생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전승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해남 우수영과 진도는 서로 다른 전승권인데도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성과 다양성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수활동의 불균형과 지역 간 갈등을 낳고 있다.
  - 강강술래는 마을 단위 또는 복수의 마을 단위로 전승되기 때문에 해남 우수영과 진도 사람들이 함께 강강술래를 하지 않았다. 지정 당시 전승권을 고려하지 않고, 전승단위의 이질성을 의식하지 않고 소리 잘 하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했다. 본래의 전승단위를 회복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개성을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전승공동체·지역사회·지자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 무형문화유산의 창조적인 계승을 위해서 전승공동체와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강강술래의 경우 서로 다른 두 지자체의 무형유산을 한 데 묶어놓은 상태이므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해남 강강술래의 경우, 진도 중심의 통합 관리 체제로 인해 독자적인 전수활동을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를 분리시켜서 각각 전승공동체·지역사회·지자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놀이 구성의 차이

해남과 진도 강강술래는 전체 놀이 구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지역 강강술래를 대표하는 김길임 버전과 조공례 버전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놀이 구성 차이 >

해남 우수영에는 진도에 없는 <가마타기>가 있다. 가마타기는 예전 가마꾼들의 권마성소리를 흥내 낸 것으로 실제 손가마로 친구를 태워주는 놀이이다. 사실적으로 가마꾼소리를 흥내 낸 놀이다. 그러므로 선율이 분명하기보다는 말하듯이 부른다. ‘굵은 독은 넘어닫고 잔잔 독은 밝아가세’와 같은 표현도 가마꾼소리에서 자주 발견되는 대표 가사이다.

반대로 해남에 없으나 진도에 있는 부수놀이는 <개고리타령>, <바늘귀뛰기>, <손치기발치기>, <밭갈이> 등이 있다. 이는 조공례 버전이 진도 강강술래 전승에 공식적으로 수용된 결과다. 조공례는 남도들노래 보유자였지만 강강술래 전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진도 강강술래 예능보유자인 김종심은 여기에 더해 <떡석퍼기>, <강아지타령>, <옥단추> 등을 추가하고 있다.

두 지역 강강술래의 전체 구성이 다른데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에서는 그런 개성을 아예 배제하고 두 지역의 공동분모를 중심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재 강강술래’를 전승하고 있다. 또한 ‘쥐잡는 놀이’에서는 진도의 문쥐새끼와 해남의 꼬리따기를 묘하게 섞어서 하고 있다. 이 결과 문화재팀에서는 해남도 진도도 아닌 주소 불명의 강강술래를 전수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를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전승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놀이 방식과 가사, 음악적 차이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놀이방식과 가사, 음악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놀이 명칭이 같지만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상을 대비하기로 한다.(Ⅲ장 4절의 악보 참고)

	해남	진도
남생아놀아라	나무생아, 줄래 2장단 악구 반복	남생아, 출래, 가사 추가 9장단 단일 악구
고사리꺾기	두 가지 가사 4장단 악구 * 2가지 반복	1가지 가사 4장단 악구 * 1가지 반복
지와밧기	2소박×6 + 3소박×4 2소박×6 × 2장단	2소박×6 + 3소박×4 2소박×6 × 2장단 가사 추가 술 선법 악구 추가
덕석몰기, 덕석풀기	1장단 악구 반복	가사 추가 2장단 악구(a+b, a+b', a+b"형태 반복)
찢쥐새끼, 꼬리따기	찢쥐새끼, 꼬리따세	문쥐새끼, 매때기 따세

<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놀이방식과 음악 차이 >

### <남생아놀아라>

해남의 <남생아놀아라>는 “나무생아 놀아라 줄래줄래가 잘논다” 라는 가사를 놀이가 끝날 때까지 반복하며 음악도 큰 변화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놀이를 하기에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반면 진도는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 의 가사와 함께 “어화색이 저색이” 로 시작하는 긴 가사를 붙여 노래하며 가사의 반복 가창이 없고, 음악 역시 9장단의 독립된 악구로 돼 있으며, 그 안에 별도의 반복적인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남 <남생아놀아라>	진도 <남생아놀아라>
가사	나무생아 놀아라 줄래줄래가 잘논다	남생아 놀아라 출래출래가 잘논다
	동일 가사 무한반복	‘어화색이’ 이하 가사 추가
음악	2장단 악구 무한 반복	반복성 없는 9장단 독립악구

### <고사리꺾기>

해남의 경우 “고사리대사리~아장장장 벌이여” 와 “경자경자~반찬하세” 의 두 선율형이 4장단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비해 진도는 “경자경자~산이나 넘자” 의 한 가지 선율형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남 <고사리꺾기>	진도 <고사리꺾기>
가사	‘고사리대사리~아장장장 벌이여’ ‘경자경자~반찬하세’	‘경자경자~산이나 넘자’
음악	4장단 악구 * 2개 무한 반복	4장단 악구 * 1개 무한 반복

### 〈덕석물기·풀기〉

덕석물기와 풀기의 경우 해남은 1장단의 “물자물자 덕석물자”와 “풀자풀자 덕석물자”의 선율을 반복하여 노래하는 데 비해, 진도는 “비야비야 오지마라 딸밭에 장구친다”와 같은 여러 가사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확대시켜 놓았다. 진도는 2장단이 하나의 악구를 형성하며 이때 앞장단은 매번 같은 것이 반복되지만 뒷장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a+b$ ,  $a+b'$ ,  $a+b''$  형과 같이 선율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남 〈덕석물기·풀기〉	진도 〈덕석물기·풀기〉
가사	‘물자물자 덕석물자’와 ‘풀자풀자 덕석물자’ 반복	‘비야비야 오지마라 딸밭에 장구친다’ 등 가사 추가, 확대
음악	1장단 악구 반복	2장단 악구( $a+b$ , $a+b'$ , $a+b''$ 형태 반복)

### 〈지와밧기〉

해남에는 느린 소리와 자진 소리의 두 가지 지와밧기가 전승되는 데 비해 진도(조공례)의 음원에는 한 가지 유형만 있다. 해남의 두 가지 지와밧기는 2소박×6, 3소박×4의 두 장단을 반복하는 형태와 2소박×6을 두 번 반복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조공례는 2소박×6, 3소박×4의 두 장단을 반복하는 형태만 노래하였다.

	해남 〈지와밧기〉	진도 〈지와밧기〉
가사	‘어딧골 지원가 장자골 지화세’ ‘멧 닷냥 쳤는가 시물 닷냥 쳤네’ 교체 반복	‘어딧골 지원가 장자 장자골 지와세’ 반복
음악	2소박×6 + 3소박×4 2소박×6 × 2장단 두 가지 형태의 박자	2소박×6, 3소박×4의 두 장단 반복

### 〈원쥐새기〉, 〈꼬리따기〉

해남은 원쥐새끼라고 하며, 진도는 문쥐새끼라 부르고 있다. 문쥐새끼를 잡은 이후에 부르는 노래에서도 선율 진행에 차이가 난다. 해남은 “꼬리 따세”라 외치고, 진도는 “메때기(메뚜기) 따세”라고 외친다.

	해남 <찢쥐새끼>, <꼬리따기>	진도 <문쥐새끼>, <매때기따기>
가사	찢쥐새끼 + “꼬리 따세”	문쥐새끼+ “매때기따기”
음악	골격 선율 위주 진행	시김새 추가

\*종합 : 해남과 진도는 전승권역이 다르므로 놀이 구성과 놀이 방식, 음악 등에서 서로 다른 강강술래를 전승해왔다. 하지만 무리하게 둘을 하나로 묶어 놓고 통합 관리하면서 두 지역 강강술래의 개성과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개성이 없는 ‘문화재 강강술래’를 공식적인 버전으로 전수하고 있다.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를 서로 분리시켜 각자의 개성을 회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해남·진도 강강술래의 분리 및 상생 방안

### 1안, 전승종목 번호를 분리해서 별개로 보호하는 방안

#### 2안, 복수 보유단체 구성을 통해 전승활동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방안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전승종목 번호를 분리해서 별개로 보호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연번(가지번호)으로 구분하는 방법과 별도로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제8호 강강술래’를 ‘제8-1호 해남강강술래’와 ‘제8-2호 진도강강술래’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이외에 아예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는, 종목의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지역별 개성이 있고 전승맥락이나 배경이 다른 까닭에 분리해서 보호해야 맞다. 1964년에 지정된 고성오광대(제6호)와 통영오광대(제7호)의 사례처럼 해남과 진도의 강강술래를 각각 따로 지정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통적으로 두 지역 사람들이 추석에 함께 모여 강강술래를 같이 하지 않았다. 문화재 지정 당시 인위적으로 한 데 묶은 것일 뿐이며 서로 다른 전승맥락을 갖고 있다. 두 지역 강강술래의 놀이 구성이나 방법이 다르고 음악도 같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전승번호를 구분해서 두 지역 강강술래가 각각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해남 강강술래의 진흥을 위한 전승 및 교육 환경 구축 방안

### 1) 우수영 현지의 자발적인 연행 및 전승 환경 구축

현재 강강술래 전승단체에서는 지역 주민 또는 스스로를 위해 강강술래를 연행하지 않는다. 대부분 외부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에 맞춰 공연비 지원을 받으면서 공연하고 있다. 외지의 축제나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서도 지자체의 축제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전승환경이 급변하면서 생긴 일이다.

전통적으로 강강술래는 세시풍속 절기에 맞춰 추석을 비롯한 주요 명절에 많이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일상이 예전 농경 시대의 문법과 달라진, 산업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펼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지역문화를 활기차게 전승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 여하튼 지금은 이런 저런 이유로 추석 명절이 되어도 강강술래를 하지 않으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한편 지금처럼 외부의 조건 또는 인위적인 조건이 강강술래 전승의 핵심 요인으로 계속 작동할 경우, 강강술래가 지속적이고 활기차게 전승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강강술래 전승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전승자의 세대적 확산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지금보다 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속 가능한 강강술래 전승을 위해 현지의 자발적인 연행 및 전승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색다른 방식의 축제를 기획해볼 수 있다. 본격적인 논의를 하려면 현실적인 조건을 넓고 깊게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그 전제를 염두에 두고 간단한 제언을 한다면 가칭 ‘보름달축제’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다. 보름달이 뜨는 시기에 우수영에서 ‘보름달축제’를 하면서 강강술래를 비롯한 세계의 비슷한 축제들과 연계될 수 있다면 새로운 파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수영은 최근 사적지로 지정된 데서 보듯이 유적과 문화 공간이 풍부한 곳이므로, 현장과 연계된 개성적인 축제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축제라면 기존 보여주기 식 공연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열린 방식이 적절하다. 지금의 강강술래를 보면, 소리꾼들은 마이크 앞에서 소리만 메기고 놀이꾼들은 마스게임 하듯이 동작만 하면서, 소리와 놀이가 분화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강강술래 특유의 놀이성이 사라지고 감상용으로 변질되는 현상이 생겼다. 또한 판에 박은 공연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소수만이 소리를 메길 줄 알고 나머지는 동작만 하는 축소 지향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쇄적인 전승 구조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개방적인 강강술래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복수의 소리꾼 또는 잠재적인 소리꾼들이 자유롭게 강강술래 연행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강강술래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고정된 놀이꾼만이 아니라 비고정의 놀이꾼들이 넘나들 수 있으므로 확산과 파급을 기대할 수 있다.

축제를 통해 여러 버전의 강강술래를 하는 복수의 전승집단이 형성될 수 있다. 무형문화재만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다. 보존회의 강강술래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강강술래, 청년들의 강강술래가 있다면 강강술래 전승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지역도 우수영에 국한될 이유가 없다. 외지 사람들도 강강술래 팀을 꾸려서 축제에 참가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강강술래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축제는 지역 활성화와 연동될 수 있으므로 그 확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다층적인 교육과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전승환경 구축

현재 강강술래 전수활동은 보존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보존회의 전수교육은 ‘예능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생’이라는 전수 시스템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된다. 전수교육 이외에 학교교육과 일반 사회교육 등으로 교육을 다변화하고 다층화 할 필요가 있다.

강강술래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뒀야 할 것이 교육이다. 전수교육은 정부에서 챙기고 있으니 그것의 내실화를 다지면 된다. 이외에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육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적절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 인력 문제다. 현재는 보존회 회원들이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강강술래를 잘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같은 능력이 아니다. 보존회에서 직접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주도하기보다는 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악강사풀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남 강강술래 교육을 시킨다면 곧바로 학교교육에 파급될 수 있다. ‘국악강사풀제’를 운영하는 기관 및 교육청 등과 협력한다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교재 개발 건이다. 해남 강강술래를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려면 교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진도의 경우 알기 쉽고 가르치기 쉽게 만든 책과 영상 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나 해남에서는 아직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진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진도에서는 진도군청이 문화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교재를 개발하고, 국립남도국악원과 협력해서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남에서도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강강술래의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 세대적인 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의 강강술래가 중요하다. 1960년대 영상에 담겨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아이들 버전의 강강술래가 있었다. 아이들이 강강술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전승을 기약하기 어렵다. 지금은 제한적으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이고 그것도 학교 내의 활동에 그칠 뿐이어서 파급력이 약하다. 아이들의 강강술래가 사회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전승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강강술래를 활성화한다면 그들이 잠재적인 전승자가 되고 세대를 이어 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강강술래의 전승 현실을 진단할 때 교육을 통한 파급과 확산이 중요하다. 보존회가 핵심적인 전승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부적인 문제에 매몰돼 있으면 새로운 전환을 주도하기 어렵다. ‘예능보유자-전수조교-이수자’라는 전수체계에만 집중하면 사회적 확산을 기대하기 힘들다. 기존의 전수교육을 내실화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강강술래를 연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기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의 경연대회가 아니라 놀이 중심의 축제 방식이 적절하다. 또한 아이들의 강강술래가 여러 형태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의 강강술래가 학교 내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되면 강강술래 전승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강강술래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소통하고,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될 때 강강술래가 더 역동적으로 전승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